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교 육 과 학 기 술 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 국 어 -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3
1.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3
2. 언어 환경의 변화	4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4
II.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8
1. 구성 방향	8
2. 구성 체제	8
3. 목 표	9
4. 내 용	9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0
II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1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11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11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12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12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13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13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14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5
1. 성 격	15
2. 목 표	16
3. 내 용	18
4. 교수·학습 방법	104
5. 평 가	122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135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140
참고 문헌	152

- 도 덕 -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57
1.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 유지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157
2. 연구에 기반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157
3.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158
4.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159
5.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159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161
1. 교수요목기(1945년~1954년)	161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162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162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163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164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166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167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07년)	168
II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71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171
2.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174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181
1. 성 격	181
2. 목 표	188
3. 내 용	191

4. 교수·학습 방법	237
5. 평 가	247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257

- 사 외 -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61
1. 사회 환경의 변화	261
2. 국가·사회적 요구	262
3.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개선	262
II.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264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264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264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264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0)	265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266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266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267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267
II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269
1. 개정의 기본 방향	269
2. 개정의 중점	270
IV.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272
<사 회>	
1. 성 격	272
2. 목 표	274
3. 내 용	279
4. 교수·학습 방법	322
5. 평 가	336

<역 사>

1. 성 격	347
2. 목 표	349
3. 내 용	351
4. 교수·학습 방법	377
5. 평 가	383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387
참고 문헌	388

국 어

박미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이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구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명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영진 (전 북 대 학 교)
김봉순 (공 주 교 육 대 학 교)
민병곤 (경 인 교 육 대 학 교)
정현선 (경 인 교 육 대 학 교)
김정우 (영 남 대 학 교)

-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I.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없다. 그동안 국어 교육 학문 공동체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현장 교사 및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다매체, 다문화 등 언어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축적한 학문적 성과, 국어 교육의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요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통 내용 외에도 수준별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을 국가에서 규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공통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 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국가 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수준별 교육이 국가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현실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기본’, ‘보충’, ‘심화’ 등 몇 가지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은 수준별 교육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수준별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의 변화를 국어과 교육 내용의 선정·배열,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언어 환경의 변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영화·인터넷·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정보·지식·문화의 수용·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어 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의 매체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제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와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은 그것이 전달되는 경로인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 소통 주체 간 상호 작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특정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인지 양방향적인지의 차이, 소수의 전문가만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 일반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매체인지의 차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담화·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언어 환경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 학문 공동체, 학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인의 행복과 성숙, 사회의 민주성·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 및 실천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국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요구를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내재화, 체계화,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육 내용 선정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에 있다. 이 때 국어 능력은 담화와 글¹⁾의 수용,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주로 ‘본질’, ‘원리’,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 기능을 학습하면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식과 기능을 학습한다고 해서 저절로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능력이 신장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은 다양한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신장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실제’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범주는 본질, 원리, 태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한 후, 그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즉 본질, 원리, 태도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중심이고,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으로서의 실체는 주변이었다. 일상 세계,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한 편의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직접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 실제와 내용 간, 내용 간의 분절성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에서 선정된 ‘내용’은 특정 담화나 글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능들이다.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이 모든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은 특정 지식이나 기능의 적용을 요구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실제’(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와 ‘내용’(지식,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담화나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은 서로 긴밀하게 교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실제와 내용 간, 내용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지닌 최소 발화 단위로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개념의 모호성, 외래어 사용 등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영역에 따라 텍스트란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로,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글’로, 문법 영역에서는 ‘언어 자료’로,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앞으로 국어과 학문 공동체 내의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텍스트’란 용어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텍스트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맥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라고 표현해야 하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발화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담화와 글’, ‘담화나 글’, ‘담화·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 내용 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이들이 서로 깊이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 부족

언어 활동은 진공 상태가 아닌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이나 기능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식이나 기능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학습자를 형성하여 왔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언어 활동이 갖는 사회성, 대화성, 관계성, 소통성을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라.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부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적·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학습량이 많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당 학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학년 간 내용이 단절되어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영역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영역 간의 통합 지도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온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부족 문제를 제7차 교육과정도 여전히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정보의 부족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주체 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과정은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교육과정 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단지 교육 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수요자에게 위임한 측면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소통성과 친절함을 잃은 측면이 있다. 모든 국어 수업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규정을 받고 있고, 다양한 국어 교육 논의가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 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재구성이 타당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Ⅱ.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정교화, 체계화되었다. 각 시기의 교육과정이 지향한 기본 방향과 교육과정의 체제,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성 방향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언어 습관’, ‘언어 사용 기능’을 올바르게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경험을 통한 지도를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은 제1차 교육과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제3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과 가치관 교육의 강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기본적인 지도 사항을 정선했고 아울러 계열화를 시도하였고,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선정 기준’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국어 교과 특성 명료화, 언어 기능 신장 강화,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내용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분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기능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상황의 주체를 학습자로 삼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도와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주로 교육 내용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 추구를 강조하여 개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성격과 목표를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를 지향하고, 교육 내용의 학습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하였다.

2. 구성 체제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체제는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목표, 내용, 방법 등 국어 교과 교육 전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그 체계성은 부족하였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고,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구성 체제상 변화는 거

의 없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틀은 제6차 교육과정에 와서 크게 변화하였다. 즉,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틀이었던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의 체제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내용 체계, 학년별 내용), 4. 방법, 5. 평가’ 체제로 변화됨으로써 비로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목 표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과의 교육 ‘목표’ 체계는 초·중·고 국어 교육을 통괄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없이, 학교급별 교과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의 특수성보다는 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제4차부터는 국어과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학년별 목표는 각 시기의 교육과정이 구분한 내용 영역과 일치하게 설정·제시하였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항목을,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로 한 항목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년별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학년별 수준의 차를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학년별 도달 수준의 설정이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 학년별 목표 설정 제시의 학문적, 실제적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인 10년 동안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최종 성취 기준을 국어과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4. 내 용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은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 구분 방식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학년별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지도 사항과 주요 형식, 그리고 제재 선정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체제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4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지도 내용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세분하여 학년별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 영역 구분 방식을 조화시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계승하였다.

5.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를 바르게 전개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항목에 제시된 지침이 포괄적이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문서 체제로 볼 때에는 ‘지도에 관한 지침’이 제시된 것이 제2차 교육과정부터이고, ‘평가에 관한 지침’이 ‘지도에 관한 지침’과 독립적으로 제시된 것이 제4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방법’과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Ⅲ.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독립적·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실제 범주(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를 상위 범주로, 내용 요소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위 범주인 실제 범주는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하위 범주인 내용 요소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서 기능한다.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은 실제 범주에서 선정하였으며,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의 예’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선정하였다.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실제’ 범주를 1차 조직자로,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2차 조직자로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성취 기준이 설명문의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용 요소는 해당 설명문을 수용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식, 기능, 맥락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특정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은 특정 지식, 기능을 요구한다는 관점을 수용한 결과이다.

한편,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본질, 원리, 태도가 독립적·분절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된 이유는 이들의 통합과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단위 학교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을 해석하는 권한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하는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수준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삭제함으로써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사항을 ‘4. 교수·학습 방법’ 항의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화자·필자, 청자·독자),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맥락은 언어 공동체에서 형성된 언어 규범·관습과 언어 행위자의 개별적인 언어 행위가 만나는 공간으로 언어 행위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만나고 경쟁하는 공간이다. 맥락 범주의 설정은 언어 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 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신의 언어 행위를 역사, 문화, 사회라는 넓은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 모국어 사용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활동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활동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을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내용의 많고 적음, 내용 수준의 높고 낮음)을 전체 수업 시수, 중복 여부, 내용의 층위, 학습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유지·삭제·조정(학년 간, 학교급 간 이동)·추가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교육 내용의 학년 간, 학교급 간의 수직적 위계성, 학년 내의 수평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의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주체 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하나의 개별적인 담화 또는 글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과 범위를 지닌 담화 또는 글을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항목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용 요소의 예’ 항목에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과정의 구체성이 강화될수록 교육과정 실행 주체의 재량권과 해석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여 소통성을 높이되, 이들을 지침의 성격이 아닌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는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주체에 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추가·변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와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담화·글의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IV.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과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과 국어 문화의 창조, 공동체의 발전과 자아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어과의 성격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범주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을 강조하여 왔다. 이 능력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의미)와 언어를 연결지어야 하는 지적 기능으로서의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의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능력이다. 이는 국어 활동의 지적 기반으로 서 지식 학습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비판적 국어 능력은 언어 활동의 반복에 의한 숙달보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은 비판적·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국어에 대한 지식은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문학에 대한 지식은 문학 작품의 수용을 통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 지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지적 기반이 곧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 교육의 이념적 지향인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성격을 규정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하였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자신의 언어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할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답화나 글은 구체적인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상황을 배제하고 담화와 글을 수용,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습자는 답화나 글이 실제 상황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 변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할 수 있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국어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문법 학습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이 문학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능력은 작품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 활동과 작품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국어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해력과 표현력 신장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중등학교에서는 정확성과 더불어 비판적 태도와 창의성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어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등학교에서는 고등 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국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데, 중등학교에서는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물론 학교급별 국어 교육의 지향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두 학교급 모두 앞에서 제시한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특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2. 목 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국어과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기술한 ‘전문’과 이를 한 단계 구체화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진술을 통하여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 방식을 유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학습자의 국어 사용 양상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효과적이고 창의적인가에 따라 학교급별 성취 기준이 다르게 설

정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제시 방식을 유지하여 ‘전문’과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문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서 ‘알아야 할 것’(이해 영역), ‘실천해야 할 것’(실천 영역), ‘지녀야 할 태도’(태도 영역)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학습자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 ‘국어 활동’,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를 확충해야 하며, 국어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전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세 개의 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향에서는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국어과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은 국어 활동, 국어, 문학에 대한 지식임을 밝히고, 이러한 지식을 배우는 의의는 지식 자체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향에서는 국어 능력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담화와 글의 수동적인 수용·생산을 지양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생산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향은 정의적 교육 내용과 관련된 목표로서 국어 세계에 대한 흥미, 언어 현상의 탐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창조를 강조하였다.

3. 내 용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3. 내용’항은 학년별 내용을 선정하는 준거로서의 ‘가. 내용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한 ‘나.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가. 내용 체계

(1)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관점

가)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유지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정신 구현에 적합한 내용 체계를 구안하였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단일한 ‘내용 체계’를 마련하였다.

나)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²⁾, 문학으로 설정하였으며, 6개 영역은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어 능력의 신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 국어 교육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활동보다는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는 내용 범주(본질, 원리, 태도)가 상위 범주였고, 실제 범주는 하위 범주였다. 그러나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범주를 상위 범주(1차 조직자)로 설정하고, 내용 요소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실제 범주의 규정을 받는 하위 범주(2차 조직자)로 설정하였다.

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태도 범주를 삭제하였다. 태도 범주에 포함된 ‘동기’, ‘흥미’, ‘습관’, ‘가치’를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언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정 학년, 특정 영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언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은 모든 학년,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에서 강조하였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특정 학년,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한 태도 관련 내용은 해당 학년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에서 제시하였다.

마)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로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 지식과 기능의 쓰임은 그 자체만으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이 평가된다. 맥락의 강조는 언어 활동에 역사성, 사회

2)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국어 지식’이라는 영역명을 ‘문법’으로 바꾸었다. 이는 1) ‘국어 지식’에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 모두를 지시한다는 점, 2) ‘국어 지식’에서 ‘지식’이 ‘쓰임과 활용’까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성, 윤리성을 부여하고, 언어 활동이 갖는 관계성, 소통성, 대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비판적, 성찰적인 언어 학습자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 제7차 교육과정의 실제 범주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범주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의 ‘친교’라는 범주명을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바꾸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언어 활동은 1) 개인적·사회적 목적으로, 2)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3) 긍정적·비판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친교’라는 용어는 개인적 목적으로 비공식적 상황에서 긍정적 인간관계의 형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범주명을 바꾸었다.

사)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인 ‘본질’, ‘원리’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범주인 ‘지식’, ‘기능’과 각각 대응한다. 본질, 원리는 그 용어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본질’을 ‘지식’으로³⁾, ‘원리’를 ‘기능’으로 바꾸었다.

(2) 내용 체계 범주의 의미와 범주 간의 관계

가) ‘실제’는 성취 기준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 범주를 구성하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은 언어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나) ‘지식’, ‘기능’, ‘맥락’은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내용 요소는 실제, 즉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의미한다.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내용 요소의 예’는 이들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다) ‘지식’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은 소통의 본질, 담화 특성, 매체 특성을, 문법 영역은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징,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을,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를 포함한다.

라) ‘기능’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마)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법 영역은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를, 문학 영역은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포함한다.

바) ‘실제’ 범주는 내용 요소의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한다. 즉 내용 요소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

3)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과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은 동일하지 않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에 포함된 ‘필요성’, ‘목적’, ‘상황’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성취 기준(실제 범주에서 선정)과 내용 요소의 예(내용 요소 범주에서 선정)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내용 요소는 학습자가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익혀야 할 요소로서 기능한다.

사) 지식, 기능,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긴밀하게 교섭하고 상호 작용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관점, 범주의 의미 및 범주 간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 체계

- 듣 기 -

듣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하는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말 하 기 -

말하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하는 말 하기 - 정서 표현의 말 하기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읽 기 -

읽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지 식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쓰 기 -

쓰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쓰기 -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지 식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고쳐 쓰기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문 법 -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 식		탐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맥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 문 학 -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시(시가)		- 소설(이야기)	
		- 극(연극, 영화, 드라마)	
		- 수필·비평	
지 식		수용과 생산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내용 이해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감상과 비평	
○ 한국 문학의 역사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 락			
○ 수용·생산의 주체			
○ 사회·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나. 학년별 내용

(1) 성취 기준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성취 기준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에 따라 진술하였다.

첫째, 성취 기준은 ① 담화 또는 글의 유형+② 주요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③ 행동(분석, 해석, 평가, 조사 등)을 결합하여 진술한다.

둘째, 성취 기준은 개별적인 지식, 기능, 맥락보다는 한 편의 담화 또는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맞추어 기술한다.

셋째, 성취 기준에 포함되는 지식, 기능, 맥락 관련 내용 요소는 해당 담화 또는 글을 생산,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요소로 한다.

넷째,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각 성취 기준은 하나의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학년별, 영역별 담화와 글의 유형을 선정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활동 목적별(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로 대표성을 지니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둘째,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셋째,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사회생활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담화·글을 선정하였다.

학년별 담화·글의 배열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 담화·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예컨대, 소재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가깝고 구체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고, 고학년에서는 낯설고 멀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제 혹은 내용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간단한 주제를, 고학년에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둘째, 담화·글의 형식성, 공식성을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비형식적, 비공식적 담화·글을, 고학년에서는 형식적, 공식적 담화·글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일한 언어 활동 목적을 공유하면서 담화·글의 유형을 세분화하기 어렵고 학습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담화·글은 소재, 주제, 학습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제시하였다.

(2)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각 성취 기준에 제시된 담화·글을 수준과 범

4)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측면에서 한 단계 구체화하여 진술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한 담화·글의 유형은 네 가지 언어 활동 목적에서 각각 선정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된 담화·글은 1)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수용·생산할 수 있는 담화·글, 2)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담화·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성취 기준과 차례대로 대응한다.

제시한 담화 또는 글은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다른 담화나 글을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언어 활동의 목적, 성취 기준,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내용 요소의 예

내용 요소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내용 요소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인 ‘지식’, ‘기능’, ‘맥락’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각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서 1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성취 기준의 성격, 특성에 따라 1개 이상 선정된 경우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당 3~4개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시 순서는 대체로 ‘지식→기능→맥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내용 요소는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단위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구체화, 상세화, 간략화할 수 있으며 교체·통합·변형도 가능하다.

<7 학년>

- 듣 기 -

【7-듣-(1)】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의 특성 이해하기
- 예고, 강조, 요약 등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 알기
-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 교과별로 수업의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하루 중 학습자들의 많은 시간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 상황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과 관련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국어 능력이 다른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수업을 듣는 능력은 각 교과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기반이 된다.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각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듣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는 수업에서 전달되는 특정 지식과 관련하여 그 중심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제시되므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화 표지가 사용된다. 담화 표지는 담화의 조직이나 내용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화자가 청자를 위해 미리 말할 것에 대해 신호를 주기 위해 쓰이는 도구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담화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 들게 될 정보를 추론하는 데 담화 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화 표지는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예고, 강조, 요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과별로 수업의 내용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맞추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는 4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교과 내용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수업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담화 중에서 각 교과의 내용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업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 중심의 수업보다는 지식 전달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7-듣-(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
- 아이디어 생성 과정 및 기획 의도 추론하기
-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접하는 광고를 설득적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광고의 언어 표현과 이미지 구성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되,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광고를 통한 설득 내용과 광고 전략 사이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광고는 상업적 혹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알리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일반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거나 보여 줌으로써 듣는이나 보는 이를 설득한다. 따라서 광고에서 대상의 특징을 알리고 듣는이나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의 선택, 배치, 구성 방식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설득의 전략과 관련하여, 광고를 보거나 들으면서 듣는이나 보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아이디어 생성 과정과 기획 의도를 추론하게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상에 의지하는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여 주기,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친근감을 갖게 하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생활방식을 선호하게 하기, 새로운 음악을 유행시키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음성적 정보에 의존하는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듣는이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 위해 광고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운율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매체 특성에 따라 광고가 소비자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찾아 내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고에서 나타는 이미지 또는 설명 내용 등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언어 표현이나 이미지 구성 방식 파악하기’는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높은 광고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공익적 목적의 광고 가운데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높은 광고를 선정하도록 하되, 언어 표현과 이미지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인쇄 광고, 옥외 광고, 영상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7-듣-(3) 주변 인물과 면담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면담의 목적과 의도 이해하기
- 면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하기
- 면담 결과를 목적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기

이 성취 기준은 면담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면담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교수·학습 상황을 계획하되, 면담 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생성하고 면담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면담(面談)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상의를 하거나, 서로 면대하여 질의와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터뷰(interview)’라고 일컫기도 한다. 면담은 목적에 따라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 상담을 위한 면담, 설득을 위한 면담, 평가를 위한 면담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면담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의도를 정한다. 그 다음 면담 목적에 맞는 적절한 면담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 대상자의 경력이나 업적, 전공이나 학력, 연령, 성품, 취미, 가족 관계, 정치적 성향, 경제 사정 등을 살펴 면담 목적에 적절한 사람을 면담 대상자로 삼는다.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면담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중요한 내용은 기록한다. 이때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기록할 정보와 그 양을 적절히 조정한다. 면담자는 설정한 면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로부터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면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면담 대상자로부터 얻어낸 정보들을 면담 목적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음한 내용과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의 면담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본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면담의 목적과 의도 이해하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면담 결과를 목적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기’는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을 살펴 주변의 인물이나 관심사를 인상 깊게 소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면담

주변 인물 중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전문가나 수집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업, 진로, 성장 등과 관련된 교사와 학습자의 상담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7-듣-(4)】 재답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이 성취 기준은 재답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고력과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재답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재답의 긍정적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답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답이라 할 수 있다. 재답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즉, 발상과 의미 측면에서 재답을 분석하여 무엇이 웃음의 동력이었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재답 속에 담긴 웃음은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때때로 재미있는 말에는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지만 때로는 그 속에 담긴 비판은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은 즐거움 제공과 비판이라는 양면적 성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재미있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는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답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 중에서 재답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에서 재답은 대중매체를 통해 활성화되므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재답을 활용할 수 있다.

- 말 하 기 -

【7-말-(1)】 대상의 특성을 살려 주변의 인물이나 관심사를 인상 깊게 소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소개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 조직하기

- 대상을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 활용하기
- 자신의 관심 대상을 다른 사람과 능동적으로 공유하기

이 성취 기준은 주변 인물이나 관심사를 소개할 때 대상의 특성을 살려 인상 깊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소개하는 말하기는 소개하는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정보는 말하는이의 의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말하는이가 소개할 대상의 특성을 살려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개하는 말하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해설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소개하는 말을 할 때에는 우선 소개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여야 한다. 가령,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이름, 말하는이와의 관계, 하는 일, 특징 따위가 소개할 내용이 되겠으나 자신이 즐기는 놀이에 대해 소개할 때에는 놀이의 종류, 좋아하는 까닭, 놀이 방법, 특징 따위가 소개할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개하는 대상을 청자가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면 어휘 선택이나 문장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이거나 특징을 이름과 관련지어 표현하거나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할 때에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청자가 대상을 인상 깊게 기억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공유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주변 인물과 면담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주변 인물이나 관심사를 소개하는 말

소개하는 말하기는 짝과의 대화나 소집단 대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말하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친구들의 관심 대상이 될 만한 주변 인물이나 자신의 관심사 중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말을 하게 한다.

【7-말-(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상대의 처지 이해하기
-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
- 상대와 상황에 알맞은 표현과 어조로 말하기
- 정서적 공감과 인격적 감화의 중요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대화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 설득보다는 쌍방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야 한다.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의 요소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의미 구성 행위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화자는 정보의 소통을 중시하는 데 비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화자는 청자의 신념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런데 신념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화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만으로는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설득 대화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상대의 의견이 어떠한지, 그러한 의견을 견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하여야 한다. 대화에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용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화자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용의 합리성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타당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격적 신뢰는 화자의 평소 언행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유대감은 공통의 경험과 가치 기반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화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와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화 상대와 상황에 맞는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고 어조를 조절하는 것도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는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상대와 상황에 알맞은 표현과 어조로 말하기’는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며 설득하는 말

교우 관계, 학업이나 진로, 가족 관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를 설득하는 말이나, 역할극 형태로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설득하는 말을 해 보게 한다.

【7-말-(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논제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인터넷 토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따져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특성과 장점을 지닌 매체이나,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 게시되기도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포함된 글과 사진 등이 언어 예절과 인권, 초상권 등을 존중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논제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토론

인터넷 토론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되, 학습자가 스스로의 관심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7-말-(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내용 요소의 예】

- 관계 중심 대화와 정보 중심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를 고려하여 화제 선정하기
- 상대에 따라 말하기 전략을 달리하기

이 성취 기준은 대화 상대에 따라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선정하고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화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서 대화의 양상은 대화 참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화의 양상이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화의 성패가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 유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선택하고 상대의 말하기 방식을 고려하여 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심 정도, 하는 일, 직·간접적 경험, 지식 정도, 자기 노출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자기 노출 정도와 관련하여, 대화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자기 노출 정도가 낮은 정보부터 순서대로 열거하면 ㉠ 대화 참여자에게 모두 유용한 정보, ㉡ 자신의 기호 즉,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보, ㉢ 정치, 영화, 책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견해, ㉣ 감정, 정서, 가치관, 내적 반응, 믿음, 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순서와 같이 나열된다. 자기 노출 정도는 대인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의 내용을 선택할 때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도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서 말하기 방식은 정보 지향적 말하기와 관계 지향적 말하기, 직설적 말하기와 우회적 말하기, 문제 해결 지향적 말하기와 공감적 말하기, 주도적 말하기와 보조적 말하기 등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의 성별, 사회적 관계, 성격, 태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절한 말하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말하기 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이 다른 다양한 대화

대화 참여자의 특성 즉, 성별, 성격, 관계 등에 따라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1대1 대화나 소집단 대화를 해 보게 한다.

- 읽 기 -

【7-읽-(1)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읽기의 개념과 특성 이해하기
- 읽기의 원리 파악하기
-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 파악하기
- 글의 특성에 맞는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글 읽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 등 읽기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읽기

능력 신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읽기는 인간의 고등 사고 능력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와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정보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읽기 능력의 향상은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읽기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 말하기, 쓰기 등과 비교할 때 읽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식하게 하고, 학습자 스스로 읽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읽기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추상적인 이론을 소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읽기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읽기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독자는 글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읽기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글의 맥락과 특성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글의 목적, 구조, 갈래, 글쓴이의 개성 등에 따라 글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효과적인 읽기를 수행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 등을 설명한 글

읽기의 본질, 읽기의 특성과 원리 등에 대해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글이 적절하다. 초등학교에서의 읽기 경험을 되돌아보고, 읽기 활동에 대해 좀더 다양하고 폭 넓은 이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글이 바람직하다. 글의 맥락이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의 바람직한 사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글 읽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읽기 이론에 치우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7-읽-(2)】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글의 다양한 이해 가능성 이해하기
- 글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원인 파악하기
-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 비교하기
- 다른 사람이 이해한 바를 존중하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의미 구성 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면 대면 의사소통과 달리 읽기는 독자가 글쓴이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읽기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읽기와 다른 사람의 읽기를 비교하고, 자신의 읽기 자세나 방법을 성찰적으로 점검하며, 다른 사람의 읽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읽기는 독자가 글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 이해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글의 범위를 벗어난 오독은 교정의 대상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오독 차원의 잘못된 읽기가 아니라 독자의 지식, 경험, 읽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이다. 같은 글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는 사람과 명료하지 못하게 읽는 사람이 있고, 글의 의미를 풍부하게 잘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순한 한두 가지 의미만을 떠올리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읽기는 개인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읽기와 다른 사람의 읽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나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게 한다. 나아가 자신의 이해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글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글

성별, 연령, 입장 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글 중에서 중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을 다룬 글이 바람직하다. 신문이나 시사 잡지의 시사평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주장의 글, 낯선 문화에 대한 소개의 글 등 읽기에서 독자의 능동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글이 적절하다.

【7-읽-(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건의하는 글의 목적과 특성 이해하기
-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 파악하기
-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 판단하기
-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 기르기

이 성취 기준은 문제 상황에서 타인의 의사를 맥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인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문제를 이성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 무조건 목소리

를 높이거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부터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건의하는 글은 개인 또는 집단의 요구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로 하여금 동정이나 불안, 위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적 호소의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이때 문제 상황과 건의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글의 맥락과 관련 사실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 보고, 건의하는 바가 어떤 점에서 설득력이 있고, 어떤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기준을 세워 판단하도록 지도한다.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득의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한다. 요구하는 바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달리 하거나, 단계적·부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 상황을 합리적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의 수준과 범위】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

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건의하는 글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시대나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요구하는 글의 특성이나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의하는 주체 및 건의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건의 사항을 관철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과 문제를 달리하는 다양한 글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7-읽-(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특성 이해하기
-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기
-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 글쓴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읽기가 단순히 글의 해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정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고, 그러한 읽기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읽기는 직접 경험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타인의 가치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읽기 활동의 이러한 의의를 깨닫고,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적 읽기를 생활화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독서의 다양한 효용은 학습자 자신의 독서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는 읽기 활동의 효과를 학습자의 체험과 관련 지어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읽기를 통해 접하게 된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공감 혹은 거리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이때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현재 학습자 개인 및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가치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기록한 글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본받을 만한 경험을 소재로 한 글에는 신문 기사, 수기, 회고록, 전기문 등 다양한 글이 포함된다. 수많은 읽을거리 중에서 생각할 거리나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글들을 가려 읽는 안목과 자세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흥미를 위주로 하는 글들은 독자를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기 어렵다. 읽기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 흥미로운 글들이 바람직하지만,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삶을 내면화하거나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들이 바람직하다.

【7-읽-(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영화의 매체 특성 이해하기
- 영화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 주요 인물의 성격 및 인물 형상화 방식 파악하기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영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파악하도록 하되,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화에서 서사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놓여있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 전개된다. 영화 속 사건에는 서사 구조 내에서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 사건과, 생략되어도 이야기 구성에는 큰 지장이 없는 부차적 사건이 있다. 핵심적 사건이 이야기의 뼈대라면 부차적 사건은 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인물들의 성격은 핵심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부차적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영화 속 인물들의 성격은 대사를 통해서 그려질 수도 있지만, 표정이나 목소리, 미묘한 움직임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영상이나 소리, 음악 등 다른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성격과 인물 형상화 방식을 파악할 때에는 대사뿐 아니라 영상, 소리, 음악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하여 영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 영화

학습자들에게 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되, 문학 작품을 각색한 영화를 보고 문학 작품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비교하면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할 수도 있다.

- 쓰 기 -

【7-쓰-(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설명문의 특성,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선정하기
- 통일성 있게 내용 정리하고 표현하기
-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통일성 있게 글을 써야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설명문 쓰기를 통해 글이 소통의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필자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문을 쓰게 된다. 설명문 쓰기를 통한 정보의 소통은 특정 주제나 집단의 정보 독점을 지양하고 모든 구성원이 질 높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민주성과 관계가 있다. 설명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필자가 알고 있는 사실, 지식,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을 말한다. 설명문은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이 게재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머리말, 본문, 맺음말’의 짜임을 갖는다. 머리말에는 글쓰기의 배경, 동기, 목적, 방법 등이, 본문에는 설명할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맺음말에는 본문의 내용 요약, 평가,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된다. 설명문은 다른 글과 달리 사실성, 객관성, 명료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특히 선정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통일성(coherence)은 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간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한다. 통일성은 문단의 구성, 문단의 전개, 글 전체의 구성 등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설명문을 쓴 다음에는 통일성의 관점에서 문단의 전개, 글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고쳐 쓰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원리나 현상을 설명하는 글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백과사전을 비롯한 책, 잡지, 신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소재들을 찾도록 한다.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정보의 설명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선정한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7-쓰-(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보고서의 목적, 특성,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사실, 자료, 생각을 기록하며 관찰·조사·실험하기
-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관찰·조사·실험 및 보고의 윤리 지키기

이 성취 기준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연구나 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필요한 실험, 조사, 분석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며, 특히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에서 윤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윤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조사, 관찰, 실험,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보고서는 대체로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즉, 보고서에 제시되는 내용 및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도 정확하고 명료하며 간결해야 한다. 학습자가 관찰·조사·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리를 지키도록 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지 않기, 연구에 참여한 사람을 보호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등을 강조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교과 학습 시간에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쓴 간단한 보고서

각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작가 조사 보고서, 과학 실험 보고서, 지역 사회 탐구 보고서,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개인별,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자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한다.

【7-쓰-(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건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간결하고 명확하며 진지하게 표현하기
- 건의하는 글이 소통되는 일반적인 맥락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건의하는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구성원의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주체와 집단에 의해 생산된 건의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적인 경쟁과 활발한 교섭 과정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학습자는 건의문을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부드럽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수단임을 인식할 수 있다. 건의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익히기, 건의문이 소통되는 맥락 이해하기 등에 중점을 둔다.

건의문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건의문은 상대방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제안한 해결 방안을 수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설득을 목적

으로 하는 글쓰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건의문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공식성, 공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건의문의 표현은 명료하고 정확하며 진지해야 한다. 이러한 건의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건의문을 쓰도록 한다. 건의문의 내용은 문제 분석, 해결 방안의 순서로 조직하도록 하고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진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건의문이 소통되는 상황 맥락,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한다. 건의문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필자 및 독자가 개인일 때와 단체일 때 건의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자와 독자의 관계가 건의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건의문의 특성 이해하기’,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학습자들이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칙, 환경, 청소년 인권, 보행권 등의 문제를 주제로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지역 사회 홈페이지 등에 보도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건의하는 글은 공식적인 건의문을 포함하여 제안문이나 편지 형식, 독자 투고 등도 가능하다.

【7-쓰-(4)】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격려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기
-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표현 전략 이해하기
- 비유나 강조 등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쓰기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과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좌절, 불안, 실의 등에 빠지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어렵다. 자신의 물리적·정신적 상황을 거리를 두고 찬찬히 살필 수 없을 때, 몸과 마음을 온전히 추스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은 친밀한 타인에 의해 포착된 독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독자와 상황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독자는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과 자신의 내면의 주관적인 상황을 차분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성찰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견딜 만하고, 맞설 만하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쓰기는 이러한 거리 두기, 성찰하기, 추스르기 등을 통해 개인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비유나 강조 등의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격려는 다른 사람의 용기나 의욕을 북돋우어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위로는 괴로움을 덜거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활동이다. 표현 전략은 글을 쓰는 사람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사적인 전략이나 기법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수사학에서 강조해 온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등이 이러한 표현 전략 또는 표현 기법에 해당한다. 비유법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변화는 문장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리고 강조는 어떤 사실이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려 하는 전략이다.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참신하고 적절한 격려문, 위로문을 쓰도록 한다. 각 표현 전략의 개념 알기, 표현 방법 알기, 필요성 알기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표현 전략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한다. 한편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이 글을 쓰는 목적, 독자, 주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사용되면 도리어 상투적인 느낌을 주어 표현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독자를 고려한 알맞은 표현 전략 사용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

시험이나 시험을 앞두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 시험 성적이나 친구 문제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 등을 주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청소년 고민 상담 웹사이트 등에 탑재되어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할 수도 있다. 독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다. 글은 편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시나 짧은 표어, 이야기, 영상물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7-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수필의 내용적·형식적 특성 이해하기
- 생활 체험에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선정하기
- 개인적인 생활 체험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기
- 생활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독자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쓰기가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게 하여 주체의 성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체험과 체험이 낳은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수필을 포함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글쓰기가 체험을 성찰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필은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삶에서 체험한 바를 비교적 짧은 길이로 쓰는 글이다. 수필은 다른 글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재의 다양성, 형식의 자유로움, 자기 생각의 진솔한 표현, 필자 개성의 표현 등이 수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필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 보도록 한다. 먼저 생활에서 체험한 것 중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의미 있는 체험을 선정하도록 하고, 체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도록 한다. 특히 수필을 통해 생활 체험을 표현할 때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체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 성, 직업, 사는 곳 등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체험을 표현할 때는 사람마다 체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체험 공유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선정하기’와 관련하여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수필

수필의 소재는 여행, 봉사 활동, 취미나 관심사를 반영한 동아리 활동 등 학습자의 체험에서 찾을 수 있다. 학급 신문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의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편지나 기행문, 일기, 시, 만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할 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슷한 체험에 대해서도 다른 감동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문 법 -

【7-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매체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 및 매체가 언어 사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되, 특히 매체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특성을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글쓰기, 문자 메시지 등의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상호작용성이 강한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쓰이는 문자 언어는 책에 쓰이는 문자 언어에 비해 구어적 특성을 지니며, 이모티콘과 같은 시각적 기호는 면대면 상황에서 쓰이는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컴퓨터와 휴대 전화 같은 새로운 매체의 발명(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이분법만으로는 그 언어 사용 방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을 창조해 냈음을 이해하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용된 다양한 매체 언어 자료

음성 언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매체, 문자 언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인쇄 매체, 그리고 문자 언어의 구어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인터넷 매체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한다. 또한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매체로 표현한 언어 자료도 제시한다.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
-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과 관용 표현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표현의 효

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용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때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분석하여 관용 표현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관용 표현에 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료를 제시하고 관용 표현과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관련시켜 지도한다. 특히 관용 표현에 담겨 있는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용 표현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활동도 행할 수 있다. 특히 패러디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국어 문화에 즐거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속담, 명언, 관용어 등과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담화나 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풍자 만화 등에 나타난 관용 표현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이 성취 기준은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의 특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탐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단어들을 일정한 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깨달아,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을 제시한 뒤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단어들을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무리지어 나눌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탐구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3학년 때의 학습 내용이 반복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특히 문장 성분과 품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 둘을 비교하

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품사가 다른 단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

국어사전,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담화나 글, 품사가 다른 여러 단어들을 제시할 수 있다.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사동·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맥적 의미, 필자의 심리적 태도,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동·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국어 생활 문화와 사동·피동 표현 사용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아 비판적 국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사동·피동 표현을 주동·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한 담화와 글의 의미를 문맥적·심리적·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주동·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인 언어 자료 각각을 대상으로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한 심리적·사회적 특성을 유추해 보도록 지도한다. 특히 사동·피동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동·피동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데에도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용례를 대상으로 왜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사설 등에서는 일부로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감추거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글, 법조문, 경고문, 안내문, 연설문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동·피동 표현을 다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나 글들을 대상으로 사동·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동·피동 표현을 낱말하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에서 다룬 바 있는 ‘표현 의도’ 개념과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에서 다룬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이 기초 학습 내용이 된다. 따라서 ‘표현 의도’ 개념과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등에 대한 학습이 반복적으로 심화, 확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사동·피동 표현에 의해 의미 해석 양상이 달라지는 언어 자료 사동·피동 표현을 사용한 담화나 글로서,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분이나 신문 기사문,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 필자나 화자의 관점 및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담화 혹은 글, 나아가 시사 만화나 그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7-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지시어에 유의하여 담화 또는 글의 의미를 꼼꼼하게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지시어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시어와 담화 또는 글의 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시어에는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지시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담화나 글의 통일성(coherence)과 응집성(cohesion)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나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명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글에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섬세하게 분석해 내어야만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시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시어가 다수 사용된 담화 또는 글 한 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와 의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지시어가 사용된 언어 자료
 의사소통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지시어가 사용된 담화나
 글을 이용할 수 있다.

- 문 학 -

【7-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소설이나 희곡에서 갈등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의 해결 과정 파악하기
-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갈등의 해결 방식과 해결 과정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소설이나 극 갈래(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서 인물은 대개 욕망이나 욕구 또는 희망과 같이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갖고 있다. 인물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흔히 그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는 것이 보통이다. 두 의지의 충돌을 의미하는 갈등은 작품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소설이나 극(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문학 갈래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학습자는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전개 과정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가 구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한 관찰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는 타인을 이해하고 학습자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성취 기준은 갈등과 관련하여 6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인물의 삶과 현실이 잘 드러나는 작품

소설이나 극 갈래를 선택하되 갈등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전한’ 갈등의 전개 구도를 보여 주는 작품이 선택될 때 갈등에 대한 보다 구조화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7-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이해하기
-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파악하기
-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근거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 경우 정서의 파악 ‘방법’에 대한 이해는 작품의 개략적 이해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선에 멈추어야 하고, 그것이 해석을 위한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편 소설에서는 단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정시나 짧은 수필 혹은 단편 소설에서 정서는 비교적 통일된 모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작품 전체의 주된 정서에 대한 이해가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서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작품에 드러난 어조 등 언어적 특성이나 특정한 이미지에 주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개략적인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잠정적인 토대로 하여 작품 전체의 정서 파악에 이르는 길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작품 전체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다시 어조 등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분위기 파악과 관련하여 4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작품 전체의 차원에서 정서나 분위기를 문제삼는 활동을 통하여 문학적 능력을 기르려면 정서 표현이 풍부하게 드러난 작품이나 정서의 색조가 비교적 명확한 작품을 선택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개 시가 권장될 수 있겠지만, 수필이나 소설을 제재로 하여 감상할 수도 있다.

【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에 드러난 시대 상황 파악하기

- 작품에서 인물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파악하기
-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 상황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이 현실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어진 시대를 나름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서 시대상을 드러내는 배경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의 관계 등을 찾아보고, 인물이 주어진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실적 상황과의 비교·유추를 통하여 작품 속 인물의 행위 의미를 이해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은 현실을 토대로 구성되며,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문학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독자는 문학 작품에 대한 독서를 통하여 현실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이해하고,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독자는 사회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문학 작품에서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고 인물들이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동시대의 상황에 유추하여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을 제재로 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오늘날의 상황이나 인물과의 유추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삶과 동시대 사회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문학과 현실의 연관에 관한 3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와의 연장선상에서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인물의 삶과 현실이 잘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특정한 시대, 예컨대 식민지 시대를 소재로 하여 그 시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시대에 순응하거나 시대와의 불화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다.

【7-문학-(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시어와 일상어의 특징 이해하기
- 노래에서 음악적 효과가 나타나는 표현을 찾아 운율을 살려 낭송하기
-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노랫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노래의 노랫말과 시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노랫말이 지닌 시적 표현과 운율을 살려 노랫말을 써 봄으로써 일상어와 다른 시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시어의 표현은 대상에 대한 독특한 묘사나 비유를 통해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음절·단어·구 등의 배열에서 생기는 소리의 반복에 의해 운율 등 음악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시와 노래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현대시의 경우에도 시가 노랫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러한 시어의 특징 때문이다. 시와 노래의 음악적 효과를 살려 낭송하고 일상어를 활용하여 노랫말을 쓰는 것은 시어와 노랫말이 일상어와 맺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노랫말을 써 봄으로써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노랫말이 지닌 시적 표현과 운율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노랫말을 찾아 낭송해 보되, 노랫말 자체가 시와 구분되지 않는 민요, 시조 등의 고전 시가와, 고전 시가나 현대시가 가곡이나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된 경우를 두루 찾아 낭송해 보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시를 노랫말로 변형해 보거나 스스로 노랫말을 쓰도록 하되, 시적 표현과 운율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8 학년>

- 듣 기 -

【8-듣-(1)】 강연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강연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메모하기
- 내용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질문하기

이 성취 기준은 강연을 경청하고 청중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정리하면서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관심 있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의 강연을 적극적으로 찾아 듣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행위인 것이다. 정보가 들어 있는 강연을 듣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강연 중 혹은 강연 후에 청중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데 중점을 둔다.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강연자가 청중 앞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그 주제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청중의 규모는 다양할 수 있으며, 강연 중에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강연자의 일방적인 말하기가 주를 이룬다. 상대적으로 청중의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청중은 강연의 소재가 난해하거나 흥미가 없으면 곧 듣기를 회피하고 강연자의 외모나 언사에 관심을 돌리기 쉽다. 적극적으로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난해한 주제라 할지라도 호기심을 갖고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 강연의 흐름 속에서 중심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사실과 의견, 주장과 근거, 일반화된 원리와 사례 등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강연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강연에 대한 의견 또는 비판 등을 기록해 둔다. 그리고 강연 내용 중 이해하지 못한 점과 궁금한 점은 메모하여 두고, 질의 응답 시간이 주어지면 이를 활용하여 조리 있게 질문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강연 듣기 태도를 기른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시사적 소재나 교양적 소재를 다룬 강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강연회, 학교 방송 등에서 다루는 시사적 소재나 교양적 소재의 강연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 선택, 성교육 등과 같은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강연도 좋다. 강연 내용의 양과 질을 고려하되 강연자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는 강연을 선택한다.

【8-듣-(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적으로 반응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회의 용어와 진행 규칙 알기
- 의견의 요점을 파악하기
- 의견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집단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협력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회의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의사 결정 과정과 그 후 결정된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회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장을 정하고 서기를 뽑은 뒤에 의장의 사회로 이루어지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회의에서는 그 회의 공동체의 회원들이 정한 규칙과 용어를 사용하므로 회의에 참여할 때는 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의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때는 발언권과 동의권을 얻는 데 필요한 발언 규칙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핵심 사안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의견들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며, 각 의견들이 가진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 참여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런 후에 공동의 합의된 의견을 채택하되,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나 이해 관계 등의 외적 요인을 개입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의견이 가결되지 않은 원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회의 용어와 진행 규칙 알기’는 4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학급 회의에 참여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 ‘의견의 장단점을 평가하기’는 8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친구들 앞에서 학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급, 학교, 지역 사회 생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안건을 다루는 회의 학습자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학습자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안건을 다루고 있는 학급 회의, 학교 회의, 지역 사회 공청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모의 국회를 활용한 회의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 중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8-듣-(3)】 수업 대화를 듣고 수업 참여자 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수업 대화의 상호 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작용의 양상 파악하기
- 상호 작용의 양상에 따른 학습 효과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수업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수업 대화 능력은 학습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다양한 수업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계획하되, 수업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 양상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업 대화는 수업 시간에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가운데 특히 구두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수업 대화는 보통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대화는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일방향성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가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의 흐름을 계획하고, 수업에서 목표하는 과제 및 수업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업은 교사들만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 주제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며, 수업 내용을 구성할 때 학습자들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한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수업의 근거와 출발점이 되고, 교사는 이를 토대로 수업 내용 및 구성, 속도 등을 조절한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습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상호 간에도 이루어진다. 공동의 학습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업 중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의 평가가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호 작용이 원활히 진행될 때 학습 과제 해결이 수월해지고 수업의 질은 향상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수업 대화의 상호 작용적 특성 이해하기’는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

교사의 강의 위주 수업, 혹은 학습자의 발표 위주 수업보다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 대화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강의 중심의 수업이라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8-듣-(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하기
-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 분석하기
-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 평가하기
- 다른 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기

이 성취 기준은 라디오 매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라디오 매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텔레비전과 비교해 라디오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따라 청취자 계층이 보다 더 분명히 나뉘는 특성을 지닌다. 라디오의 진행자는 책을 쓰는 작가나 영상매체의 진행자 등과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와 침묵, 음악 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라디오 진행자는 익명의 청취자를 마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한 친구나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하면서 말을 하며, 청취자들의 반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의 사연 소개나 전화 연결을 통해 청취자를 참여시키기도 한다. 진행자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할 때 최대한 주인공이나 서술자의 감정을 이해하여 그 감정에 몰입하며, 청취자와의 직접 대화에서는 청취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텔레비전과는 달리 라디오에서는 진행자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인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언어뿐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 어조, 음색, 억양 등 다양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을 분석하되,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도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는 것과 관련하여,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중 ‘진행자의 반언어적 표현 효과 평가하기’는 8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두 사람 이상의 진행자나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사람 이상의 진행자나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와 참여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되, 특정한 연령, 성,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도록 한다.

- 말 하 기 -

【8-말-(1)】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표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발표할 내용을 시각적 정보와 글 정보로 구분하기
- 발표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 제시하기
-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발표하기

이 성취 기준은 공식적 상황에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발표할 때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발표할 때 매체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선정·조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표의 보조 자료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발표에서 활용할 매체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서 음성이나 문자 매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시각 매체와 소리, 음악 등의 청각 매체,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복합 매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는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 통신 매체와 실물 화상기, 투영 화상기, 영상 화상기 등 표시 장치와 결합하여 발표의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발표할 내용을 문자 정보와 시각 정보로 구분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발표 상황과 주제에 따라서는 청각 매체나 복합 매체를 활용하게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매체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상 화상기로 제시함으로써 발표의 효과를 높이게 할 수도 있다. 발표할 때에는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되, 발표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매체 활용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발표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 제시하기’는 5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공식적 상황에서 사진, 그림, 도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발표

공식적 상황에서의 발표란 수업이나 각종 행사 등에서 주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한 설명적 말하기를 의미한다.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다양한 매체를 직접 또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영상 화상기 등을 활용해 보여주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말-(2)】 친구들 앞에서 학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소력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청중의 관심 분석하기
- 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탐색하기
- 청중이 공감하는 근거 제시하기
-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급에서 학습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은 구성원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학습자들이 학급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탐색하고 이를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친구들 앞에서 설득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토론, 회의 등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 성취 기준에서 설득하는 말 하기는 일종의 연설하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연설의 주제를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을 지도할 때는 연설하기와 관련된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설득하는 말이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중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청중의 규모, 관심, 성향, 수준,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에 대한 연구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학급 생활 규칙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활 규칙의 필요성,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하고 또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호소력은 그에 대해 청중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청중의 요구를 고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설을 할 때는 다수의 청중에게 화자의 의견을 충실하고 효과성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연설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탐색하기’는 8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적으로 반응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청중이 공감하는 근거 제시하기’는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말

학습자들이 학급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 예컨대 지각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청소 당번 정하기, 자리 정하기 따위의 학급 생활 규칙 운영의 문제들 중 의견이 갈릴 만한 것들을 선

택하여 이에 대해 1분이나 3분 정도 친구들 앞에서 설득하는 말을 하게 한다. 연설의 형태로 친구들 앞에서 말하게 하되, 토의, 토론, 회의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도록 할 수 있다.

【8-말-(3)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웃어른과 대화를 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세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차이 이해하기
-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대화 화제 찾기
- 웃어른을 존중하는 말 문화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들이 웃어른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화제를 찾아 대화하거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세대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처지, 관심사, 경험, 가치관, 태도, 말하기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공통의 가치 기반이나 화제를 찾아 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세대 차이에 따라 관심사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일컫는다.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 양식에서 세대 간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게 하려면 세대 간에 존재하는 관심사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말하기 방식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인데, 가령 어른 세대는 회고적으로 말하기를 즐기는 데 비해 젊은 세대는 현재를 중시한다거나, 어른 세대는 관습적인 말하기를 중시하는 데 비해 젊은 세대는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세대 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가령 어른 세대는 주로 경제, 직장, 자녀 교육, 건강, 주거, 노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젊은 세대는 주로 대중 예술, 학업, 진로, 취업, 자기 성취, 친구, 이성 관계, 결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하되, 웃어른을 존중해 온 우리의 말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고, 내용 요소 중 ‘세대에 따른 말하기 방식 차이 이해하기’, ‘웃어른을 존중하는 말 문화 이해하기’는 7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언어 · 사고 · 생활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세대 간의 대화

문학 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에 나오는 세대 간 대화를 분석해 보고 역할극으로 대화를 해 보게 한다. 젊은 세대의 처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처지를 함께 경험해 봄으로써 언어 · 사고 · 생활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위 어른들과 대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소 공식적인 상황에서 웃어른을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8-말-(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에 어울리는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찾기
- 드라마의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드라마를 활용하여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말의 어조, 속도, 크기 등 반언어적 표현과 자세, 손동작이나 몸동작,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드라마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이나 라디오 ·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하는 방송극, 전통 민속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마당극 등을 들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주로 일컫는다. 드라마는 다양한 인물상을 전형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표현들을 접할 수 있다. 우선 드라마를 읽거나 보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8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내용 요소 중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연극에서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잘 드러난 청소년 드라마

드라마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극 등에서 반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이 효

과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활용하여 연기하도록 지도한다. 라디오 드라마를 통하여 반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거나 무언극을 활용하여 비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수도 있다.

- 읽 기 -

【8-읽-(1)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읽고 글의 짜임을 비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단 요약 및 문단 간 관계 파악의 원리 이해하기
- 문단 간 관계 분석을 통해 글의 짜임 파악하기
- 글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의 짜임을 비교·분석하기
- 글의 짜임의 효과 및 적절성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읽기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글의 짜임이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가 글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화한 것을 말한다. 독자는 글의 짜임을 파악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글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을 학습할 때에는 글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표지, 문단 등 글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유의하여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의 짜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글에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글쓴이의 생각은 주로 하나의 문단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면서 각 문단의 성격이나 기능 등을 분석하면 글 전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각 글의 짜임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글마다 목적과 맥락에 비추어 그 글의 짜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중심으로 하여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글의 짜임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글의 구성 방식과 서구의 글의 구성 방식을 비교하여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글의 짜임을 비교해 보는 등의 심화 활동도 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유사한 소재의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유사하게 취하고 있고, 문단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서, 의도나 목적을 달리하는 두 편 이상의 글들이 요구된다. 글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글의 짜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함께 비교하기에 적절한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이 바람직하다.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글을 비교하면서 주로 글의 짜임에 따른 효과를 따져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8-읽-(2)】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논증의 요소와 논증 방식 이해하기
-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여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주장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논증에 대해 이해하고, 글에 담긴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며, 나아가 그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정확히 읽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황을 불편하거나 소모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소수의 주장도 그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함으로써 이 사회의 문제를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논리적인 주장을 담은 글은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된다. 6학년에서 이미 학습한 바와 같이 주장과 근거는 타당하며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의 결론이 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글과 현실의 맥락에 비추어 타당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들 가운데에는 글쓴이의 결론이 의지하고 있는 전제를 감추거나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독자를 교묘하게 현혹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또한 전제와 결론이 무관하거나,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오류를 범하면서 독자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끄는 글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논증의 요소와 논증 방식, 오류의 유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논리학 등의 전문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중학생의 언어 및 사고 수준에 맞게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다루도록 한다. 신문 사설이나 시사평론 등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장하는 글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논증의 요소를 항목화하여 기준으로 설정한 뒤 논증 방식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활동 정도가 적절하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에서 배웠던 내용을 발전시켜서 글의 심층적인 논리성을 분석하는 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의 수준과 범위】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담긴 사실이나 시사평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의 사실이나 시사평론(칼럼)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학습자들이 관련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들이 적절하다. 논증의 모범을 보여주는 글은 물론이고, 교묘하게 논리적 오류를 이용하고 있는 글이나 논증이 모호한 글들을 함께 비교하여 배움으로써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8-위-(3)】 시대적·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며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배경 지식과 의미 해석의 관련성 이해하기
- 글에 나타난 시대적·사회적 배경 파악하기
- 글의 사회·문화적 의미 해석하기
- 전통적 독서 문화와 현대의 독서 문화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알고, 글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면서 글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그 글이 쓰이고 읽혔던 시대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관습은 물론 글쓴이에 대한 정보, 당대의 책이나 글에 대한 인식, 독서 문화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지식이 포함된다. 한 편의 글을 읽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사전에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정확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읽기에서의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알고, 글과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읽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읽기의 중요한 효용은 간접 경험을 확대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글에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는 물론, 그 시대의 가치와 인식, 문화와 관습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읽기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이 쓰였을 당시에 가졌을 의미와 그 글이 지금 가지는 의미를 비교하면서 읽음으로써 보다 풍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모국어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은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전수하여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 독서 문화와 현대의 독서 문화를 함께 보는 안목을 기름으로써 새로운 독서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당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고전 수필이나 시론

그 시대의 쟁점이 되는 문제나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글들 가운데, 가급적 선인들의 지혜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글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오늘날 인간의 삶에도 유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만, 당대의 독특한 언어문화가 담겨 있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앎을 얻는 재미를 주는 글들도 교육적 가치와 효용이 높다.

【8-위-(4)】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서전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쓴이의 삶의 자세 추론하기
-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기록으로서의 글의 기능과 성찰로서의 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면서 글과 삶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인생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필요한 성장 과정인 중학생 시기에 가치 있는 삶의 진솔한 기록을 읽는 경험을 통해 좋은 글을 스스로 찾아 읽는 태도를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치 있는 체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기록한 글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성장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을 기록한 전기문과 자서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자서전에 나타나는 진솔한 내면세계의 표현과 지나친 주관적 판단 등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서전이란 글을 쓰는 이가 스스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가치 있고 후세에 전할 만하다고 판단된 일이나 경험들을 주로 기록한 글이다. 자서전이라는 글의 양식이나 구성의 방식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과 경험들을 글로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는가에 따라 읽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읽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서전을 읽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경험, 그리고 성찰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좀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대와 지역이 다른 인물들의 자서전을 읽음으로써 이 세계의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앎의 폭을 넓히게 되어 풍부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서전 읽기의 목적을 인식하고, 글쓴이의 삶을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의 수준과 범위】 삶의 자세와 인생에 대한 성찰을 서술한 자서전

자서전을 반드시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역사상 위인으로 꼽히는 사람의 것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동시대 사람들의 글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에 대한 회고와 성찰의 내용을 담은 글들이라면 충분히 자서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인물이 도달한 지위나 성과보다는 삶의 자세나 인생에 대한 깨달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글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생을 글로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이나 표현상의 특색이 있는 몇 편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읽-(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내용 요소의 예】**

- 매체 특성과 풍자물의 표현 방식 이해하기
-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 파악하기
- 풍자물에 담긴 현실 비판의 내용과 비판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 풍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의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풍자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풍자물의 내용을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이 지닌 의미 효과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풍자물은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개선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이다. 풍자물에 나타난 현실 비판의 내용을 파악하고, 풍자물에 공감하기 위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풍자물의 내용과 비판 방식에 대해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풍자물이 실린 매체의 특성과 풍자물의 표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며, 풍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이 파급력이 큰 매체에 실린 풍자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중요함을 알도록 지도한다. 매체에 따라 언어적 표현과 영상 이미지, 소리, 음악의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대상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풍자물

풍자 대상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여 표현한 풍자물을 제시하되, 문학 작품, 책이나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실린 다양한 글이나 만화, 텔레비전의 코미디나 시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 인터

넷의 풍자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선정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쓰 기 -

【8-쓰-(1)】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설명문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분석의 개념 이해하기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쓰기
- 분석의 타당성과 명료성을 평가하여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해야 글이 정연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글쓰기 과정은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나 대상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밝히는 과정이 분석의 과정이다. 따라서 설명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글쓰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석적인 글쓰기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해하기 쉬운 글이 좋은 글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때, 적절한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능력은 글쓰기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명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석은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성분 또는 기능 등에 따라 하위 요소로 나누어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것을 정하고 실제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한다. 학습 내용에는 분석의 개념 알기, 분석의 유용성 알기,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알기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이용한 내용 조직의 여러 원리를 알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상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보는 활동, 각 부분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보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는 생활 문화가 달라져서 이제는 잊혀진 과거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등과 중요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과학 현상, 사물, 인물, 사건 등 분석하기에 적절한 대상을 설정한다. 필요에 따라 비교나 대조의 방법도 함께 활용하여 설명문을 쓰도록 한다.

【8-쓰-(2)】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기사를 쓰는 목적에 맞게 자료나 정보 수집하기
-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 재구성하기
- 독자에 따라 내용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기사문 쓰기를 통하여 글을 쓰는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직접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해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하되, 정확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정보를 글로 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사문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 중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신문 매체의 대표적인 글의 종류이다. 기사문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상이나 사건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기사문의 목적에 맞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도한다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해 기사문을 쓰도록 지도한다. 작성된 기사문에 대한 반응은 독자가 지닌 정보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기사문의 사회적 목적을 다른 글과 비교하여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학급 신문에 게재할 목적으로 쓴 기사문

기사문을 읽을 독자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동료 학습자들을 독자로 하여 학급 신문에 게재할 기사문을 쓰도록 한다.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교 행사나 학급에서 발생한 사건, 학급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학습자 소개 등 학습자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기사문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독자의 관심에 맞게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

【8-쓰-(3)】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독자 투고문 등 의견을 제시하는 글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분석하기
-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전개하기
- 독자의 사고, 가치를 형성한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신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사회적 쟁점이 설정되거나 논의된다면, 그 공동체는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쟁점을 설정할 수 있고, 모든 구성원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쟁점의 해결 방안이 모색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통 구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과 태도를 가진 구성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독자 투고문 등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응집성(cohesion)은 글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활짝 웃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그래서’라는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기제)를 통해 두 문장은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 쟁점을 다루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대체로 논리적인 글로서 높은 통일성과 응집성을 요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7학년에서 학습한 통일성(coherence)의 개념을 환기시키고 통일성과 응집성의 차이와 같음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글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성과 응집성이 높은 글을 쓰도록 한다. 한편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자를 포함하여 담화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때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기사문의 사회적 목적을 다른 글과 비교하여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8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글

청소년 문화, 다문화 상황, 지역 간의 갈등, 개발과 환경 보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세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기사문, 사설이나 칼럼, 독자 투고문 등 한편의 글을 쓰는 활동과 함께 이에 대한 짧은 댓글 달기 활동을 통해 참여의 방법이나 의견 제시의 다양한 형태를 학습할 수도 있다.

【8-쓰-(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글 쓰기
- 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글의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직접 글을 써 봄으로써 같은 취지의 글이라 하더라도 글의 목적, 독자, 매체가 달라지면 글의 내용과 형식이 영향을 받게 됨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의 내용과 형식은 글을 쓰는 목적이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에 따라, 그리고 필자와 독자의 성, 연령, 사회적 지위, 친밀한 정도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증대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대화는 주로 개인적 목적에 의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와 기호를 통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온라인 대화 중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에게 씌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 친분이 없는 이에게 사회적 목적으로 씌어질 수도 있다. 게시판 댓글의 경우 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의견 표명에 적합하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개인적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공식적 언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 축약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 우편의 경우 길이의 제약이 없고, 개인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매체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8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매체의 특성이 잘 반영된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학습자들이 친구들과 나눈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을 수집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같은 내용의 글이 다르게 표현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상황을 설정하여 지도한다. 단, 학습자들이 수집하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반드시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에게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지도한다.

【8-쓰-(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시간 순서에 따라 쓸 내용 정리하기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개인의 성숙을 돕는 좋은 경험이 있고, 성숙을 방해하는 나쁜 경험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성찰의 대상이 된 경험은 개인의 성숙을 돕고, 그렇지 않은 경험은 개인의 성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서전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서전 쓰기와 읽기가 주체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서전이 갖는 이러한 성찰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서전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글을 쓰는 데 중점을 둔다.

자서전은 자신이 실제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글이다. 자서전은 자신을 둘러싼 사건과 그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므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이 줄거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자서전의 사건으로는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 또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 선택되게 마련이다. 자서전은 실재했던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자들과의 교감이 쉬울 수 있으며, 상상하여 쓴 글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과 구별되지만, 정서의 나눔이 쓰기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자서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란 7학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표현 전략’과 비슷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지만, 7학년에서는 주로 수사적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었다면, 8학년에서는 속담, 관용적 표현, 격언, 명언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그림, 도표, 사진, 자료 글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자서전의 형식과 특성을 이해하기’와 관련하여 8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자서전

학습자들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에 작성하기 위한 글을 비롯하여 자기 소개, 임원 선거 등의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선정하고 자서전을 쓰도록 한다. 사진, 도표, 증명서, 동영상 자료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서전의 목적에 맞게 수필, 편지, 희곡, 영상 자료, 만화, 시 등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 문 법 -

【8-문법-(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이 성취 기준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 비교하는 활동보다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북한의 언어 자료를 읽거나 듣는 활동을 통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남북한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단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활동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만을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언어 자료의 일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이나 남북한 언어의 유사점을 찾아보는 활동 등도 병행하도록 한다. 북한의 언어 자료를 통해 북한의 언어생활을 추측해 보고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달라진 이유와 이질화 정도를 판단한 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의하거나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언어 자료 북한의 사전이나 교과서, 신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문법-(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과 관계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및 특성 이해하기
- 전문어, 유행어, 은어 사용의 효과와 문제점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전문어, 유행어, 은어 등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어휘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

여 설정하였다. 현 국어 생활 문화 환경에서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문어(technical vocabulary)는 보통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을 가리키는데 사실상 전문어와 전문어가 아닌 것을 명료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어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및 기초어휘와 그 개념을 비교하는 것인데, 사고도구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이고 기초어휘는 ‘일상 언어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 1천 개 내지 2천 개를 최소한으로 선정한 뒤, 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체계’이다. 대략 ‘입’, ‘귀’ 등이 기초 어휘라면 ‘개념’, ‘이론’ 등은 사고도구어이고, ‘음운, 운소’ 등은 전문어이다.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구절, 문장을 가리킨다. 신어의 일종으로 해학성과 풍자성을 띠기도 한다.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로서, 상인·학습자·군인·노름꾼·부랑배 따위의 각종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개념을 담화나 글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학술 서적의 언어 사용 방식의 특징을 지도하되, 전문어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이유와 지나치게 외래어 중심으로 형성된 이유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및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들이 소통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어, 유행어, 은어 사용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국어 생활 문화 환경의 변화와 전문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방식의 특징을 관련시키면서 현 국어 문화 환경의 특징을 탐구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전문어, 유행어, 은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학술 서적(전문어),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유행어), 상인이나 학습자의 언어(은어) 사용 방식이 잘 드러난 담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8-문법-(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여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여 단어의 짜임을 탐구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종류의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하여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짜임 등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어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 단어 형성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생산성이 높아 단어 형성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것들인지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외국어와 고유어, 외국어와 한자어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용례들을 조사하여 단어 형성 방식의 특징과 그 단어가 주는 느낌 등을 토의해 보게 한다. 또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음차어의 경우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문이나 방송 기사, 광고 등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하여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그 표현의 효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국어 단어 형성법을 설명하는 언어 자료

국어 단어 형성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나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단어들, 신문이나 방송 기사, 광고 등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8-문법-(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구별하기
- 중의적 표현을 해석하고 표현의 장단점 이해하기
- 모호한 표현이 된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기

이 성취 기준은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이 생기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장 표현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의 의미를 하나로 확정짓는 활동을 통해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구별하고 왜 이와 같은 표현이 생겼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의적 표현이 어떤 상황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주제를 모호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모호한 표현의 경우 왜 모호한 표현이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정확한 표현으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확하고 효

과적인 문장을 생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와 ‘올바른 문장 생산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병행할 때에 이러한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들어 있는 담화나 글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의도적으로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문구,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글도 좋은 언어 자료가 된다.

【8-문법-(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함으로써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상황 맥락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특히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상황 맥락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자들이 서로 토의하여 탐구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 보는 연습의 기회도 제공하되,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것과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갖는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습자 자신의 국어 생활 자체가 교수·학습의 자료가 되도록 하여,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5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언어 자료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잘 드러나는 담화나 글, 상황 맥락을 달리했을 때 의미 해석에 차이가 크게 생기는 담화나 글 등과 학습자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담화나 글 등이 좋은 자료가 된다.

- 문 학 -

【8-문학-(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에 표현된 형식적 구조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 작품에 표현된 내용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 인식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읽거나 들은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수용하며, 그 수용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 아름다움이나 가치가 수용됨을 인식하도록 하며,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정리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의 수용은 심미 체험이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작품의 표현된 세계를 감동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의 수용은 내용-형식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덩어리는 굳이 구분하자면 형식의 아름다움과 작품에서 이야기된 내용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그 중핵에 포함하고 있다. 문학 작품은 어떤 경우에는 주로 직관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주로 분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되지만, 대개는 이 두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독자에게 더욱 깊이 수용·체험된다. 형식적 구조의 아름다움 파악하거나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 파악하기 등의 상대적으로 분석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작품에 표현된 전체적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파악하는 보다 포괄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전체적 정서와 관련하여 7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특별한 제재의 제한이 주어지기는 힘드나, 특히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이나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는 작품을 제재로 감상하는 방법이 권장될 만하다.

【8-문학-(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근거를 들어서 작품 해석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오로지 어느 한 가지 시각이나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같은 작품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하고, 작품 해석과 평가 관점 등을 정리하고,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편의 작품은 독자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자면 한 편의 작품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리고 작품이 자신의 속내를 보여 주는 정도는 독자의 관심의 방향이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결국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한편으로는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해 방식을 객관화하고 타인의 이해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이해하고 해석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와 나름의 논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성취 기준은 문학적 견해의 차이에 근거한 문학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활용 가능한 제재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기는 힘들 것이나, 가능하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적은 ‘닫힌 텍스트(closed text)’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열린 텍스트(open text)’를 활용하여 비교나 토론의 여지를 주는 것이 권장된다.

【8-문학-(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 이해하기
- 반어(아이러니)와 풍자의 특성 이해하기
- 화자나 서술자의 특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는지를 파악하고, 문학적 의사소통이 특정한 시각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시나 소설에서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작가가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함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등장하듯이, 시에서도 서술자(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작품은 대개 이야기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제시되며, 전달자(서술자)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에서는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시인은 화자에게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고, 알맞은 표정과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시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그것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서술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내용이 달라진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행위, 사건 등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는 이야기 전달에 영향을 준다. 어떤 작품에서는 풍자나 반어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풍자나 반어에서는 흔히 서술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어 특이한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제제는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하고, 풍자나 반어의 경우 전형적인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인물의 행동, 사고방식 이해하기
- 인물의 행동과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
-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에서 인물의 행동이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관련 양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인물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이 사회·문화적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작품 자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은 흔히 이야기되듯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한다. 이 경우 현실의 여러 가지 측면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인물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은 한 사회를 무대로 하여 이루어지며,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이러한 규정은 흔히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문화는 개개인의 내면과 하나하나의 행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나아가 작품 전체와 사회의 관련을 이해하는 활동은 문학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과 여러 측면에서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7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주로 소설이나 극(연극, 영화, 드라마) 제제와 관련되며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선정하고, 등장 인물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행동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8-문학-(5)】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익숙한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새로운 점 발견하기
-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인물의 삶 상상하기
- 문학의 갈래를 선택하여 상상한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구성물을 생산해 보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일상의 관찰을 재구성하거나 허구적인 인물의 삶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문학 갈래의 작품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대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학 작품 등을 통하여 흥미로운 인물에 대하여 강렬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변형이나 재구성 등의 구성 과정을 통하여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성물은 특정한 종류의 문학 갈래, 이야기(소설)나 시 아니면 극(연극, 영화, 드라마)이나 수필 등의 몸을 빌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국 시나 소설 등 새로운 문학적 구조물을 꾸며내려면 단지 대상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새로운 점을 발견하거나 어떤 흥미 있는 인물의 삶을 설정하여 그것들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상상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갈래 문제와 관련하여 6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및 7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특별히 제재의 제한이 주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문학적 재구성의 재료(원료)가 되는 인상적인 작품과 함께 재구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작품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좋다. 작품의 재료에는 신문 기사나 학습자 자신이나 주위 인물의 직접 체험 등 경험적인 서사물이나 허구적인 서사물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이 사용될 수 있다. 결과로서 재구성된 작품은 원료로 분해(분석)되어 그 원료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학습자가 그 창작(구성)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9 학년>

- 듣 기 -

【9-듣-(1)】 시사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심층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 심층 보도의 기획 의도 파악하기
- 심층 보도의 타당성, 신뢰성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정보 전달과 설득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텔레비전 심층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뉴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시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심층 보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되는 보도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층 보도는 다큐멘터리와 뉴스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뉴스에 비해 하나의 사안에 대한 방송 시간이 길고, 내용상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관련된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루는 특성이 있다. 심층 보도는 뉴스에 비해 관찰과 면담의 길이가 길고, 직접 보여주기 어려운 사안은 극화해서 보여주기도 하며, 화면을 보는 시청자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해설자가 설명하거나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심층 보도는 정보 전달과 설득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기획 의도를 파악하며, 심층 보도에 나타난 자료와 설명, 주장 등을 포함한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언어로 표현되는 내용과 영상, 소리, 음악 등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 보도하도록 지도한다. 심층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참여자들 및 쟁점을 파악하고, 각 참여자들 및 쟁점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하위 쟁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공익을 위해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 성취 기준은 심층 보도가 지닌 설득적 성격과 관련하여, 9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논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청소년 문제나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심층 보도

청소년 문제나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심층 보도 가운데,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관심과 경험을 갖고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되, 특히 심층 보도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간추려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9-듣-(2)】 연설을 듣고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기
-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 내용 전개 방식의 적절성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연설의 내용상, 형식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 안목으로 살핌으로써 종합적인 듣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연설을 비판적으로 듣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내용상의 특성과 형식상의 특성을 통합하여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연설은 대화와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공적인 화법의 한 형태이다. 연설자는 미리 상황과 청중을 분석하여 주제와 내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요를 작성하고 조직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능한 청자라면, 청자가 속해 있는 청중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및 형식적 측면에서 연설을 분석하여 비판적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청자는 가능한 빠르게 핵심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제시된 연설의 하부 구조와 하위 쟁점들을 이해한다.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 전개 방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일성, 강조성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통일성은 주제가 하나이어서 산만한 느낌을 주지 않음을 말한다. 강조성은 중심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질을 뜻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기’는 6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을 쓴다.’와, 9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의견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교나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한 연설

연설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청중에게 알려 주기 위한 것,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것,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나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설득 연설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주로 청중의 인식 변화나 행동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연설을 대상으로 한다.

【9-듣-(3)】 지역 방언을 듣고 언어의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쓰임 구별하기

- 지역 방언의 문화적 가치 이해하기
- 지역 방언을 통한 소통의 의의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소통되는 지역 방언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그 소통의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방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지역 방언이 소통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되, 지역 방언이 표준어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어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어는 한국어의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방언을 포함하여 정한 것이다.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반대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표준어와 방언은 말하는 내용, 듣는 이,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 그 쓰임이 구별될 수 있다. 나아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또한 다를 수 있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생활 언어로 예부터 전해 오는 다양한 문화, 전통, 역사, 그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가 깊이 배어 있다. 따라서 지역 방언을 통해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풍부한 정서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대감을 넓히고 정확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할 때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쓰임 구별하기’는 4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지역 방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화나 이야기

학습자 자신의 지역 방언은 물론, 타 지역의 방언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방언 사용자들 간의 친밀한 내용이 오가는 대화나 그 지역의 정서가 담긴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9-듣-(4)】 영화나 연극을 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는다.

【내용 요소의 예】

- 영화나 연극의 특성 이해하기
- 영화나 연극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요소 파악하기
- 영화나 연극의 내용을 개인적 경험과 관련짓기
- 영화나 연극의 내용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기

이 성취 기준은 영화나 연극과 같은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의 경험과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영화나 연극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파악하고 관객의 개인적 경험을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화와 연극은 이야기가 구현되고 전달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소설과 같이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의 갈등과 해소를 다루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의 갈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관객은 작품에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배경 지식, 특정한 시대나 사회적 상황을 다룬 영화나 연극에 대한 관람 경험, 이야기 속 인물이나 사건, 공간 배경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 등을 떠올리며 감상하게 된다. 영화나 연극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요소 등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영화나 연극에 대한 이해 정도, 감동이나 여운의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시대적 상황이 작품 전개에 미친 영향이나 역할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인물의 갈등이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영화나 연극

인물의 갈등이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영화나 연극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록 하되, 예술성을 인정받은 고전적인 작품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의 관람 경험에 비추어 비교적 최근에 상영되어 잘 알려진 작품을 제시할 수도 있다.

- 말 하 기 -

【9-말-(1)】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면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알맞은 전문가 선정하기
-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한 질문 준비하기
-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하기

이 성취 기준은 면담이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알고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와의 면담은 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면담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를 선정하고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 설득, 상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면담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을 위한 면담은 면담자가 피면담자를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과 상담을 위한 면담은 면담자가 피면담자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주로 정보 수집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가 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므로 전문가와 면담을 할 때에는 피면담자가 문

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면담자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찾아 섭외하고, 그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을 진행한 후, 면담 결과를 정리하여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면담자의 질문 전략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피면담자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 보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한 질문 준비하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면담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하기’는 7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주변 인물과 면담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면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면담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 문제보다는 학교나 지역 사회의 현안 또는 시사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면담을 하도록 지도한다. 전문가 협력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 중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9-말-(2)】 토의의 유형과 절차를 이해하고, 논제에 알맞은 방식으로 토의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토의의 유형에 따른 진행 절차 알기
- 논제에 알맞은 방식으로 내용 구성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토의의 유형이나 논제에 따른 토의 진행 방식을 알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토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으는 말하기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한 만큼 토의의 유형이나 논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논제의 성격과 토의의 유형이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 논제나 유형에 알맞은 절차나 방식으로 토의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토의의 유형으로는 포럼, 패널 토의, 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포럼은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하는 토의자가 한 사람씩 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형태이다.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라고도 하는데 3~6명의 전문가가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패널 상호 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 형태이다. 심포지엄은 논제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토의자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의 형태이다. 토의 유형에 따라 토의 진행 절차가 달라짐을 알고 토의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또 토의의 논제는 일반적으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실 논제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지, 그 상황이 어떤 환경 하에서 존재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가치 논제는 사물, 인간, 상황의 가치 즉,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따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제이다. 정책 논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논제이다. 각 유형의 논제를 다룰 때에는 그에 적합한 토의 내용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논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토의 형태가 무엇인지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토의의 유형에 따른 진행 절차 알기’는 6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학습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가지기’는 8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적으로 반응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학교 안팎이나 학습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 포럼, 패널 토의, 심포지엄 외에도 원탁 토의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다양한 토의 형태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말-(3)】 의견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행 절차 알기
-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해하기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협상의 의의를 중시하여 설정하였다. 성공적인 협상은 권익의 합리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공존으로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의 원리를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표가 협의하는 일이다. 사회 생활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대인 관계나 집단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한다. 협상은 이러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간의 충돌을 막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의 당사자가 각자 갈등의 본질을 진단해 보는 단

계이다. 문제의 중요성, 갈등의 원인,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협상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둘째, 갈등 해결을 위하여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단계이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갈등의 상대와 만나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 셋째,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처지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양보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넷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성공적인 협상은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협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협상 참여자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한 협상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협상 참여자의 권한과 한계를 정하기, 협상의 규칙과 절차 협상하기, 주장과 논거 제시 순서 정하기, 반박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등 협상의 다양한 전략들을 협상의 준비와 진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요약하기, 상대의 의견이 가지는 의의를 언급하기,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기, 얼굴 표정·시선·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등이 있다.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성취 기준은 9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연설을 듣고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9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사회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가상의 협상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협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임금 교섭을 위한 노사 협상,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지역 주민 간 협상 또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이나 기업 간의 협상,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상, 기업과 기업 간의 협상,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 등 다양한 협상 상황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9-말-(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 이해하기
-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 이해하기
-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 하기를 통하여 대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재담은 개인적 대화나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가 반영된 이야기를 재담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담은 본래 탈놀이, 판소리 같은 전통 연회에서 광대나 소리꾼이 연행의 흥취를 돋우기 위하여 들려주는 우스갯소리이다. 재담은 전문 예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널리 소통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 공간이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말하기의 형태로 향유되고 있다. 판소리나 탈놀이 등의 연행이나 민담, 설화, 고소설 등에서 해학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언어를 통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원리와 표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재담은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이야기에 몰입하고 웃음을 터트릴 수 있도록 실감나게 전달해야 하므로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함으로써 선인들의 언어생활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해학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재담

민담, 설화, 고소설, 판소리, 탈놀이 등에 사용된 재담을 직접 재연하거나 소재를 찾아 재구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짧은 재담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 속에 재담을 섞어 가며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읽 기 -

【9-읽-(1)】 실용적 정보를 담은 책을 읽고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정보 서적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목록화하기
- 정보 서적의 기능과 효용 평가하기
- 책의 생산·수용 맥락을 고려하여 인기 있는 책의 효용과 폐해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특정 분야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읽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의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각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많은 양의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된다. 이 가운데에는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제목이나 광고에 비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도 적지 않다. 전문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책의 종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가려 읽는 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책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광고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정보 서적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데, 많은 경우 주로 자기 계발, 건강, 여행, 재테크 등 실용적이고 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담은 책들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된 책들이 많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화하여 필요한 서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많은 정보 서적들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 서적을 찾아 그 기능과 효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새로운 관심과 요구를 창출하기도 하는 책의 생산·수용 맥락을 고려하도록 한다. 잘 알려진 정보 서적들을 대상으로 그 가치와 효용, 그리고 한계와 폐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체적인 독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해당 분야의 실용적 정보를 담은 책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성장과 교육에 관련되는 실용적 정보를 담은 책들이 기본적으로 적절한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 서적이거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보 서적, 그리고 일시적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책 자체보다는 광고와 기획의 힘이 컸던 사례 등도 포함할 수 있다.

【9-읽-(2) 논평을 읽고 글쓰이의 태도와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논평의 특성 이해하기
-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평가하기
- 글쓰이의 태도와 표현 방식 간의 연관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실리는 논평에 대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논평은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담아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글이다. 대개의 경우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의 사회적 의미나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된 맥락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글쓰이의 주관적 견해나 평가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전달하는가 하면 선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쓴이 개인의 주관적 의견 보다는 일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성격을 가질 때가 많다. 논리적인 내용 전개와 설득력 있는 표현을 기본으로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증거, 촌철살인의 풍자 등이 더해지기도 한다. 다양한 논평 읽기를 바탕으로 논평의 목적과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표현상의 특성, 논평자의 관점 및 대상에 대한 태도 등을 관련 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논평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글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바탕으로 분개하는 심리를 유도하거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시원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효과를 함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설득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글쓴이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배제될 수 없는 글이다. 논평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해함으로써 논평의 그럴듯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좋은 논평을 가려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분량 안에서 논리성과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의 내용 구성 방법이나 전략, 효과적인 표현 등을 분석함으로써 글의 내용 및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논평에서 글쓴이의 태도와 글의 표현 방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비판적 태도를 취할 때 대상의 빈틈이나 허점을 찾아내는 분석적 표현이 많아진다는가, 공감적 태도를 취할 때 대상의 긍정적 부분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은 9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시사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사회적 현안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과 평가가 잘 드러난 글

특정 현안에 대해 글쓴이의 관점이 분명한 글들 가운데, 대상에 대한 태도나 입장을 달리 하는 몇 편의 논평들을 비교하여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전개 방식에 특징이 있고,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글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9-읽-(3)】 선언문을 읽고 사회·문화적 배경과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선언문의 목적, 기능, 특성 이해하기
- 문제, 어조, 독자에 대한 태도 파악하기
-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기
- 선언문이 쓰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국가나 집단이 특정한 시기에 발표한 선언문에 대해 이해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나 방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적이고 집단적인 의사소통의 관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선언문의 개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언문을 작성하는 집단의 성격이나 시대에 따라 선언문의 양식이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살핍으로써 글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역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의미 있는 선언문이 발표된다. 선언문을 통해 당대 사람들은 시대정신의 지향과 목표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선언문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밖으로 드러내어 널리 전하는 한편 후대에 오랫동안 그 정신과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선언문의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선언문의 작성자는 대개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방침이나 견해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또한 선언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강렬하고 인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당당한 태도로 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선언문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선언문을 분석함으로써 주장의 요체와 그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의 개성적 문체가 선언문의 효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살필 수 있게 한다. 선언문이 쓰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글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선언문의 내용이 가지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문

우리 민족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언문들을 중심으로 글을 선정하되, 반드시 시간적 거리가 먼 시대의 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작성된 시대나 작성 주체에 따라 글의 어휘나 문장이 현대 학습자들에게 매우 낯설 수도 있는데, 발표 당시의 상황 및 언어생활의 일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문을 그대로 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선언문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선언 주체의 관점과 입장이 명료하며, 당대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 글이 바람직하다.

【9-읽-(4)】 촌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촌평의 특성 이해하기
- 촌평의 효과 파악하기
- 촌평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추론하기
- 표현의 윤리성과 비판의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통념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흔히 신문의 가십(gossip)으로 대표되는 촌평 형식의 글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사안이나 인물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수용 능력 및 그에 대한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촌평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 비판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쓰는 짧은 분량의 글이다. 날카로운 촌평은 독자에게 읽는 재미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부도덕한 행위나 탈법 행위 등을 비판하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촌평의 비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때로는 표현의 윤리성이나 인권 침해 여부 등 비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각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촌평이 제한된 수의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잠재적인 촌평 작성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촌평과 그로 인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촌평에 대한 수동적 이해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촌평의 기능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동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촌평은 대개 어떤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된다. 촌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행이나 사건을 둘러싼 전후 맥락,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세인들의 평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촌평이 작성된 맥락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촌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짧지만 강렬한 풍자나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는 촌평의 특성을 알고, 촌평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적 상황이나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풍자나 비판의 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불필요한 인신공격 또는 악의적 명예 훼손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개인의 인권이 집단에 의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또 다른 기본적 권리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인물이나 세태를 풍자하거나 비판한 촌평

촌평의 특성과 기능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글과 함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촌평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자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특징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글과, 날카로운 풍자나 비판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풍부한 표현을 담고 있는 글이 적절하다.

【9-읽-(5)】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만화의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을 글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 그린 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 만화 내용의 함축된 의미 해석하기

이 성취 기준은 만화가 함축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임을 알고 만화의 표현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만화의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만화의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만화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미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글과 그림 및 기타 형상들로 표현된다. 만화의 의미 단위인 칸은 인물이나 대상을 단순화한 시각적 기호인 그림, 인물의 대사가 들어있는 말풍선, 서술자의 목소리나 배경 설명을 뜻하는 줄글 등으로 구성된다. 만화에 따라 여러 개의 칸이 이어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칸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담은 경우도 있으며, 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만화도 있다. 또한 만화의 그림은 그려진 대상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다른 대상이나 관념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로 활용될 수도 있다. 만화의 매체 특성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만화의 글과 그림을 해석할 때에는 글을 읽거나 영상 이미지를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글과 그림에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그린 이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며,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여 해석하도록 지도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함축적 표현을 활용한 만화

학습자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시사만화, 혹은 인터넷 만화 가운데를 보도록 하되, 만화 전체보다는 함축적 표현이 잘 드러난 부분을 발췌하여 표현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 쓰 기 -

【9-쓰-(1)】 독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홍보하는 글의 구성 방법과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보 수집하기
- 부연 설명, 인용을 사용하여 내용 구체화하기
- 홍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요구와 매체 특성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사회적 관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보하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홍보의 목적에 적합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

다.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을 쓰도록 하되, 홍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글을 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홍보는 특정한 대상, 예를 들면 인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홍보하는 글은 보도 자료, 방송 프로그램, 보고서, 연설문, 정보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나 기업 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홍보하는 글에 포함되기도 한다.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 대상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홍보물을 접할 독자의 관심과 태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홍보할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홍보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과 인용을 사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홍보하는 글을 쓸 때에는 홍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요구와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매체 특성을 살려 홍보하는 글 쓰기’와 관련하여 9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5)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 대상으로 설정하되, 홍보 목적과 홍보하는 글을 읽을 독자, 홍보하는 글의 종류는 학습자들의 수준,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 행사나 지역 사회 행사를 조사하여 홍보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다. 독자는 다른 학교 학습자, 부모님, 지역 주민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일반 대중을 독자로 설정할 수 있다. 홍보하는 글은 쪽지, 엽서, 편지, 문자 메시지, 안내문, 광고문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9-쓰-(2)】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논증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 연역, 귀납, 유추와 같은 논리적 증명 방법 활용하여 쓰기
- 논증하는 글의 문화적 관습 고려하기

이 성취 기준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개인, 집단 사이에 관점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논증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글쓰기 방식이 아니다.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기꺼이 나와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한편, 서로가 완전히 일치하는 연대의 형성은 가능하지 않다. 생각과 느낌의 완전한 일치를 지향하는 글쓰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작

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큰 틀에서의 공감과 연대를 모색하는 글쓰기를 지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증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여러 가지 논리적 추론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논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논증하는 글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논설문, 논문, 비평문, 담화문, 연설문 등이 이러한 글에 포함된다. 논증하는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논증하는 글의 명제 또는 주장은 명료해야 하고 논거는 신뢰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론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한편, 진술 및 용어는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논증하는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 차이가 잘 드러나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정한 후,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특히 연역, 귀납, 유추 등과 같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논증하는 글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글쓰기 방식을 달리하였으며, 담화 공동체의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논증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논증을 통해 내용 전개하기’와 관련하여 9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2) 논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와 관련하여 9학년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 ‘(3) 의견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과 근거를 묻는 글을 쓰게 할 수도 있다. 독자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대중 등으로 설정한다. 주장을 논증하는 글은 논설문, 사설, 논평문, 연설문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9-쓰-(3)】 인용과 해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책이나 글을 평가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인용과 해설의 개념, 기능, 방법 이해하기
- 읽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기
- 인용과 해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뒷받침하기
- 서평이 소통되는 맥락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서평 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확장, 정교화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서평 쓰기의 과정은 저자, 글과 충분히 교섭하거나 치열하게 대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과 대결은 필자의 경험 및 사고의 구체화, 정교화를 요구한다. 또한 저자와 자신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서평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인용, 해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평은 책이나 글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 글을 말한다. 서평은 인용, 해설 등의 방법에 의해 내용이 전개된다. 인용은 알맞은 글이나 자료 등을 가져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은 어떤 내용이나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서평 쓰기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해설은 책이나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 해석,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인용, 해설 등과 같이 서평에 주로 활용되는 내용 조직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서평을 쓰도록 한다. 글 읽기를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계기는 읽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에 대한 쓰기 활동 속에 있다. 따라서 서평 쓰기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서평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읽기 경험을 구체화, 정교화하고, 자기 인식을 명료화하며, 글이나 책을 통한 의미 교섭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신의 삶과 세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등이 형성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자신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평

수필, 감상문, 기행문, 시나 소설 등 중학교 3학년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 책이나 글을 찾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정한 후 서평을 쓰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책이나 글의 내용과 수준, 서평의 내용과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독자는 그 책이나 글의 저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 학급 친구나 일반 대중 등으로 설정한다. 관점을 드러내는 서평은 독서 감상문, 비평문, 도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할 수 있다.

【9-쓰-(4)】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문체의 개념, 문체의 효과 이해하기
-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현하기
-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고쳐 쓰기

이 성취 기준은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현할 때, 글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쓰기는 타인의 실천에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사고와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고 글을 써야 거부감을 줄이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 문체는 단순한 표현 전략이 아니다.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이 갖는 문체는 필자의 진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

글을 쓸 때 필자가 선택하는 표현 방법에 따라 글의 개성적인 특징이 달라지는데 이를 문체라고 한다. 문체는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고 그에 맞는 문체로 표현할 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체의 개념 알기, 문체의 종류 알기, 문체의 종류에 따른 표현 효과 알기, 글의 종류·목적·독자에 따라 적절한 문체로 표현하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체의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문체가 글의 내용에 끼치는 영향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쓰기 상황에 맞게 문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문체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다양한 글을 읽고 각 문체의 특징을 알게 한 다음, 글의 종류, 목적, 독자에 따라 문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토의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체를 선택해서 글을 쓰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적절한 문체를 활용하여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

진로 문제나 친구 문제, 나쁜 습관이나 행동 등을 소재로 하여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소재를 사회적인 문제에서 구할 수도 있다. 이때, 조언이나 충고의 대상, 목적, 내용, 상황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동생이나 후배, 선배, 매우 가까운 친구나 사이가 먼 친구 등을 독자로 설정한다.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은 쪽지,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권고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활용한다.

【9-쓰-(5)】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영상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
-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 관객이나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영상물 만들기

이 성취 기준은 영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상 언어는 시각 이미지, 소리, 음악, 등장인물의 말, 자막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어우러져 의미를 구성하는 특성을 지닌다. 영상 언어의 의미 단위는 카메라가 작동하는 순간부터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의 사물이나 장면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숏’이다. 숏들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고, 장면이 모여 이야기를 이룬다. 하나의 숏은 수많은 언어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카메라가 대상을 비추는 각도, 초점, 조명, 색채, 카메라의 움직임 등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 영상 언어의 특성 이해는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영상 언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의미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반드시 영상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들의 경험과 관심,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상물을 만들 계획을 작성해 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보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홍보할 내용 선정하기’와 관련하여 9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1) 독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글의 수준과 범위】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다룬 영상물

교실의 학습 활동이나 운동장의 체육 활동, 축제와 같은 학교 행사 등 일상적인 경험에서 소재를 구한다. 학습자들의 수준,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사건이나 문제에서 소재를 구할 수도 있다. 독자는 학교 친구, 선생님이나 부모님, 지역 주민이나 일반 대중 등으로 설정한다. 영상물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유튜브 등의 다양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 문 법 -

【9-문법-(1)】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의 개념 이해하기
- 언어의 다양한 특성 이해하기
-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국어의 언어적 보편성을 알고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여 국어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언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 관련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비판적, 창의적, 반성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시키되,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폭넓게 제시해 준다.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더 나아가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지구촌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언어 관련 분쟁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 측면에서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언어 자료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글, 언어 관련 문제를 다룬 신문이나 방송 기사문, 언어 관련 문제를 다룬 이야기나 수필 등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9-문법-(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 국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이 성취 기준은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여 국어 의식을 강화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 음운의 특성, 음운의 변동 등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발음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음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표준 발음법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 음운 체계의 개념과 국어 음운의 특성을 학습자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면서도 발음이 틀리는 단어들을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취하면서 국어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음운의 변동은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음운의 변동 중 허용되는 것만을 규범화한 것이 ‘표준 발음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의 변동은 표준 발음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연결시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성취 기준은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의 기초 학습 내용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국어의 음운 체계를 설명하는 언어 자료

자주 사용하지만 발음이 잘 틀리는 단어들, 국어의 음운 체계 등을 소개하는 설명문, 텔레비전 뉴스 아나운서의 담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9-문법-(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 이해하기
-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이해하기
-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알고 문장의 연결 방식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문장의 짜임새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문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장의 기본 구조와 확장 방법을 이해하여 비문(非文)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종류의 문장들을 관찰 및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술어와 자릿수의 기능과 문장의 짜임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어미에 의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문장(이어진 문장)과 접속 부사에 의해 두 문장을 연결한 경우를 비교하게 한다.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차이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시킨다. 특히 긴 안은 문장의 경우 비문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문장을 정확하게 생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짜임새를 분석 및 탐구하고 잘못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문장의 짜임새를 보여주는 언어 자료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글 중에서 잘못된 문장 짜임새를 보여주는 글, 문장의 짜임새를 소개하는 글, 여러 종류의 문장 짜임새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쌍 등을 제시할 수 있다.

【9-문법-(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담화 또는 글을 표현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비판적·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되, 담화 또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비판적·성찰적으로 점검하고 담화 또는 글을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성(coherence)이 담화 또는 글의 심층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응집성(cohesion)은 표면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통일성은 주로 의미적 연결 관계에 의해 드러나므로 글에 담긴 내용의 논리성이나 일사불란함을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데 비해 응집성은 주로 지시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 등과 같은 통사적인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지기 쉽다. 그런데 통일성과 응집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선으로 그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이 떨어지는 담화 또는 글을 비판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담화나 글을 수정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담화 또는 글을 생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은 7학년 쓰기의 성취 기준 ‘(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8학년 쓰기의 성취 기준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통일성과 응집성을 설명하는 언어 자료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떨어지는 담화나 글, 통일성과 응집성을 소개하는 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9-문법-(5)】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이해하기
- 한국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 파악하기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의 위상 점검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점검하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체적으로 점검 및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하되, 오늘날 한국어가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한국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학습자들 스스로 찾아 읽고, 이에 대해 토의하고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 한글의 우수성을 이용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상황, 대규모 말뭉치(corpus) 구축과 국어 정보화 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 및 소개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습자들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 성취 기준은 6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4) 한글의 가치와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등을 소개하는 수필, 설명문, 이야기,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문 학 -

【9-문학-(1)】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찾아 읽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고전 작품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이해하기
- 고전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 정리하기
- 고전 작품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 표현하기

이 성취 기준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에 해당하는 작품을 읽고, 고전적인 작품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고전 작품에 대한 자기 나름의 독서 경험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이해하고, 읽은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고전에 대한 자기 나름의 독서 경험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실에서 고전은 거리와 위엄으로 표상된다. 고전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고 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화의 방법이 활용되지 않으면 고전은 오늘날의 독자에게 홀롱하는 할지언정 죽은 채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전을 자기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먼저 해당 고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권위 있는 통상적 해석 참조하기). 다음, 고전 작품에 대한 이와는 다른 설득력 있는 이견(異見)을 근거와 함께 수용하기(생략도 가능).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해 과정을 독서 경험에 입각해서 정리·발표하기. 이 때 고전 작품에서 다

루어진 사건이나 인물 또는 상황에 대한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여, 동시대의 삶과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동시대화하기= 동시대의 것으로 바꾸어 보기). 이 성취 기준은 문학 작품의 가치 파악과 관련하여 8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한 해석과 평가와 관련하여 8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위의 조건을 갖춘 한국 문학사의 고전에 해당하는 작품을 제시하되 해석에 별로 이견(異見)이 없는 작품과 해석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작품이 모두 제시될 수 있다. 아울러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비평이 원문이나 인용 혹은 요약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독서록도 제시될 수 있다.

【9-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이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임을 이해하기
- 작가의 창작 동기와 의도 추론하기
- 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

이 성취 기준은 작가가 어떤 의도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함을 인식하고,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창작 동기를 관련시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문학 교육의 장에서 교육적 맥락으로 고려하여 제시된 작가의 전기적 생애는 작가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하는 일이기도 하며 문학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작품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문화적 상황이란 등장 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이자 대개는 작가가 몸을 담고 있는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실로 작품은 그 자체 작가를 낳은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따라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

화적 상황은 작가의 창작 동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작가의 창작 동기나 작품이 발표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문학적 소통도 다른 소통과 마찬가지로 소통의 일종이라면, 작품으로 구현된 작가의 의도나 여러 가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성취 기준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8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시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분명히 보여 주는 작품, 작가의 전기적 상황과 작품 내용의 대응 관계가 나름대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9-문학-(3)】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 이해하기
- 해석의 관점과 근거 비교하기
- 자신이 지지하는 해석과 그 근거 말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 신장과 관련하여, 해석 자체에 대한 비교하기 등 상위 인지적(meta-cognition)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작품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해석 자체에 대한 간단한 비교·분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의 수준에서 해석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해석이 무엇이며,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해석에는 어떤 관점과 근거가 동원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자신이 해석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 내용과 해석 방법에 대한 자기 이해에 근거해서 학습자는 제시된 다양한 해석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우열을 가늠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말하기나 문학 작품에 대한 글 쓰기 등 문학적 의견을 갖추는 훈련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관련하여 5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8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작품의 해석 근거와 관련하여 9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4) 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에 유의하여 비평문을 읽는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작품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과 작품에 대한 인상적인 해석을 담은 텍스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도 그 각각의 해석은 저마다 말이 되게 하는 작품을 잘 고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읽을 만한, 그 작품을 다룬 좋은 비평문을 제시하도록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비평문은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한 변경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9-문학-(4)】 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에 유의하여 비평문을 읽는다.

【내용 요소의 예】

- 작품 해석이 다양함을 이해하기
- 해석에는 전제와 근거가 있음을 이해하기
- 해석의 근거와 타당성 평가하기

이 성취 기준은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비평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비평문 읽기는 그 자체의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비평문을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비평문을 다소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실제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비평문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떤 작품에 대하여 비평가가 공들여 써놓은 글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한 글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평문을 직접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런 점에서 읽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평문을 읽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비평문을 읽되 해석의 전제와 근거에 유의하며 읽고, 다시 그 근거의 타당성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교육적으로 조절된 비평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8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와 9

학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 ‘(3)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작품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

교육적인 맥락에 맞게 조절된 비평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깊이 있게 쓰여 있으면서도 매우 쉬운 문체의 글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약간의 변경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9-문학-(5)】 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일상에서 가치 있는 체험을 발견하기
-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체험에 공감하고 내면화하기
- 공감하고 내면화한 내용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이 성취 기준은 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접한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능력과 그것을 내면화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형상화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 말은 발견의 능력과 표현 능력의 동시 발달을 전제한다. 발견의 능력은 삶의 과정에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감수성 및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성찰의 능력을 전제로 발달한다. 이러한 능력은 문학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자체로 문학인 것은 아니다. 발견된 가치 있는 체험이 문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문학적 갈래의 특성과 규칙 그리고 문학 언어의 특성에 따른 문학 작품으로서의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 표현 능력의 발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실행을 위해서는 발견한 체험에 공감하고 내면화하는 자기화의 절차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으로의 표현과 관련하여 8학년 문학 영역의 ‘(5)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및 8학년 문학 영역의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의 표현과 관련하여 8학년 쓰기 영역의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문학적 표현과 문학 갈래의 관련에 대해서는 6학년 문학 영역의 ‘(3)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좋은 문학 작품 읽기의 효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좋은 문학 작품 읽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체험한 내용의 추체험, 학습자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의미 발견, 가치 있는 체험을 발견하는 단서나 계기의 획득,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체험에 공감하고 내면화하는 중요한 단서의 획득 등이 그것이다. 가능하면 이와 같은 조건들의 일부나 그 이상의 것을 획득하는 데 걸맞는 작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4.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 · 학습 계획

- (1)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영역에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해야 할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였다. 교수 · 학습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학습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영역별로 3~5개 정도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대단원 목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는 수업 자료와 목표, 학습자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학습 목표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여섯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수 · 학습의 과정에서 이 여섯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나) 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학습 내용은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맞게 선정하되,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요소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언어 상황에서의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을 실제 국어 활동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발달되도록 한다. 특히 영역별, 학년별로 학습 내용이 일정한 연계성을 지니도록 선정해야 한다. 영역별, 학년별 연계성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반복, 심화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학습 자료의 심화, 학습 활동의 심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①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로 지식, 기능, 맥락을 규정하고, 이를 통어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지식, 기능, 맥락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을 1차 조직자로,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인 지식, 기능, 맥락을 2차 조직자로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이 담화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상호 교류되고 협력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통합, 교섭되는 경험을 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터득한 지식을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언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실제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매 수업마다 작동하는 변인의 성격이 다르고 수업의 조건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교사가 피드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수·학습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만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수업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③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된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학년별, 영역별 성취 기준을 지도하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야 한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의 해당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해당 학습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교수·학습 상의 용이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④ 학습자가 담화 또는 글의 특성, 수용 및 생산 과정 등과 관련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사 개인과 학습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실제 수업의 특성상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 수업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담화의 특성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교수·학습 자료의 수용이나 생산 과정에서 명확한 학습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국어 능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만 한다.

- 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은 난이도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학습자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관심 등과 학습자의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운 학습 경험이 아니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 경험은 누적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학습 상황과의 통합성, 기존 학습 경

협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만 한다.

- (라)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담화 또는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활동과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국어 능력은 담화 또는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목적에 맞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언어 자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즉, 교사가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한다. 국어 수업은 해당 차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학습자가 실제 생활하는 국면에서 수용하고 생산하는 언어 자료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는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 (마) 국어 능력이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도 중요함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①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취한 국어 능력을 학습자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국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며, 수업 시간 역시 다양한 국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어 능력은 국어과 학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는 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통해 일찍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국어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격려하고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 ②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 관계의 형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읽기의 필요성, 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의 중요성,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총체적 경험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어 능력의 신장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토대가 된다. 즉, 올바른 말하기와 듣기 등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하기, 언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바르게 읽기, 자기의 생각을 목적에 맞게 표현하기,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하기,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총체적 경험 확충하기 등은 개인의 삶의 질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국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의 성공 여부나 개인의 능력 정도도 국어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국어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이를 인지하고 국어 능력의 신장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배)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정을 중시하여 개발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최종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자료가 지나치게 학습자의 흥미나 취향에 초점을 기울여 제작된다 보면 수업 자체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면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교실 여건,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②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하고 풍부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확대하고, 국어 현상 및 국어 활동 양상에 대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학습 수준, 필요와 요구, 지역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특히 학습자의 경험을 확충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국어 활동 양상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가)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이란 원래 집단 중심의 활동이 아닌 개인 중심의 활동이며, 교육의 결과는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정신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고 학교 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집단 수업을 통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체제 등을 일시에 전파하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개별 교육에 비해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약점을 지닌다.

국어과 수업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개별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의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을 배려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와 태도이다.

교실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개인차와 학습, 그리고 수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급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수업 처치의 효과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학습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수업은 해당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나) 학습 과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다.

학습 과제는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나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다인수 교실 상황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학습 능력의 개인차이다. 국어과 학습 능력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능력(언어 능력, 추리력, 표현 능력 등)과 선행 지식, 국어 능력의 성취 정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적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둘째는 정의적 요인의 개인차이다. 국어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변인으로 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학습 동기, 태도, 불안, 각성 수준, 자아 개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지·학습 양식의 개인차로 학습자의 학습 방식의 선호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 또는 학습 양식은 국어과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획득 방법과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적성을 의미한다.

② 개인차에 따른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와 수업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는 국어 학습 능력, 선행 학습이나 배경 지식 정도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습 과제의 제공 시기를 정할 때에는 학습자가 지닌 현재 학습 준비도, 수준, 학습 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 과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에 따라, 예를 들어 대단원이나 소단원이 끝난 시점, 또는 매 차시 혹은 특정 주제나 개념 단위가 학습되는 시점으로 나누어서 학습 과제의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①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학습 경험,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한다.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선행 학습 경험 정도,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제공될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전래 동화 중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이며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게 진술된 것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읽거나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즉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동화 감상법을 학습할 때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습자를 한 줄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목표 도달도를 진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학습한 기본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평가 방식은 통상적인 지필 검사보다는 자기 평가, 학습자 간 상호 평가, 교사에 의한 관찰 평

가를 중심으로 한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단원 학습 활동에서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그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개별화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해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습 매체 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학습자는 OHP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학습자는 칠판에 교사가 판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 한 어떤 학습자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학습자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최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학습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매체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매체 환경을 면밀히 살펴 보면서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적절한 시점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①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국어 활동은 독자적인 영역의 내용 요소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영역 간, 영역 내의 내용 요소가 통합하여 이루어지므로 통합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하도록 한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는 국어의 표현 측면에서, 듣기와 읽기는 국어의 이해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각 영역의 독자적 성격을 잘 살리면서 통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는 교수·학습 방안 설계 단계에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국어 활동이 총체적 언어 양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해당 영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 영역과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②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국어 활동은 언어의 양상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음성 언어인 듣기와 말하기, 문자 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언어 매체 면에서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활동의 성격상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국어 활동에서 이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합할 수 있는 학습요소는 통합하고 독자적으로 강조해야 할 학습 요소는 분리하여 교수·학습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영상 언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와 유사한 성격은 무엇이며 독특한 성격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문법이나 문학의 교수·학습에서도 글이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흔히 문법이나 문학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내용 중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법이나 문학 영역의 자료 또한 국어를 매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국어 활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이들 영역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 한다.

영역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영역 내의 내용 요소 중에서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예를 들어 4학년 문학의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를 지도할 때는 ‘(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의 내용 요소 ‘작품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해하기’와 통합하여 지도하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할 수 있다.

(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매체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5학년 듣기 영역의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의 내용 요소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는 말하기 영역의 ‘(1) 대상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한다.’의 내용 요소 ‘시청각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와 통합하여 지도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태)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①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내용 요소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계절이나 시기, 중심 되는 가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토의·토론하기, 편지 쓰기 등의 여러 가지 언어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토의·토론하기와 같은 활동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③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설문 쓰기라는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글을 써 나가면서 퇴고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활동이 동반된다. 그 과정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며 여러 내용 요소가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④ 다양한 담화 또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시의 세계, 소설의 이해, 대화하기, 설명문 쓰기, 논설문 읽기 등의 다양한 담화나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국어 교과와 교수·학습에는 다양한 담화나 글이 동원된다. 그러한 다양한 담화나 글들을 결합하여 학습하기 위해서는 내용 요소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내용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학습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 (1) 교육과정의 ‘3. 내용’의 학년별,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 (가) 학년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교수·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학습자의 수행으로 진행되기보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사, 동료 학습자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과제의 수준을 조정하며, 학습자가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내용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예시, 질문, 학습자의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내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즉,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피드백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자의 연습, 자기 점검, 평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에 대한 분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가 국어 활동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담화를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 사고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어 활동이 단편적,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 총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국어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국어 수행 방식과 과정에 대해 자기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신장은 교사의 평가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 평가뿐 아니라 자기 평가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어 능력의 신장이나 국어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함양은 교사의 평가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 평가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수행 방식과 과정에 대해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 점검 기회는 자신의 국어 활동에 대한 상위 인지적 조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전개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듣기 지도에서는 들은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효용성을 평가하고, 화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 화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듣기 지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고 들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하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능력, 말하는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말하는이의 의견을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듣기 지도는 여러 가지 소리 듣기, 대화 듣기, 연설 듣기, 토의 듣기, 토론 듣기,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듣기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듣기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앞서 언급한 능력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지어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말 듣기, 학습자 상호 간의 말 듣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듣기 등 가능한 한 다양한 듣기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말하기 지도에서는 말하기의 목적, 맥락, 청자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말하기 지도는 과정 중심 또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 과정과 표현 방식을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말을 하는 목적, 말하는 상황이나 맥락, 듣는이 등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습자 간의 토의나 토론 수업에서는 되도록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골고루 발언 기회를 가지고,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습자의 발언 기회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새로 말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② 말하기 지도에서는 말하기의 목적, 맥락, 청자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읽기 지도에서는 학습자에게 읽기가 글에 제시된 글자 하나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따라서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쓴이의 목적, 글의 형식과 특성, 독자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읽으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와 이야기를 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소집단 협력 학습을 이용한 토의나 토론 학습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④ 쓰기 지도에서는 글쓰기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글을 쓰게 하고, 쓴 글에 대한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활동을 강조한다.

쓰기 지도에서는 글자 쓰기, 어휘 쓰기 차원을 넘어 실제로 한편의 글을 쓰는 학습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글쓰기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쓰기 상황과 조건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예컨대, 학교 신문에 휴지를 버리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 달라고 설득하는 글을 쓰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글을 쓴 다음에는 학습자 자신이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고쳐 쓰거나, 쓴 글을 다른 학습자들과 서로 돌려 읽으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고쳐 써 보도록 한다.

⑤ 문법 지도에서는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문법 지식을 생성하는 경험을 강조하되, 학습한 내용이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문법 지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할 때에 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지식과 국어 활동의 관련성, 일상적인 국어 생활에서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의 형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⑥ 문학 지도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작, 모작, 생활 정서의 표현 등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인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의 형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작품 창작 활동은 문학 작품의 수용자였던 학습자에게 주체적인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 창작 활동에는 수준 높은 작품 창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대한 개작이나 모작,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정서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문학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창의성 계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탐구 학습법, 현장 학습법, 개별화 학습법, ICT 활용 학습법, 가치탐구 학습법, 토의·토론식 교수법, 협동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에 의한 교수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습보다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한다. 어떤 질문이나 학습 과제에 대한 답, 즉 결과만을 중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교사와 학습자 모두 자신의 관점을 갖고 각각은 서로의 관점을 존중한다. 서로의 견해가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따라 어떤 때는 교사가 옳고 또 어떤 때는 학습자가 옳을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 모두 옳을 수도 있고 모두 잘못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교사는 예전처럼 권위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강의식 교수법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학습 내용의 경우, 강의식 교수법이 효과적이라면 선택적으로 그러한 교수·학습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나의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은 결코 한 가지만일 수는 없다. 국어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학습 정도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정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반응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반응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숙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토의나 토론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중요시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주장을 펴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듣는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④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의 강의식, 강독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어 교육은 수동적인 학습자보다는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자체에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⑤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과 결과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가 학습 방법을 터득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2)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활동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능력 수준에 적합한 학습 활동의 수행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와 연결된다. 국어 학습 능력에 따라 수업 시간 중의 학습자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가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공통적인 학습 과제 이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 학습 과제의 친숙도 및 흥미 등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 과제를 부과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인수 학급에서는 보통 공통 과제를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별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기본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학습 내용과 목표에 대하여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 학습 과제의 친숙도 및 흥미 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습 속도와 성취 수준 면에서 앞서는 학습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심화 학습 과제를 부과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내용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적 처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만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ㄷ)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선수 학습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한다. 학습 목표에 적합한 학습 과제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선수 학습은 무엇이며, 어떠한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 또 어떤 학습 자료를 통해 피드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성취에 적절한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는 일정하지 않다. 교수·학습 장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 과제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선수 학습 여부에 상관 없이 의미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ㄹ)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이나 능력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학습, 협력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집단 학습이란 4~8명 내외의 학습자를 학습의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지도할 경우,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교사의 세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교실에서 소집단 학습과 개별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력 학습의 경우 수업에 대한 평가 역시 집단별로 해야 한다. 집단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쟁보다는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까닭은 개별적인 학습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협력 학습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학습할 과제를 공유하며, 상호 의존하여 학습하고, 모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성취에 따라 집단 보상이 주어진다. 소집단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방법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와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 또한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3)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국어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는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영역 간, 영역 내의 통합 지도는 언어 기능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총체적 언어 교육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즉,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통합,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말하기와 읽기 영역의 통합,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 문학과 읽기 영역의 통합, 읽기와 문학 영역의 통합, 문법과 말하기, 듣기 영역의 통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영역 내의 통합도 모색할 수 있다.

(나)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위적으로 분절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 접근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국어의 전체(의미)를 상호 관련시키고자 하는 교수 전략을 구사한다. 영역 간 통합 지도는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한다.

(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영역 간의 통합 지도를 할 때에는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 요소를 다른 영역의 내용 요소에 접목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학습 활동은 분절적이지 않다. 읽기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이 쓰기 영역의 학습에 동원될 수 있으며, 말하기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이 문학 영역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태)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는 명목상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수·학습 내용상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취지에 적절한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다. 국어 활동의 통합은 단순한 영역 간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 학습 요소를 통합해야만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 가

가. 평가 계획

(1)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어과의 여섯 영역은 영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신장과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요구된다.

(2) 학습자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한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담화나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은 지식, 사고력, 기능, 전략 등 인지적 요소를 국어과 교육의 중심 교육 내용으로 표방해 왔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의 성장·발달을 도우려 하지만, 정의적 영역의 성장·발달도 도우려 한다. 이러한 균형적 성장·발달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의 모습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적 행동 특성이 인지적 행동 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언어활동에 대한 태도, 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재의 내용과 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의 내면화 등 정의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인지적 요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선택형 평가와 수행 평가 등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어과 평가의 목적은 분류 및 선발, 교육 목표 도달도 파악, 학습자의 발달 정도 판단,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효과 및 장단점 파악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교수·학습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한 평가 내용에 따라 평가 상황도 매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선택형 평가와 수행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4)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제까지의 국어과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결과 중심의 학습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 결과가 중요하고 학습의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교수·학습의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과 중심의 평가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학습자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정 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내어 최선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평가이다. 즉, 과정 평가는 설정해 놓은 목표에 어떤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가를 알아보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과정 평가를 위해 학습자의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관찰법, 면접법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나)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을 별개로 인식하거나, 평가는 일정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인 것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통합을 의미한다. 국어과 교수·학습 시기와 평가 시기를 통합하여 가르치면서 평가하고, 평가하면서 가르치도록 한다. 또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평가의 내용을 통합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다. 예를 들면, 쓰기 관찰 평가에서 교사는 쓰기를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간 또는 학기 간 교수·평가 계획서는 물론, 차시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는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는 자료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함을 의미한다.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만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결과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ㄷ) 국어 사용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상황을 설정하고,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국어과 평가는 학습자의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언어생활이나 학습자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즉, 작위적이고 통제가 심하며 탈맥락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연관된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라는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선정했으나, 실제 언어활동은 통합되어 진행된다. 즉, 언어활동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언어 자료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과 평가에서는 영역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문학/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경우(문학/읽기/쓰기의 통합), 혹은 읽기 제재를 읽고 토론하거나(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읽기 제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읽기/쓰기의 통합)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 목적과 평가 상황에 따라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에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평가 장면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ㄹ) 평가 상황,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 평가가 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즉,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 하나하나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하면서 학습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지 명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상황, 평가의 방법, 평가의 기준을 미리 아는 것은 국어 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의 기준은 교사가 미리

제시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학습자와 함께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마) 학습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평가 도구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가 학습 목표에 적절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학습자의 학습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평가 도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목표와 내용

(1) 평가 목표는 교육과정의 ‘3. 가. 내용 체계’와 ‘3. 나. 학년별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영역별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듣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 듣기, 듣기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듣기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등의 층위를 가지는 언어활동으로서, 들리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언어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듣기 평가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들은 내용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고, 듣거나 추론한 내용을 비판·평가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듣기 학습을 통한 듣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태도’의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학년별, 영역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특정 학년, 영역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즉, 언어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은 모든 학년,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듣기 태도가 어떠한지, 듣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말할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말하기 영역에서 어휘, 문법, 표현의 유창성, 발음 등 언어 표현의 표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평가보다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말하는 내용의 생성과 조직 등 더욱 본질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목적, 상황, 대상을 고려하면서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듣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영역에서도 말하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태도와 그 변화는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는 말하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이다. 학습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말하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말하기 태도가 어떠한지, 말하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㉔)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읽기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읽기 활동은 주어진 글을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읽기 과정은 개별 문장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과정, 언어 자료의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의미 또는 아이디어를 추론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는 과정, 글의 의미나 내용을 구조화하거나 요약하는 과정 등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읽기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통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읽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㉕)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쓸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쓰기 능력은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글로 쓸 내용을 창안하고 선정하는 능력 및 자기 조정 능력, 작문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이해 능력, 읽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회 인지적 능력, 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력, 통합적 사고력 및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능력이다. 이러한 의미의 쓰기 능력은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구체화되기 어렵다.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한 지식의 학습 결과는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쓰기 능력 평가는 쓰기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쓰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즉, 학습자가 쓰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쓸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쓰기 학습을 통한 쓰기 태도와 그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하고, 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쓰기 태도와 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마) 문법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법 지식의 이해와 탐구 및 적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문법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서 찾을 수도 있고, 문법을 학습하여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실용적 목적에서 찾을 수도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실용적 목적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탐구 과정을 통해 일상 언어활동이나 자료로부터 문법적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언어 상황에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바)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학 지식에 대한 이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원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범주명으로 ‘문학 수용과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학 작품을 단지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생산’하는 활동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참고로, ‘문학 수용과 생산’에서 ‘생산’은 문예 창작보다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도 이제까지의 방식에서처럼 ‘수용’의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측면까지 확장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과 생산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하며, 또한 평소에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서 읽는 ‘태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3. 나. 학년별 내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평가 내용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되,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다.

국어과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평가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영역의 교육적 성취를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나) 평가 내용은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이 요인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선정한다.

국어를 사용하는 과정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하위 요인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국어과 평가는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적합하게 선정한다.

(다) 평가 내용은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맥락의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 요소와 담화나 글을 결합하여 선정한다.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드러내야 할 내적·외적 특성으로서 평가 상황에서 평가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평가 장면에서 직접적인 평가 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포괄적이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성취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세부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세부 내용을 지식, 기능, 맥락 범주에서 추출·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내용 요소를 평가 내용으로 활용할 때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성취 기준이 포함하고 있는 담화 또는 글의 유형을 결합하도록 한다. 즉, 내용 요소만으로 평가 내용을 선정하기보다는 내용 요소와 담화나 글을 결합시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평가 내용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을 위주로 하되, 이와 관련된 것도 다룬다.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은 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수용·생산할 수 있는 담화나 글, 또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담화나 글을 의미한다.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것을 위주로 한다. 다만, 평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있는 담화나 글도 다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담화나 글과 언어 사용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담화나 글 중에서 내용, 형식 등을 감안하여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을 선정하도록 한다. 요컨대, 평가 내용에 포함될 담화나 글은 해당 학년별 내용에 것을 위주로 하되, 평가의 목적,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이 있는 다양한 담화나 글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평가 방법

(1) 평가 목적,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란 없다. 평가 목적이 무엇인지, 평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말하고 듣는 활동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하며,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글을 쓰게 하고 그 과정이나 쓴 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사의 학생 평가 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가 내용이나 평가 상황에 따라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자신의 국어 능력이나 동료의 국어 능력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혹은 학생 수가 많아 교사 혼자 힘으로 모든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의 결과물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물을 교사가 다시 평가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는 동료 학생들이 특정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와 더불어 교사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필 평가(선택형, 서답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면접법, 구술 평가, 토론법, 관찰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국어과 평가에서는 고정된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국어과 여섯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면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은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 등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필평가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연필이나 펜으로 답을 쓰게 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선택형과 서답형을 들 수 있다. 선택형 평가란 주어진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물음이나 지시가 요구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의미하며, 진위형(眞僞型), 배합형(配合型), 선다형(選多型)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간편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항 구성이 어렵고, 학습자의 답이 맞았거나 틀렸을 경우에 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 진단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서답형이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서 서술하고 기록하는 문항 형식의 통칭으로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용어로는 주관식 문항이라고 불리며, 선택형 문항 형식과 대비된다. 서술형은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서술하여 답하는 문항을 의미한다. 서술하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따라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분량, 시간 등을 제한하여 명시하기도 한다. 논술형 평가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쓰도록 한 후 평가하는 방식이다. 논술형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통해 논변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논술형 문항도 일종의 서술형 문항이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조직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술형과 구별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법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연구는 그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소집단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법을 흔히 프로젝트(project)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을 익히게 될 것이며, 연구 보고서 발표회나 학생들 간 연구 보고서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자료철(포트폴리오)이란 개별 학습자가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 작품집 또는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변화 발

전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접법이란 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가 학생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지필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 면접법의 장점으로는 과정이나 원인 등 좀 더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진행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술 평가는 학생이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 개별적으로 약 5분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술 평가는 주제나 질문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평가 영역만 알려 준 후 구술 평가 상황에서 교사가 평가 영역과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토론법이란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찬·반 토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찬·반 토론법이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혹은 소집단별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한 다음,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다양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토론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이해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인 담화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능력,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관찰법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이나 특정 언어활동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 학생이나 집단 단위로 관찰하며, 주로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일화기록법이나, 체크리스트(check list)나 평정 척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video) 녹화를 한 후 분석하기도 한다.

(4) 국어 능력의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가급적 질적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어 능력의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널리 사용하던 선택형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선택형 평가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선택형 평가로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변화나 이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학습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택형 평가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형 평가를 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학생들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가급적 질적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질적 평가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 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이다. 질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점수나 석차보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형식(formal) 평가’와 ‘비형식(informal) 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형식 평가’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남기지는 않지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비형식 평가’는 자료 수집 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거나 당장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관찰 계획만 구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해 치르는 쪽지 시험이나 받아쓰기, 수업 담화 관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형식 평가’란, 제도적인 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평가의 결과를 남겨 이후의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로 하기 위한 평가이다.

직접 평가란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을 하게 하여 그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과 수준을 판단한다. 언어활동이라는 직접적인 자료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접평가라 한다. 이에 비해 간접 평가는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거나 기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말하기나 쓰기 등의 평가에서 선다형이나 진위형, 완성형 등의 방식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의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지식은 성공적인 언어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언어 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어 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직접 평가는 간접 평가보다 언어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어 능력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수행 과정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식과 실체는 다를 수 있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라야만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 평가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수행

(performance)’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며, 수행 평가는 어떤 지식이나 절차를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언어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행 평가를 실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토론법, 구술 평가, 면접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5)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 한다.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면서 학생의 자기 평가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특정 쟁점에 대해 논술문을 쓰게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도록 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국어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평가 도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는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성취한 목표와 성취하지 못한 목표가 무엇인지, 성취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른 평가 도구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에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되, 평가 결과 보고 체계를 구체화·다양화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에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보고 체계를 구체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를 통한 정보 제공은 여러 교육 주체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교육 주체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는 형식이어야 하며, 또한 그 체계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각 평가 영역별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등급화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며, 성취 수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 평가 결과의 누적된 프로파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자, 교사, 학부모 모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의 내용은 점수나 등급 등 양적 정보와 장단점이나 원인 등 질적 정보를 관련지어 구성하는 것이 좋다.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도 동시에 제공하여 평가 결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국어과 교육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그래프 형의 프로파일만이 아니라 학생의 종합적인 성취 수준을 서술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프로파일이나 등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성취 정도를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이 어떠한지, 어느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교육 행정가나 교육 정책 입안자 등 교육 관련자들에게는 학습자 집단 전체의 특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양적인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다.

V. 국어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성격	<p>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p> <p>국어과에서는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와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한다.</p>	<p>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의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게 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p> <p>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p>	<p>· 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와 요구 반영</p> <p>· 내용 체계 변화 반영</p>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성격	<p>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한다.</p> <p>국어 학습은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과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 사용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학습은 실제적인 목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여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 내는 탐구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영역의 학습은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p> <p>국어과 학습은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둔다.</p>	<p>국어 교과의 교수·학습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활동, 국어의 발전, 그리고 국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 교과의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운용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재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p> <p>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어 활동을 즐기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중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고등 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강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지향점 제시 • 학교급별 지도 중점 제시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목 표	<p>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p>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p> <p>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p> <p>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p>	<p>· 전 문 과 세 부 목 표 로 구 분 하여 제시</p> <p>·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p> <p>· 인지적·정의적 특성 반영</p>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내용	내용 체계	가.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영역의 ‘내용’을 ‘본질/원리/태도/실제’로 범주화하여 체계표 제시 	가.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영역의 ‘내용’을 ‘실제/지식/기능/맥락’으로 범주화하여 체계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요소 범주의 용어 개념 지식: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 기능: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 맥락:담화/글 수용 · 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 											
	학년별 내용	나. 학년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내용을 6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영역별로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기 - <table border="1"> <tr> <th>내용</th> <th>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th> </tr> <tr> <td>(1)---</td> <td> 【기본】 ○ 【심화】 ○ </td> </tr> </table>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1)---	【기본】 ○ 【심화】 ○	나. 학년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내용을 6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성취 기준별로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의 예’ 제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기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담화/글의 수준과 범위></th> </tr> <tr> <td colspan="2">- -</td> </tr> <tr> <th>성취 기준</th> <th>내용 요소의 예</th> </tr> <tr> <td>(1)---</td> <td> ○ ○ </td> </tr> </table>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		-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 ○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1)---	【기본】 ○ 【심화】 ○														
<담화/글의 수준과 범위>															
- -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 ○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교수·학습 자료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성과 유용성 제고 · 수준별 수업에 대한 사항 제시 · 영역 간 교육 내용 통합 지도 방안 제시
평가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의 활용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계획 수립 시 유의점 제시 · 내용 체계의 변화 반영 · 평가 내용의 통합 강조 · 교사의 학생 평가 이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상호 평가 강조 · 영역별 평가 방법 제시 지양, 국어과 평가 방법 제시 후 영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 선택 강조 · 평가 결과 보고 체계의 다양화 강조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용어 해설】

● 가치 탐구 학습법

주어진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재구성’해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거나 주어진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 개별화 학습법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며, 수업의 모든 요소를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는 변별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능력별 학습 집단 편성 방법, 학습자의 개인차와 학업 적성에 맞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 주는 방법이 있다. 보충·심화형에 적용한다.

● 공식적·비공식적 상황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을 내용과 형식의 공공성이나 격식성 정도에 따라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공적 관계를 전제로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비공식적 상황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사적 관계를 전제로 직무의 수행보다는 친교적 목적을 가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관찰법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특정 언어활동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 학생이나 집단 단위로 관찰하며, 주로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일화기록법이나, 체크리스트나 평정 척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녹화를 한 후 분석하기도 한다.

● 광고

물건을 팔거나 소비자의 반응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 혹은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설득적 담화로서,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 구두 작문(oral composition)

글을 쓰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이 쓸 내용을 먼저 말로 해 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구술 평가

학생이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한 다음, 개별적으로 약 5분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술 평가는 주제나 질문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평가 영역만 알려 준 후 구술 평가 상황에서 교사가 평가 영역과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 국어 생활 문화사

국어 생활을 통해 형성된 언어 문화사. 말하기·듣기 생활 문화사, 읽기 생활 문화사, 쓰기 생활 문화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음운, 어휘, 통사, 담화나 글 등에 드러난 국어 생활 일반의 공통된 특성을 통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어 생활 문화사의 중요한 내용이다.

● 국어 의식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자 하는 문법 교육은 의미를 갖는다.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의 국어 의식의 집합체를 상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 의식이 약하다’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그림책

글과 그림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책의 일종으로, 글을 위주로 내용이 전달되는 일반적인 책이나 그림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삽화가 있는 책’과는 달리 글과 그림이 서로를 보완하여 뜻하는 바를 전달하는 책을 가리킨다.

● 글, 텍스트, 책

글과 텍스트와 책은 모두 읽기(독해, 독서)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중 글은 문자 언어로 된 것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문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음향 등의 다매체적 요소가 함께 사용

되므로 영상이나 음향 등의 다매체적인 요소를 보조적으로 포함한 자료도 글이라 한다. 텍스트도 국어 교육에서는 글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글과 달리 문자 언어가 지배적이지 않아도 텍스트라 할 수 있고 또 일상적이기보다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글이나 텍스트가 구체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속성을 품고 있는 용어라면, 책은 문자를 종이에 인쇄한 묶음 등과 같이 명백한 구체물을 뜻한다.

● 논술형 평가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쓰도록 한 후 평가하는 방식이다. 논술형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통해 논변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논술형 문항도 일종의 서술형 문항이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 서도 설득력 있게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조직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술형과 구별할 수 있다.

● 논제

토의나 토론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가리킨다. 토의에서는 협의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내며,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을 긍정형의 평서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제는 내용에 따라 사실에 관한 것, 가치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 드라마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이나 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하는 방송극, 전통 민속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마당극 등을 포함한다.

● 만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미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글과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을 가리킨다.

● 매체(media)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는 뜻으로, 의미를 담은 텍스트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 혹은 경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에서 활용되는 수단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매체의 종류에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있다.

• 면접법

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가 학생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지필 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

면접법의 장점으로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진행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문제 해결 학습법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강조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화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과학 교과와 같은 엄격한 가설 검증과 일반화 절차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주로 지식이나 개념을 가르치는 데 적용하며, 기능이나 전략을 가르치거나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반어(아이러니 irony)

어떤 단어가 표면적인 뜻과 반대의 뜻으로 쓰일 경우 이를 ‘반어(아이러니)’라 한다. 한편, 아이러니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가리킬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 보통 아이러니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전자를 언어적 아이러니라 하고, 후자를 극적 아이러니(혹은 상황적 아이러니)라 한다.

아이러니는 비꼬는 의도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웃음을 유발하는데, 특히 문학 작품에서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흔히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진실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semiverbal) 표현은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매개되어 의미 작용을 하는 발음, 조음, 고저, 어조, 속도, 크기 등을 가리키며, 비언어적(nonverbal) 표현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세, 손동작, 몸동작, 얼굴 표정, 눈 맞춤 등을 가리킨다.

• 반응 중심 학습법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이다. 단,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동료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신의 반응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학적인 텍스트, 특히 시나 이야기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유형에 적용한다.

• 서답형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서 서술하고 기록하는 문항 형식의 통칭으로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용어로는 주관식 문항이라고 불리며, 선택형 문항 형식과 대비된다.

• 서술형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서술하여 답하는 문항을 의미한다. 서술하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따라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분량, 시간 등을 제한하여 명시하기도 한다.

• 선택형 평가

주어진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물음이나 지시가 요구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의미하며 진위형(眞僞型), 배합형(配合型), 선다형(選多型)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간편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 평가는 학생을 선발, 분류, 배치하기 위한 양적 평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에 문항 구성이 어렵고, 학습자의 답이 맞았거나 틀렸을 경우에 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 진단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힘들고,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학생을 지도·조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수업 대화

수업 대화는 수업 시간에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가운데 특히 구두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수업 대화는 보통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대화는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일방향성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 수행 평가(performance assessment)

수행 평가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동’이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수행(performance)’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며, 수행 평가는 어떤 지식이나 절차를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구

체적인 언어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행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토론법, 구술 평가, 면접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 신뢰도(信賴度, reliability)

타당도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느냐,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임에 반해,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는 개념이다. 즉, 측정하고 있는 정도에 일관성이 있느냐,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으냐 하는 질문을 하는 셈이 된다.

● 심층 보도

뉴스와 다큐멘터리의 중간에 위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뉴스에 비해 하나의 사안에 대한 방송 시간이 길고, 내용상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관련된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룬다.

●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없는 연속된 그림이나 사진을 이어 붙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동영상을 가리킨다.

● 어휘 능력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단어 및 어휘에 대한 지식과, 하나의 단어를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어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 단어 및 어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양적 측면과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적 측면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연구 보고서법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연구는 그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소집단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법을 흔히 프로젝트(project)법이라고도 하며, 학생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을 익히게 될 것이며, 연구 보고서 발표회나 학생들 간 연구 보고서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영상 언어

매체 언어의 일종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인터넷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체의 언어와 기호를 뜻한다. 영상 언어는 시각 이미지, 소리, 음악, 등장인물의 말, 자막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구성된다.

• 영역 통합적 평가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여섯 영역별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문학/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경우(문학/읽기/쓰기의 통합), 혹은 읽기 제재를 읽고 토론하거나(읽기/말하기/듣기의 통합), 읽기 제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을 쓰는(읽기/쓰기의 통합) 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평가 목적과 평가 상황에 따라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평가 장면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 온라인 대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마주보는 상황에서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온라인 대화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혹은 시간의 거리를 두고 화자와 청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다. 온라인 대화는 음성이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지만 글보다는 말에 가깝고, 화자와 청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일상 대화와는 달리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조, 음색, 높낮이, 장단,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 의미 구성 행위

독자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의미 구성 행위란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고 작용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글 속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 의도가 글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이 글의 의미라고 한정할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여 실현하는 독자의 사고 작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같은 글에 대해서도 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독자마다 다양한 사고 작용을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백한 오독은 제외하고, 글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의미 구성의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독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성찰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응집성(cohesion)/통일성(coherence)

응집성은 담화 또는 글의 표면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응집성 장치로는 대용어와 접속 부사를 들 수 있다. 대용어에는 ‘인칭 대명사(이이, 이분, 그이, 그분, 저이, 저분)와 지시 대명사(이것, 그것, 저것), 수사(하나, 둘……(기수), 첫째, 둘째……(서수)), 동사(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형용사(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관형사(이런, 그런, 저런), 부사(이리, 그리, 저리)’ 등이 있고 접속 부사에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등이 있다. 예컨대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와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그래서’를 넣게 되면 독립된 두 문장이 응집성 있는 하나의 글이 된다. 이처럼 응집성은 담화 또는 글의 언어적 결속 장치이다.

그런데 ‘목이 말랐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셨다’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예처럼 ‘그래서’가 두 문장 사이에 들어 있지만 매우 어색하다. 두 문장이 의미상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한 편의 글이 ‘글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용어나 접속 부사 등의 사용과 상관없이 의미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일성은 담화 또는 글의 심층적 연결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제적 일관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응집성이 담화나 글을 ‘담화답게’ 또는 ‘글답게’ 만드는 형식적 조건이라면, 통일성은 의미적, 내용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음성(형식)과 의미(내용)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한 편의 글은 응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글다워진다. 이 둘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하여 응집성과 통일성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 인형극

인형극이란 극화 활동의 한 형태로서 무대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등장하여 연기하는 극예술이다. 인형극은 인형으로 대신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읽기, 독해, 독서

읽기와 독해와 독서는 모두 기호를 해독하여 의미를 만들고 수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중 읽기는 국어 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매체로 된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독해는 읽기의 한 양상으로서 의미를 깊이 분석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내용확인, 추론, 평가·감상’ 등과 같이 의미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일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는 것으로서, 의미의 깊이를 추구하는 독해와 달리,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활동에 중점이 있으며, 책과 같은 구체물을 대상으로 한다.

● 자기 평가(self-evaluation) /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

자기 평가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의 결과물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물을 교사가 다시 평가할 수도 있다. 자기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는 동료 학생들이 특정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자료철(포트폴리오, portfolio)

개별 학습자가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作品集 또는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변화 발전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재담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말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 할 수 있다.

● 지필 평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연필이나 펜으로 답을 쓰게 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선택형과 서답형을 들 수 있다.

● 직접 교수법

고도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우주 항공기나 잠수함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후,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익히면 전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 직접 평가/간접 평가

직접 평가란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을 하게 하여 그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특성과 수준을 판단한다. 언어활동이라는 직접적인 자료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접평가라 한다. 이에

비해 간접 평가는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말하기나 쓰기 등의 평가에서 선다형이나 진위형, 완성형 등의 방식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활동의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지식은 성공적인 언어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언어 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어활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직접 평가는 간접 평가보다 언어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어 능력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수행 과정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식과 실체는 다를 수 있고,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라야만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질적 평가/ 양적 평가

질적 평가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이다. 질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점수나 석차보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

● 창의성 계발 학습법

처음부터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방법이다. 문학적인 글을 읽고 주인공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같은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동료들 간의 토의 학습을 강조하며, 말하기·듣기나 쓰기 활동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야 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다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타당도(妥當度, validity)

한 검사 혹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 ‘이 검사가 진짜 무엇을 재고 있느냐?’,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러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 검사가 잦다고 하는 이 능력, 이 특성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재고 있느냐?’라는 것은 모두 타당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타당도란 ‘무엇을 재고 있느냐’는 개념이다.

● 탐구 학습법

연구형 수업 방식(research-like method)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주제의

자발적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행위를 자극하는 수업 형태이다. 이는 이념적인 것이며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지식 관련 내용에 적용한다.

● 토론법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찬·반 토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찬·반 토론법이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혹은 소집단별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한 다음,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다양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토론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진행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토의·토론식 교수법

공통 주제를 논의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교사의 역할보다는 학생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며 모든 교과와 모든 학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보다는 고차적인 인지 능력의 함양에 적합하며, 특정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탐색하거나 태도 변화를 기하는 데 적합하다.

● 풍자(satire)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조소적(嘲笑的)인 표현을 가리키는 말로, 풍자(諷刺)에는 ‘찌르다’는 ‘자(刺)’자가 들어 있다. 그 점에서 악의 없는 웃음을 선사하는 해학과 구분된다. 이러한 표현은 확장되어서 그림이나 영화 등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지원이나 채만식 등의 작품에서 풍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거니와, 대상을 풍자하는 눈(목소리)을 통해서 사물을 그린다든가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풍자물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개선헬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을 가리킨다.

● 현장 학습법

학습 장소를 학습 자료가 있는 현장으로 옮김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주제에 따른 지역 사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폭넓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방언 조사, 설화 수집, 독서 기행 등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협동 학습법

학급 내에 존재하는 집단 역동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전통적 교실에서처럼 경쟁적,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집단의 목표나 집단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다. ‘직소(jigsaw) 학습’을 원용한 제7차 교육과정 하의 ‘전문가 협력 학습’도 이 방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형식 평가/비형식 평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형식(formal) 평가’와 ‘비형식(informal) 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형식 평가’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남기지는 않지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비형식 평가’는 자료 수집 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거나 당장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관찰 계획만 구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습 효과의 향상을 위해 치르는 쪽지 시험이나 받아쓰기, 수업 담화 관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형식 평가’란, 제도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평가 결과를 남겨 이후의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평가이다.

• 훈화

훈화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화나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 윤리를 강조하는 훈화나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와 관련된 훈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훈화의 시기, 장소, 목적 등에 따라 말하는이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한다. 훈화는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의 한 수단으로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ICT 활용 학습법

교수·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즉, 문제 해결에 교육적 매체(instructional media)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육용 CD-ROM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보 기술은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통로로서의 기능, 거대한 자료원(Data-Base)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부(1998).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김대행(2003).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교육 과정학회 학술세미나.
- 김동환(2000).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 김상욱(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서울 : 나라말.
- 김재봉(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한국초등국어 교육 제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재춘(2003). 국가 교육 과정 개정 담론의 비교 분석(Ⅰ) : 제4차에서 제7차에 걸친 ‘교육 내용 적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연구 23(2), pp. 105~122.
- 김정자(2003).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 전자 작문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학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 김주환(2000). 7차 교육 과정과 국정 교과서, 함께 여는 국어 교육 45.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창원·김혜영·유영희 외(2003). 문학영역 및 과목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도순(2000). 문항작성방법론. 서울 : 교육과학사.
- 박인기 외(1999). 국어과 수행평가. 서울 : 삼지원.
- 박인기(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백순근·최미숙·유동엽(2000).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기초 학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이양락·박순경·정영근(2004). 국어과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영택(2003). 국어 교육 목표에 대한 재조명,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9회 학술 대회 자료집.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 과정1 : 영국·프랑스·중국의 교육과정. 서울 : 나라말.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3). 외국의 국어 교육 과정2 : 캐나다·미국·호주의 교육과정. 서울 : 나라말.
- 우한용·박인기·박삼서·정구향·김중신·김창원·김상욱·정재찬(1997). 문학교육과정론. 서울 : 삼지원.
- 원진숙(2000).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평가, 한국초등국어 교육제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07).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대규(1998). 국어 교육의 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이도영(1999). 국어과 평가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회 1999 여름 학술 발표 대회. 국어교육학회.
- 이도영(2000). 국어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제11집. 국어교육학회.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0). 국어교육학. 서울 : 소명출판.
- 이성영(2003). 실용 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9회 학술 대회 자료집.
- 이용주(1995). 국어 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박영목 외(2004). 국어과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 모형과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1997).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국어과 학습 평가 방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제 외(2002). 초등 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종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유영희·문영진·조용기·이재기·민병곤(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이재기·문영진·조용기·김정우·민병곤·유영희·정현선(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기(2006). 국어과 국민 공통 교육과정 개정안,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이재기·이인제·정구향·송현정·문영진·조용기·김정우·신명선·노은희·민병곤·정현선·김명순(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이재기·민병곤·정민주(2003).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Ⅱ)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외(2004). 2003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 과정 실행 연구. 서울 : 박이정.

- 조용기·성경희·김평국·신진아(2004). 제7차 교육 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Ⅱ) :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천경록(2001). 국어과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서울 : 교육과학사.
- 천경록(2005). 국어과 교사의 읽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117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 매체언어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 최미숙 외(1999). 고등학교 국어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논술형 및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미숙(2006).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121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3). 국어 교육학의 지향. 서울 : 삼지원.
-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2002). 제7차 교육 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공동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 허경철(2003). 국가 수준 교육 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황규호(2003). 교과교육 과정 구성에서의 폭과 깊이 문제, 교육 과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도 덕

권 기 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 현 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명 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 인 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국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 동 현 (성 균 관 대 학 교)
유 병 열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차 우 규 (한 국 교 원 대 학 교)
조 일 수 (충 북 대 학 교)

-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 II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 유지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 수시 개정이라는 점이다. 부분 수시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 유지 곧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편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덕과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 중 한 교과의 위상을 유지한 채,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11~12학년의 선택과목 체제 내에서 도덕과 교육의 개선과 질 제고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기본적인 편제가 정해진 틀 위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종래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경험하였던 편제 싸움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었다. 도덕과 편제의 변화를 가져왔던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과정 개정의 폭이 컸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보다는 총론 개정 연구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그런 만큼 교과 교육 관계자들도 차분하게 교과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자기 교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몰입했고, 이로 말미암아 연구 에너지가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온전하게 투입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기본 편제의 유지’라는 대원칙이 세워짐으로써 거의 모든 교과들이 편제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각 교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논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이러한 과정은 우리 교육과정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수시 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 어느 교육과정기보다도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에 기반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충실한 기초연구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국가 수준의 CDC(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수년 간 계속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즉,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2년부터 현행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총론과 도덕과를 비롯한 10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해 왔다.

도덕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종 쟁점과 문제점을 명료하게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조난심 외, 2005)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쟁점 분석: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문제
 - 학교급 간/학년 간 계열의 문제
 -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문제 등
-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극복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 현행 도덕과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가치 규범의 수용
 - 도덕교육 관련 학문적 동향을 반영한 개정의 방향 검토 등
-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등

3.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기존의 도덕과 교육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것은 도덕과 교육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합성을 가진 의미 있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거론되었다. 이는 도덕과 교육은 우리의 유구한 가치문화와 교육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교과의 성립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연결되어 있었고, 과거의 지도 내용이 정치 사회화나 이념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이 떨어

진다는 문제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적절하게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도덕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종래의 정치 사회화나 국가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도덕적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인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또한, 도덕과를 통해 길러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기존의 가치 수용적이고 피동적인 도덕적 사회화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방향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었다.

4.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둔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다음으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학교 교실에서 도덕과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완화하여 도덕과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국의 학교에서 표집된 초등교사와 중등 도덕·윤리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정 시안 구성에 반영하였다(조난심 외, 2005). 그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를 개방하여 원하는 교사들은 누구든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초로 마련한 2006년 상반기의 교육과정 현장 검토 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5.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은 소수의 연구진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 관련 집단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곧 도덕과 교육 관련 7개 학회·단체들—전교조 도덕교사모임, 한국교총 도덕교사모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이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여 각 집단의 견해를 밝히고,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이러한 제안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들은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도덕과의 성

격과 목표’, ‘도덕과의 내용과 방법’ 및 ‘도덕과 교과서 개발과 심의의 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수시로 연구진들에게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여론 수렴 과정은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공청회나 현장 검토 및 심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되었다. 이 과정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이 곧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적용시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마땅히 요구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절차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II.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에서의 도덕 교육은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이며, 지금도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도덕과 교육의 역사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부터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에는 수신(修身) 과목으로 지속해 오다가,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하에서 사회생활 과를 설치하여 공민(公民) 분과를 통해서 주로 민주 도의 교육을 하였다. 그 후 도덕 교육이 정식 교과로 채택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1973년이였다.

1980년부터 전국의 국립 사대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고 도덕 교과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 첫 도덕과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교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교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4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동안 교과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론적인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1997.12.30 고시)부터는 국민 공통 10학년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를 ‘도덕’이라는 교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그 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미군정 시대의 교수요목기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도덕과 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교수요목기(1945년~1954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교수요목’에 따라 처음으로 도덕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이 나올 때까지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도덕 교육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6·25전쟁으로 사회 기강이 해이되고, 퇴폐적인 풍조가 일어남에 따라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승전을 위한 반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체계적인 반공 교육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교수요목만으로는 도덕 교육과 반공 교육 내용을 수업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문교부의 장학 방침(1951~1954)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학교 교육 활동에서 도덕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문교부의 장학 방침(1951~1954)】

1951년	• 학생 일치 교육	• 1인1기 교육	• 도의 교육 • 국방 교육
1952년	• 자치인의 양성	• 자유인의 양성	• 평화인의 양성
1953년	• 도의 양양, 생산 진흥	• 생활 쇄신, 국방 강화	• 문교 독립, 교육 자치
1954년	• 반공 사상 확립, 정신 무장	• 과학 기술 진흥, 생산 증강	• 건강 위생 증진, 체위 향상

1954년 4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이 고시되었으며, “사회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중 최저 35시간은 도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충당하여야 한다(제14조).”라는 규정에 따라 주당 1시간씩 도덕 수업이 이루어졌다. 도의 교육이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덕’이 준교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도덕과의 내용은 도의 교육과 함께 ‘반공·방일 교육’을 포함하였다.

【도의 교육과정의 구성】

<도덕 생활 영역>

- 자기실현의 도덕
- 인간관계(가정, 학교 등 신변 사회)의 도덕
- 경제, 직업(생산, 소비 등)의 도덕
- 공민으로서의 도덕
- 반공, 방일 정신
- 학생의 심신 발달 과정과 도덕 생활과의 관계

1955년 10월에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도의 교육 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에서의 도의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도의 정신 양양에도 힘을 기울였다. 다음해에 발표된 ‘도의 교육의 당면 목표’는 관후 고결(寬厚高潔)한 인격 도야, 애국 애족의 사상 고취, 협동심과 책임감의 양성, 근로 역행의 정신 양양이었다. 그리고 1956년 문교부에서 발표한 ‘도의 교육 요향’에 의하면, 도덕 생활의 영역을 자기실현과 인간관계, 경제 및 직업과 공민, 반공·방일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며, 1957년에는 ‘중학 도의’를 학년별로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

1963년 2월 공포된 제2차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0호)은 교과 활동과 반공·도덕 생

활 및 특별 활동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에 ‘반공·도덕 생활’을 새로이 추가한 것은, 도덕 교육을 좀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 실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처음 만들어진 ‘반공·도덕 생활의 교육과정’은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내용’, ‘시간 활용의 태도’, ‘지도상의 유의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도 내용’은 예절, 개인 사회, 국가 생활로 나누어 10여 항목씩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 가운데 국가 생활의 지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반공·도덕 생활의 국가 생활 지도 내용】

- 국가와 국가(國歌)의 존엄성을 깨닫고, 이에 알맞은 태도를 취한다.
- 민족 문화의 전통과 특색을 깨닫고, 이를 유지·발전시킬 결의를 굳게 한다.
- 우리의 미풍양속을 찾아 민족의 정신과 국민성 순화에 기여한다.
- 순국선열의 유덕을 추모하여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
-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국가 질서의 유지와 국가 번영에 기여한다.
- 부당한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 경제 재건에 협력한다.
- 공산주의의 침략성을 깨닫고, 공산주의 배격의 결의를 굳게 한다.
-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깨닫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승공의 이념을 확고히 한다.
- 우리나라가 해야 할 당면 목표를 깨닫고, 목표 달성에 협력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
- 자유세계와 친화하여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

1973년 8월에 공포된 제3차 중학교 교육 과정(문교부령 제325호)은 반공·도덕 교육을 교과 활동에 포함해 그 명칭을 ‘도덕’으로 바꾸었으며, 교육과정도 제1차 때처럼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만 구성되었다. 처음으로 정식 교과가 된 ‘도덕’과 수업은 주당 2시간씩 배정하고, 지도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고교 입시에서도 출제되었다. 제3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2차 교육과정의 1969년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인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도 내용을 영역과 학년별로 나누어 자세히 서술하였다. 따라서 종전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교과서 편찬 시에 내용의 준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는데, 목표는 일반 목표와 학년 목표로 구분하였다. 중학교 도덕 교과목의 일반 목표는 예절 생활, 개인 생활, 사회 생활, 국가 생활, 반공 생활 등 5개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되었고, 중학교 도덕 교과목의 일반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덕 교과목의 일반 목표】

- 예절의 의의를 깨닫고, 일상생활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개성의 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신념과 긍지를 지니고 생활 해 나가는 태도를 기른다.
-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를 깨닫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하여 민주적 도의와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만하고 건전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간직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

1981년 12월 고시된 제4차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은 1984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도덕 교과목은 2년을 더 앞당겨 1982학년부터 1, 2, 3학년 모두에게 우선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덕과의 경우에는 1981년에 교육과정의 개정과 동시에 교과서의 개편 작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1982년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새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도덕과는 13개 교과목의 수석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제4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과 목표, 학년별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라서 교과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체계화하였다.

둘째, 학년별 목표는 ‘생활 경험의 확대’라는 개념에 따라 생활 영역별로 나누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였다.

셋째, 내용 체계는 덕목 중심을 지양하고, 도덕 생활의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주제별로 전개하여 학년 수준에 맞게 배열하였다. 즉, 1학년은 도덕적 의무를, 2학년은 행복과 복지 증진의 생활 원리를, 3학년은 이를 통합하여 인격 형성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생활 규범을 토대로 하여 자율적으로 도덕적 판단력을 형성하고, 고등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자율적 인격 형성과 연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예절 생활 영역을 삭제하고 다른 영역에 흡수시켰으며, 중학교 도덕과의 교과 목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원리를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며, 국

가 발전과 조국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서술하였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는 도덕과의 지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도덕과 수업에서 지나치게 인지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흐르기 쉬운 점을 환기시켰으며, 실천 동기의 강조, 교과 내용의 재구성, 현실적 사례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서술하였다. 처음으로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단순한 지식의 평가보다는 도덕적 사고력과 태도 및 습관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평가의 결과가 학생의 도덕적 생활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 원리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지도 내용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생활 (1) 인간의 상호 의존성 (2) 예절의 근본 정신 (3) 계획적이고 분에 맞는 생활 (4) 반성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생활 (1) 인간의 욕구와 행복 (2) 선행과 봉사 (3) 행복 추구의 방법과 태도 (4) 욕구 충족과 사회 연대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람 있는 생활 (1) 인격 도야 (2) 인간 존중과 관용 (3) 고난과 극복 (4) 직업 생활과 봉사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믿는 사회 (1) 사랑과 공경 (2) 정직과 신의 (3) 준법정신과 질서 (4) 의견 존중과 민주적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사회 (1) 사회생활과 예절 (2) 가정의 생활 윤리 (3) 이웃 간의 도리 (4) 복지 사회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돕는 사회 (1)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도리 (2) 향토와 향토 사랑 (3) 사회적 협동과 공익 (4) 상부상조와 사회 발전
국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스런 우리나라 (1) 나라와 나와의 관계 (2) 우리 민족의 전통 (3) 자조, 근면, 협동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영하는 우리나라 (1) 국가의 당면 과제 (2) 경제 발전과 국민의 노력 (3) 국토 개발과 자연 보호 (4) 국력 배양과 자주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로 뻗는 우리나라 (1) 민족의식과 국민적 유대감 (2)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 (3) 국제 정세와 국제 협력 (4) 국가의 당면 과제와 국민의 협조
반공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현실 (1) 국토 분단의 원인과 교훈 (2) 북한 공산 집단의 정치 현실 (3) 북한의 경제 현실 (4) 북한의 사회·문화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 사회의 현실 (1) 공산 사회의 특성 (2) 공산 국가의 침략 정책 (3) 공산 국가의 침략 사례와 그 교훈 (4) 공산권의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통일의 의지 (1) 통일의 염원과 통일의 의미 (2)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 (3)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 (4) 민주적 평화 통일과 우리의 자세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

1987년 3월에 고시된 제5차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7호)은 198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도 내용의 조정, 통일·안보 교육의 방향 재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었는데,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들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둘째, 통일·안보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여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등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하였다. 셋째, 중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비추어 기초적인 윤리학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깊이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영역의 재조정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통일·안보 생활 영역의 설정과 내용 조정, 토의식 수업의 강조와 객관식 평가의 지양, 영역 구성상의 유의점 신설 등이다. 생활 영역은 도덕적 논리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환경이 개인→가정·이웃→시민→국가→국제 사회 등으로 확대되는 범위에 따라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되도록이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와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회생활 영역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이웃 생활’과 ‘시민 생활’로 세분하였다. 사회적 윤리에도 혈연관계에서 나오는 심정적인 감화나 정적인 유대감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여 종래의 사회생활을 둘로 나눈 것이다. 1학년 ‘가정·이웃 생활’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학년 ‘가정·이웃 생활’ 영역의 지도 내용 】

인간에게 가정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윤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을 지도한다.

- | | |
|-------------------|-------------------------|
| ○ 인간과 가정생활 | ○ 효와 가족 간의 전통 |
| ○ 조상 숭배의 전통 | ○ 경로사상 |
| ○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의 역할 | ○ 가족 중심주의와 공동체 생활 간의 갈등 |

제4차 교육과정의 반공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 교육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반공’이라는 개념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에 거부감과 적대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반공교육은 북한과 공산권을 경계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여, 통일 의지를 함양하거나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은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모든 교과에서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도덕과에서는 그러한 교육의 결과를 통합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명분과는 달리 실제에서 도덕 교과의 위상과 역할 축소를 부추기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학교 도덕 교육의 책임 있는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안보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 생활에 포함시켜 ‘국가·민족 생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 탐구와 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성, 민주적 생활양식과 자본주의 경제 윤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개인 윤리 분야에서 생활 예절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개선·확충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사에 의하여 주입식으로 제공되는 가치나 덕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중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생활 예절을 제시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학교생활’ 영역을 신설하였다. 셋째,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밝히고 도덕과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체계성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특히, 도덕 교과의 체계와 관련지어 범위와 계열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의 교육과정 요소별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과 목표 설정 시, 생활환경의 확대 원리(개인→가정·이웃·학교→사회→국가·민족)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는 학년별 계열성의 고려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체계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교육 목표를 ① 도덕규범과 생활 예절의 파악(1학년), ② 도덕적 문제의 해결 능력 양성(2학년), ③ 삶의 이상과 원리의 체계화 및 도덕 성향(3학년) 등에 주안점을 두어 학년 순으로 서술하였다. 셋째는 지행합일의 지향이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행동 습관이다.

도덕과의 교육 내용은 교육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조직되었는데, 내용 선정의 원칙을 요약하면 ① 내용의 구성 요소인 범위와 계열의 체계성을 중시하고, ② 국민정신 교육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자세나 행동 양식을 치유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1학년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학년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의 지도 내용 】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예절, 친족·이웃 간의 예절, 사제 및 교우 간의 예절 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가정·학교생활의 의의

① 인간과 예절

② 가정·학교생활과 인간적 성숙

③ 현대사회와 가정·학교의 역할

(나) 가족·친족·이웃간의 예절

① 가정 내의 생활 예절

② 친족·이웃간의 생활 예절

③ 효도와 경로

(다) 학교 생활의 예절

① 교사에 대한 기본예절

② 친구간의 예절과 도리

③ 학교 사랑

도덕과의 지도 방법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영향력에 유념하여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지도한다. 둘째, 도덕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도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인지적인 면보다 정의적인 영역의 형성과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각별한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도덕과의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고 다음 수업 계획을 보완하도록 환류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력, 가치와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 정도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면담,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넷째, 객관식 평가 방법 이외에도 관찰법과 면담법, 여러 가지 질문지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서술하였다.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07년)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은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과 2학년에는 주당 2시간, 중학교 3학년에는 주당 1시간을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 존재 위기를 극복하면서 교과로서의 위치는 확보하였으나,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교과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어 수석 교과의 위치를 내어주게 되었고,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이면서 책임 있는 도덕 교육의 지도를 약화시켰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인 ‘도덕’ 과목과 선택 교육과정 과목인 ‘시민윤리’,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체제를 운영하였다. 이것은 도덕과만의 독자적인 체계가 아니라 교육과정 총론의 요구였다.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분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것이다. 둘째, 4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되어 온 ‘생활 영역 확대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각 생활 영역별로 5개의 주요 가치·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생활 예절이나 가치관·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셋째,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을 교육과정 설정 원리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2개의 생활영역이 2년을 주기로 반복 제시하되, 내용을 심화시켰다. 넷째, 교과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시·공간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 윤리에 부합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요소별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목표는 교육의 이념과 도덕과 성격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와 일반적인 목표와 생활환경의 확대에 따른 4개 생활 영역별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가정·이웃·학교를 거쳐서 사회와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 따라 목표를 달성케 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각 생활 영역에서 도덕적 중요성과 필요성의 이해,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및 판단 능력 신장, 도덕적 태도 및 실천 의지의 함양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열성을 살려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 도덕에서는 도덕규범과 생활 예절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중학교 2학년 도덕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강조점을 두었으며, 중학교 3학년 도덕에서는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덕 성향의 형성에 목표를 두었다.

도덕과의 내용은 교육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조직되었다. 첫째, 도덕과의 정체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내용 구성상의 체계성, 특히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을 중시하였다. 특히, 계열적 특성으로는 7~10학년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도덕과 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의 좀더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의 습득에 강조점을 두었다. 둘째,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을 대표하는 4개의 생활 영역별 주요 가치·덕목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 생활에 생명 존중·성실·정직·자주·절제와 같은 덕목 설정이 그것이다. 중학교 도덕과 내용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7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지도 내용 】

구분	7학년	8학년	9학년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의미와 도덕 • 개성 신장과 인격도야 • 인간다운 삶의 자세 •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 도덕 문제와 도덕 판단
가정·이웃·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가정생활 • 친족 간의 예절 • 이웃 간의 예절 • 학교생활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과 진로 탐색 • 가정·친족·이웃생활과 도덕 문제 • 학교생활과 도덕 문제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전통 도덕 •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 민주적 생활 태도 • 생활 속의 경제 윤리 	
국가·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 의지 	

도덕과 지도 방법상에서 강조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교사의 확고한 신념 및 열정의 필요성이다. 둘째, 교사 중심보다는 학생 중심의 탐구식 토의 기법의 적극 활용이다. 셋째, 도덕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 도덕적 모델로서의 교사 역할의 강조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 방법을 구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들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는 교수·학습과 ‘도덕실’ 활용을 중시한다.

도덕과 평가에 대해서 제시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통합적 평가를 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둘째, 도덕과 평가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대한 상세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형성 평가의 기본 원리를 도덕과에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수행평가의 시행을 강조한다.

Ⅲ.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는 정규 교과와 하나로 가르쳐지는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을 구성하자는 데에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곧 도덕과가 교과로서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갖도록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도덕과’답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덕과 교육과정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정치사회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의 문제 등을 도덕과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리 도덕과 교육이 현실적인 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날 우리 삶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는 국가유리나 통일의 문제를 다루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연속선상에서 인접 교과(사회, 가정 등)와 차별성을 갖는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도덕과 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등 범교과적인 영역과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여타 교과들과는 달리, 도덕적 덕목과 규범 및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도덕적 사유와 실천을 연계하는 윤리학적 접근 방법을 방법론적인 축으로 명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도덕과 교육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교과가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사고, 판단, 정서, 실천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설문지 응답 결과(조난심 외, 2005)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합의하는 개정의 방향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도덕과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좀 더 명료하게 갖추어줌으로써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물론 교과로서의 위상을 좀 더 확고하게 해 나가자는 것이다.

나.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쟁점 강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도덕과의 내용을 정련화, 적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덕과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와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세계화와 윤리문제, 생명윤리, 정보윤리, 인권교육, 환경윤리 등을 강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오늘날 세계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 추세에서 발생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차우규 외, 2002)에 따르면,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과 함께 제기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진전은 이제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장(場)을 단지 실제 세계만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세계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 양식의 미정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네티켓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증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반영하고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차우규 외, 2003). 특히,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념, 가치 지향, 실천 성향 등 인권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지구인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의 문제를 윤리·도덕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판단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환경 윤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도덕적 탐구의 강화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도덕적 탐구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도덕적 탐구란 도덕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 능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에서 탐구 부분을 부각시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탐구 능력을 기름으로써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였던 ‘행동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서울대학교 도덕과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7: 4)와는 다른 방향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

구하였던 인성교육의 강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인성교육을 범교과 영역으로서 다양한 교과와 교육 영역을 통해 지도하도록 하거나 도덕과의 특별한 실천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고, 교과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요소나 활동들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교사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곧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덕과에서 도덕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데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2002년도의 조사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앞으로 도덕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로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는 일’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차우규 외, 2002: 69, 78).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였다.

라. 도덕과 교육의 학교급별 특성 부각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3~10학년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면서 학교급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 교육의 체계성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이바지했지만, 학교급별 교육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 중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은 교육목표의 설정 및 내용 체계의 정립을 위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부합되는 도덕과 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목표의 설정과 계열적인 면에서 도덕과 교육의 종적 내용체계 정립은 함께 엮혀 있다.

하지만, 제7차 도덕과 목표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 체제에 따라 10학년까지의 도덕과 교육 후 기대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교과의 목표를 진술하려 하였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목표나 학년별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유병열, 1998). 물론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대신에 학년별, 생활영역별 지도 내용 부분에서 성취 수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러한 성취 수준 아래 지도해야 할 내용을 또한,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 하에서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상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게 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그 이전의 도덕과 목표 진술보다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교과의 체계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도덕과의 교과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그리고 학년별 목표 사이에 단계별 특성화와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도 심각한 난점이 될 수 있다(김재복 외, 1996).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사들의 의견 조사(조난심 외, 2005)에서도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면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지향이 다를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특성을 부각시킬 것이 요구된다. 곧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도덕적 규범의 실천과 습관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고교 교사 중에는 10학년의 목표를 중학교와는 차별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급별 특성의 부각은 단지 목표 설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구성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에서도 요구되었다. 곧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덕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에, 중등학교에서는 도덕적 주제나 쟁점을 다루기를 원하고, 학생들에게 도덕적 탐구나 윤리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 국민공통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가. 성격

(1) 한국적인 맥락에 근거한 보편윤리의 추구

학생들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덕 문제를 논하면서 이러한 상황적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도덕적 문제들이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연관시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도덕과 교육에서는 또한 도덕의 본질과 세계화된 오늘날의 우리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편윤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교사들 모두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대다수(응답자의 61.6%)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윤리’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조난심 외, 2005).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한국적인 맥락에 근거하되, 궁극적으로는 보편윤리를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 도덕과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의 도덕적 덕목과 규범 재천명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도덕과의 본질적인 영역인 도덕적 덕목과 규범이 다시금 내용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은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강조되는 있는 인성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대비 교육과 국가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교과이다.”라는 도덕과의 ‘핵심 영역’ 규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인성교육, 통일교육, 국가안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 하에 있는 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의 본질적이고 중핵적인 영역은 말 그대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재천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3)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 활용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접근 방법의 문제이다. 독립적인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도덕과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서 윤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박병기, 2005). 이러한 당연한 사실의 재천명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함으로써 인접 교과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된 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공동체에서 논의된 사항이면서, 또한 현장 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기도 하다. 초·중·고교 현장교사들의 다수(응답자의 69.9%)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사항으로 ‘윤리학적 접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조난심 외, 2005).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하되, 일반 철학, 교육학,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 등 관련 학문의 다양한 접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목표

(1)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 강조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방향으로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표방하면서 도덕성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덕한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과 일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 설정이 도덕과 교육과 범교과적인 인성교육과의 구분을 흐려놓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의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는 인지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특히, 중등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앞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도덕과 교육을 통해 도덕적 관

단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진술되었다.

(2) 학교급별 목표의 위계성 부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학교급별로 목표를 진술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덕목과 규범의 내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실천 성향의 함양은 다음 단계의 자율적 도덕성의 함양에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 목표를 차별화하여 진술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선했던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성향이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다. 내용

(1) 가치 관계 확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 영역 설정

도덕과 교육과정 논의에서 내용 영역의 설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였다(차우규 외, 2002, 조난심, 2004).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은 도덕과가 정규 교과로 자리 잡은 제3차 교육과정 이래로 ‘생활 영역’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곧 개인 생활, 사회 생활 등 도덕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점차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틀을 중심으로 대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해당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같은 생활 영역에 의한 도덕과 교육 내용의 조직 체계는 지속적으로 도덕적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전을 받아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도덕과 교육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러한 틀이 생겨나고 유지된 데에는 유교적인 관점이 작용해왔다고 본다.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한 구절에 압축적으로 표현된 도덕적 도야(陶冶)의 전개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자기 몸을 닦는다는 수신(修身)이 기본이 되어 국가 윤리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전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활영역 확대의 원리는 학생의 생활 반경의 확대라는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 구성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유교 윤리에서의 인격 도야의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주제 중심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 영역 확대법은 실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가공 논리에서 나온 것이며 생활 영역 확대에 따라 학습하는 아동들은 상위 및 하위 수준의 다른 공동체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

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생활 영역 확대 방식의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대안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내용의 중복 문제를 들 수 있다. 매 학년 생활 영역별 내용 구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용이 중복해서 제시되고,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도덕과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 사회에서 쟁점으로 등장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다루기에 적절한 틀이 못된다. 따라서 생활 영역별 내용 조직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도덕과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중요한 도덕적인 주제들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 영역별 접근을 하게 되면 도덕적 쟁점에 대해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생활 영역별 접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에서는 대안적인 내용 조직 방식을 논의하였다. 곧 기존의 생활공간 확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내용의 틀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내용 영역 설정의 틀: 도덕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관계의 확장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고양되는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 내용 영역의 명칭과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도덕과 내용 영역의 명칭과 구성 방향]

영역의 명칭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
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도덕적 가치의 주체적 기반으로서 도덕적 자아가 확립되는 영역
II.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간인격적(間人格的, inter-personal)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III.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사회적 정의의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IV.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도덕적 자아와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가치의 고양ی 추구되는 영역

- 영역Ⅰ은 도덕과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율적 인격을 가진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곧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도덕의 개념, 삶의 목적, 도덕적 자율성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영역Ⅱ는 도덕적 주체와 가깝고 먼 타인, ‘우리’라는 가까운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제반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문제들과 거기서 실현되는 도덕적 가치를 다루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두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영역Ⅲ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도덕적 가치로서 역사적,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맥락을 도덕적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국가·민족·지구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영역Ⅱ와 중첩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남북 분단과 통일의 문제, 세계화와 국가, 민족의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와 도덕과 교육의 변천 및 역사적 편린을 고려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의 문제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시공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사회의 지구공동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도덕과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 영역Ⅳ는 도덕적 주체와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된 영역이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영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인간관계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자연·종교 등과 같은 가치 차원의 주제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덕과 교육 내용의 심화와 주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영역 간의 연계와 중첩

이렇게 설정된 영역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영역의 구분은 느슨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역 간의 구분은 필요하면 넘나들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영역 간 내용의 비중이나 분량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도덕과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내용 요소 선정의 중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많이 논의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도덕과의 내용을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덕목 중심’의 구성, 중등학교는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급별/학년별 내용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적정화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내용 요소의 수를 적정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모두 10개의 지도요소를 설정하였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에서는 지도 요소를 8개씩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3~4학년의 도덕과 수업에 좀 더 도덕성의 내면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수업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3)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성취기준형(achievement standards) 진술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사실,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은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진술의 형태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고, 특히, 도덕적 탐구의 방식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요소별로 성취기준형으로 진술하여 교육과정 내용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 교과인 도덕과의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자는 물론이고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도덕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곧 내용의 구체성과 명료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는 도덕과 교과서가 검정화됨으로써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과의 내용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나 지식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도덕적 규범이나 지식이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 사고, 상상력, 정서, 의사소통, 실천능력 등으로 내면화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능력(ability)이나 기술(skills)들도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

용 진술이 단순히 내용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학습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학생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learning outcome)인지를 명료화하는 작업임을 뜻한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내용을 상세화하거나 많은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도덕과의 성취기준형 내용은 최소기준의 성격을 갖는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제들은 각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최소 필수요소(minimum essentials)이다. 이는 학교나 교사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초과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필수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라. 교수·학습 방법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큰 변화 없이 제시하였다. 곧 도덕과 수업에서는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학년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사자료 등을 알맞게 활용하되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도덕적 모범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덕교육적 활동과 도덕과 수업을 관련시켜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도덕과 수업을 위해 학교에 예절실이나 교과 교실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 평가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구체화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도덕과 평가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고자 도덕과의 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성취기준형으로 진술된 도덕과의 교육 내용 자체가 평가를 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덕과 평가가 단지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자체에 대한 평가도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여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의 도덕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도덕과 수업 장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IV.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1. 성격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도덕과는 지금까지 다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학문 분야와 전공에 따라 도덕과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 가치관이나 교육관 등에 따라서도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도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학자 및 교사들 사이에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그 성격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도덕과의 성격에 대해 도덕과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학자 및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그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수렴하여 구성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 도덕과의 필요성과 과제, 도덕과의 내용적 특성과 방법적 특성, 도덕과의 범위 및 계열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영위하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도덕규범과 예절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수많은 도덕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할 때 차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의 교통 신호를 준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식사 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덕적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행동에는 도덕적 선택과 판단이 작용한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존하는 사회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두 번째는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의존하며 삶을 영위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도덕규범과 예절이다. 도덕규범과 예절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상호의존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가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통해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에 순응하여 사는 삶이 반드시 도덕적인 삶이 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의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 문제나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해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여,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기존의 도덕규범과 예절을 습득하는 것과 아울러,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과 아울러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도덕사회화의 관점이다. 즉 도덕 교육은 사회의 기존하는 도덕규범이나 예절, 그 사회의 이상(理想)에 일치하도록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도덕발달론의 관점이다. 즉 도덕 교육은 개인이 가진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각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과는 도덕 교육의 두 방향 모두를 지향하여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려 한다. 즉 도덕과는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개인과 사회의 도덕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한편, 도덕과의 목적은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초등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덕목의 내면화가 강조될 수 있으며, 중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사고력의 함양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덕과는 도덕 사회화의 관점과 아울러 도덕 발달론의 관점 양자 모두를 그 교육 방향으로 삼는다. 즉 초·중학교 도덕과는 도덕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과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및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도덕과의 필요성과 중심 과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발전과 급속한 사회 변화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이념갈등·가치갈등·세대갈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들의 가치관 혼란 및 사회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도덕과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의 가치관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심 과제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화를 진행하여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사회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화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모시키며,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비교적 풍요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물질적 발전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발전이 지체되어, 물질만능주의,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현상 등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다원화, 정보화되는 사회 추세에 상응하는 가치관을 발전시키지 못하여, 이념 갈등, 가치 갈등, 세대 갈등, 민족 갈등 등이 사회의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 속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과는 개인의 가치관 통합과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에 기여해야 한다. 우선 개인의 가치관 통합과 관련하여 도덕과는 학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 등을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교의 여러 교과 학습을 통해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를 습득한다. 또한 학생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다양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를 접하게 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상이한 규범과 지식, 가치·태도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과 일관되지 못한 행위 양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관을 개인의 내면에서 통합하여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고 일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특정한 가치관을 확일적으로 전수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학생 자신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학생 자신이 형성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주관주의나 상대주의, 그리고 유아론(唯我論)적인 입장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그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통합된 가치관을 형성하여 일관되게 바람

직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철학적, 종교적, 이념적, 도덕적 등의 측면에서 다원적이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극심한 갈등과 분열은 때에 따라서 사회를 점점 원자화, 파편화하여 결국 해체의 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덕과는 사회의 분열과 해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도덕과는 우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이나 유대감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는 이미 존재하는 합의된 가치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를 공고히 하여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의 도덕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포괄적인 종교, 철학 및 정치적 신념을 지니고 있진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가운데에서도 통합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도덕과의 내용적 특성

이를 위해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 즉,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관련된 도덕 문제,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등을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다.

도덕과는 학생들의 도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다룬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생활영역 확대에 따른 통합’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의 생활 영역에서 추출하였다. 그러나 생활영역 확대에 따른 통합의 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실제 학생들의 도덕적 생활과의 연결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인간의 도덕적 삶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되어 나아가는 도덕적 가치 공간을 토대로 다양한 도덕 문제를 다루었다. 즉 도덕적 가치 공간을 나와 도덕적 주체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분류하여 이 관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도덕적 주체로서 나와 관련된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자신의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 형성, 자신의 삶에서 일과 배움의 의미, 자아 정체성과 삶의 목적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기 자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닌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절과 도덕, 청소년기의 주요 도덕 문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정중한 인간, 공정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세 번째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문제에서는 주로 올바른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탐구하여 국가·민족·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서는 주로 환경·문화·종교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등을 탐구하여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는 인간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한편, 도덕과의 내용은 사실과 지식보다는 규범과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교과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과 배움에 관해서는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에서는 일과 배움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권이나 국가·민족에 관해서는 사회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에서는 인권이나 국가·민족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보다는 그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삶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환경에 관해서는 사회과나 과학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혹은 사회 정책적 지식보다는 환경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도덕과는 규범적 및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 도덕과의 방법적 특성

이와 같은 도덕 문제는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도덕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도덕과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다양한 학교 활동들과 연계 지도한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 판단과 선택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늘 발생한다. 또한, 도덕 문제는 정치·경제적 활동, 문화·예술적 활동, 종교적 활동, 가정 활동, 학교 및 직장 활동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핵심으로 다루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윤리학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도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사회과학과 윤리학은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규범과 가치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속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 등 사실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반면에, 윤리학에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과 가치가 정말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갖는 것인지 혹은 특정 집단 혹은 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도덕규범과 가치는 무엇인지, 즉 당위의 문제를 탐구한다. 달리 말하여 사회과학에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실과 그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하는 반면에,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사실들에 대한 가치 판단과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정당화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 성과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도덕 문제는 통용되는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며, 기존의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즉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윤리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는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과 탐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도덕과 교육이 윤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과 내용 구성과 조직에서는 윤리학, 철학, 사회과학 등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지만, 도덕과 교육의 실천에서는 교육학, 심리학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에 초점을 둔다. 도덕과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든 혹은 윤리학적 탐구든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도덕적 추론 능력이나 도덕적 근거 제시 능력 혹은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은 도덕적 실천과 결부될 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도덕과 교육은 도덕과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인성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활동이나 가정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 방법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교

에서는 기본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지향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의 연계지도를 통해 배운 규범들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덕과의 계열

3~10학년의 ‘도덕’은 초등학교의 통합 교과인 1~2학년의 ‘바른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지도하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11~12학년의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즉, 초등학교 3~6학년 ‘도덕’에서는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하고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과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 그리고 중등학교 7~10학년 ‘도덕’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좀 더 심화하여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덕 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육 내용의 계열(sequence)을 학교급별 차원, 교육과정 성격별(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도덕’과와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인 ‘바른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10학년 도덕과 내용은 ‘바른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도덕’에서는 1~2학년의 ‘바른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하고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과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에 강조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내면화, 도덕규범의 이해 및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 도덕적 실천 능력의 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도덕은 초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도덕 및 도덕 선택과목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도덕 사회화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본생활습관의 내면화, 도덕규범의 이해,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실천 능력의 육성에 강조점을 둔다. 한편, 고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도덕 발달론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자율적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중학교 도덕과는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도덕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 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육성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자율적 도덕성 형성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2. 목 표

도덕과의 목표는 학교 도덕과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지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밝혀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목표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나타내 주는 한편, 이 교과와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까지 방향을 지워주고 준거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였다. 먼저,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는 한편, 학습자 중심의 행동 목표이면서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 초등은 물론 중등 단계에서부터는 도덕적 탐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추구되지만 특히 중등 이상의 단계에서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과 도덕 판단력의 증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과 경험 범위를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도덕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의 목표를 차별화, 특성화시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열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설정된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목표는 ‘교과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가. 교과 목표

교과 목표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과목으로서 초등 3학년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도덕’ 교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총괄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이러한 교과 목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 (1)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2)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자신과 국가·민족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4) 자신과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우선, 위 교과 목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판단력과 바른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심성을 기르는 한편, 이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교과 목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도덕성 또는 인격의 세 측면과 길러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는 도덕성 내지 인격이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각 측면에 따라 길러져야 할 도덕교육적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교과 목표에서 가르치고 길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교과 목표를 보면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로서는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함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정의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천 동기의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영역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내용 부분 등을 보면,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등 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실현하고자 의욕하는 도덕적 감정·정서와 의지 및 태도 그리고 그 외 공감 등 여러 가지 정의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천 능력의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의 실천 능력이라 함은 도덕과 교육을 통해 배워 알게 된 도덕적 지식 및 가치 규범과 관련한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덕적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일은 물론,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실천을 통해 올바른 도덕적 습관을 형성해 가는 일 또한 그 속에 담고 있다.

끝으로, 위 교과 목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즉 종국적 목표로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율적이라 함은 타율적 도덕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옳고 바른 일을 합리적인 판단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적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정·행 측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고르고 조화롭게 갖추면서 성숙시켜 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격이라 함은 이러한 도덕과 학습의 과정에서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적 자질과 품성, 덕성 등을 형성하여 지니게 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한다. 도덕과 교육은 바로 이러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유덕한 인격을 기르고자 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교과 목표 아래에 영역별 목표를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영역별 목표란 도덕과 교육과정에 설정한 4대 영역, 즉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 따라 성취하고 도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영역별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위 목표를 보면, 우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에서는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바로 세우는 일과 관련한 모종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삶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고 있다. 즉, 자신과 가정·학교·사회 공동체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더욱 확대된 국가 및 세계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도덕적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즉, 자신이 국가·민족 공동체 및 세계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족 통일 및 세계 인류 공동체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인격적 타자와의 관계 범위 너머에 있는 존재 즉 자연이나 초월적 존재와 관련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자연이나 숭고하고 성스러운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중학교 목표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목표의 범위는 초등학교 목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고등학교의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곧 중학교 도덕과의 목표에서는 중학생 단계의 인지 발달과 도덕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 가치 판단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의지의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3. 내 용

가. 내용 체계

2007년 개정 중학교 도덕과 내용의 선정·조직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첫째, 중학교 도덕과의 내용은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덕목의 내면화를 더욱 심화·확대하여 구성하되, 중학생 단계의 인지 발달과 도덕 발달의 수준을 고려하여 좀더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도덕과 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된 도덕적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중학교 도덕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주제(moral issues)’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점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은 덕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르다. 덕목을 내면화하는 것은 도덕교육의 기본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월적 존재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에서는 학년간의 위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년별 내용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곧 각 학년별, 내용 영역별로 다른 주제들을 설정함으로써 학년 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도덕과 내용 체계표]

영역 \ 내용	7학년	8학년	9학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p>〈인간과 도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의 의미 ○ 도덕적 탐구 ○ 도덕적 실천 	<p>〈일과 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놀이 ○ 공부와 진로 ○ 계획과 성취 	<p>〈삶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정체성 ○ 행복한 삶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p>〈예절과 도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과 도덕 ○ 친구와 우정의 의미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 사이버 예절 	<p>〈청소년과 도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이성교제와 성 도덕 	<p>〈인간 존엄성과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p>〈나의 삶과 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 	<p>〈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 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p>〈세계평화와 인류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p>〈환경과 도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인간의 삶 ○ 환경친화적 삶의 방식 	<p>〈문화와 도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아름다움 ○ 예술과 도덕 ○ 과학과 도덕 	<p>〈삶과 종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유한성 ○ 종교와 도덕

○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의 내용 체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문제를 다루는 이 영역에서는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학년의 <인간과 도덕> 영역에서는 도덕적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과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수·학습한다. 이 내용은 장차 중학교 도덕과를 통해서 학습하게 될 도덕과 교육에 대한 안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학년의 <일과 배움>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일의 윤리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도, 놀이, 공부, 진로, 계획, 성취의 모습과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수·학습한다. 3학년의 <삶의 목적>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체적,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교수·학습한다.

그리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영역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 영역과 관련되는 단순한 사실적 지식 또는 지식의 나열을 지양하고, 우리의 도덕적 생활과 비교적 밀접히 연관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즉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

덕의 의미, 탐구, 실천의 모습, 일과 배움, 삶의 목적은 어떠해야 하며, 그러한 도덕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II영역은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과 거기서 실현되는 도덕적 가치를 다룬다. ‘가족 관계’나 ‘친구관계’ 및 ‘이성 교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사회 전반이나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확대하여 사고할 수 있는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및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등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 구성은 제7차 교육과정의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영역의 내용 구성을 7학년에서는 주로 가정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고, 8학년에서는 학교생활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며, 9학년에서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는 학생들이 먼저 가까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학습하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학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국가·민족·지구공동체 영역은 이 영역 내에서 학생들의 인식 공간이 확대되는 방식에 따라 학년별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2학년에서는 민족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그리고 3학년에서는 지구공동체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1학년의 <나의 삶과 국가>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국가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에서 왜 중요한지, 그러한 도덕적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수·학습한다. 2학년의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영역에서는 한국인의 도덕적 삶을 위해 민족공동체의 회복이 왜 요구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북한 주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등을 교수·학습한다. 3학년의 <세계 평화와 인류애> 영역에서는 인류의 도덕적 이상을 향한 바람직한 지구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에 노력해야 함을 교수·학습한다.

한편, 국가·민족·지구공동체 영역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 영역과 관련되는 단순한 사실적 지식 또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나열을 지양하고, 우리의 도덕적 생활과 비교적 밀접히 연관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국가·민족·지구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 내용 체계

이 영역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자연과 우주, 초월자 혹은 신, 미적 가치, 학문적 진리 등을 지향하는 인간의 심성과 활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과 인간을 구원하는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종교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인간의 현실을 초극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 삶의 터전이자 세계의 존재적 기반인 우주적 자연 또한 인간의 초월적 지향 작용에서 그 숭고한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초월적 세계, 초월적 지향 작용은 얼핏 보아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지평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보편적 척도를 탐색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탐구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의 학년별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학년에서는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생활환경의 보호나 개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우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숭고한 이상의 차원에서 다룬다. 8학년에서는 예술 및 과학과 도덕의 문제를 다룬다. 미적 가치나 학문적 가치 그 자체는 도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향적 태도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미적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심적 혹은 품성적 요인과 결부되어야 할지, 이런 문제를 광범하고도 깊이 있게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학년에서는 현실 초월적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대하는 종교적 활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물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특정 종교의 신앙 내용을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반성이 어떤 종교적 태도로 이어지는지, 그런 종교적 태도가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성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나. 학년별 내용

(1) 7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인간과 도덕

○ 영역 설정의 의의

이 영역에서는 도덕과 도덕적 주체인 개인, 양자의 관계를 본질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한다. 도덕의 의미는 다양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내면적 원리 혹은 인간이 스스로 도리에 맞는 것을 지키고 덕을 쌓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도덕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도덕적 의

미는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된다. 먼저 개인적 관점에서 본 도덕의 의미는 자율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은 자율성을 전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 체계이다. 도덕은 자율성을 전제할 때에 그 의미가 온전하게 구현된다. 반면에 자율성이 없을 때 인간은 타율적이거나 강제적이 되어서 도덕적일 수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본 도덕의 의미는 주로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두고 도덕의 문제를 이해한다.

도덕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 도덕의 의미, 도덕적 탐구, 도덕적 실천을 현대 사회의 입장과 도덕의 본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㉞ 도덕의 의미

도덕은 자율성을 전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 체계임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삶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인간의 삶 속에서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욕구와 당위의 구별
- ② 예절과 도덕의 필요성
- ③ 양심과 부끄러움
- ④ 생활 속의 도덕의 역할

○ 주제 설정의 취지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될 때 인간은 도덕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참된 의미의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인간의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특정한 행위의 모방에 불과하다.

특히, 이 주제는 장차 중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도덕과 교육의 전반적인 안내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 주제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과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도덕의 의미는 다양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내면적 원리 혹은 인간이 스스로 도리에 맞는 것을 지키고 덕을 쌓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도덕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도덕은 자율성을 전제로 각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 체계이다. 도덕교육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삶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도덕적 자율성이 없을 때 인간은 도덕적일 수 없다. 이것이 도덕의 개인적 의미이다. 한편, 개인이 도

덕적 실천을 개인적 도덕준칙(moral maxim)에만 근거해서 행할 때 그것은 참된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가 합치하거나 조화를 이룰 때에만 진정한 도덕의 의미가 실현된다. 따라서 도덕의 사회적 의미와 도덕의 개인적 의미를 학습내용으로 다룬다. 나아가 도덕의 개인적·사회적 의미가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 주는 영향을 다룬다. 이에 따라 개인적 도덕준칙이 사회적 맥락과 요구에 맞는 바람직한 도덕이 되도록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며, 도덕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필요한 방법 등을 학습한다.

인간은 도덕을 통하여 욕구와 당위를 구별하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은 한정되어 있다. 물질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무한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다른 개인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몫을 잃게 된다. 이 점에서 인간은 개인적으로 욕구를 무한으로 추구할 수 없다. 만약 모든 개인이 이를 어기고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강제성을 발휘하여 정당하지 못한 욕구 추구를 제재한다. 반면에 도덕은 특히 당위적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도덕적 언명은 당위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도덕은 예절을 갖춘 행동을 통하여 가장 잘 구현된다. 예절은 도덕적 생활을 위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예절의 형식과 정신(내용)이 일치할 때 예절의 실천은 곧 도덕적 실천이 된다. 반면에 예절의 형식과 정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절의 실천은 도덕적 실천이 되지 못한다.

양심과 부끄러움은 도덕에 필요한 요소이다. 일찍이 맹자가 말했듯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으면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출발점이자 기초는 자신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良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옳지 못하거나 선하지 못한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와 다를 것이 없다.

도덕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욕구충족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적절히 인간답게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은 언제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실천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사고, 판단, 행동을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지도할 때 도덕의 의미가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덕의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양자의 조화, 그 실천 방법, 욕구와

당위의 구별, 예절과 도덕의 필요성, 양심과 부끄러움, 생활 속의 도덕의 역할 등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예화, 설명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도덕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는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학생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덕의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양자를 조화시키는 도덕적 행위 등을 모둠별로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한다.

(4) 도덕적 탐구

도덕적 탐구 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을 형성하고, 자신의 도덕적 관점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장이나 토론 등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실 판단과 가치·도덕 판단을 구별하여 무엇이 도덕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분석한다.

- ①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 ②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상상력
- ③ 도덕 공부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토론 방법

○ 주제 설정의 취지

이 주제는 학생들이 도덕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도덕적 탐구의 의의와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차 직면하게 될 도덕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 주제를 통해 특히, 도덕적 탐구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의 의미와 그것들 간의 구분 및 도덕적 토론의 중요성과 방법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도록 한다. 곧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학습 방법에 관해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중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도덕과에 체계적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설정된 주제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하기 전에 도덕적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사고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 도덕적 판단은 사실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사실 판단과 더불어 출발한다. 사실 판단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다. 이 경우 사실 판단은 가치와는 별도로 중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배고픔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판단이지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훔칠 것인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 거지로서 동냥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는 방법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소형차보다 대형차가 좋다고 할 때, 차의 기능,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하고 기능적 가치 판단을 한다. 인간은 주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특정한 사람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실판단과 다르다. 가치 판단은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치 판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이 주관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에 비해서 도덕 판단이 주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도덕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하면, 특정 행위를 판단할 때 자신의 감정적 성향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덕 판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주체의 주관적 성향 혹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도덕은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의 문제를 순전한 감정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논리실증주의자들(logical positivists)과 같은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에 도덕 판단은 이성적 판단임과 동시에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점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의 이데아’(the idea of Good)는 실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은 ‘선의 이데아’를 알아야 가능해진다. 칸트(I. Kant)에 따르면 도덕은 실천 이성에서 비롯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명법(imperatives)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종교에서는 도덕 판단이 신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계율이나 도덕 법칙에 의해서 판단되고 실천된다. 종교적 계율에 의거한 판단은 단순히 주관적 판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리학(性理學)에서 도덕은 인간 본성이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道理)로서 추구되는 것이다.

도덕적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상상력이다. 먼저,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이란 도덕 문제에 관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비추어 따져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추론의 과정은 전형적으로 윤리학적인 사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타인의 곤경이나 어려움에 공감하는 능력, 타인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려는 동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행위자로 하여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덕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창의적인 도덕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해준다. 반면에 도덕적 상상력이 부족하면 도덕적 사고나 판단 및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비교적 최근에 도덕교육에서 인지적 접근이 비판을 받으면서 강조되는 요소로서 학생들에게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각자 도덕적 상상력을 기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상상력은 다양한 체험이나 소설, 영화, 음성 자료 등 간접 체험 등이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도덕적 토론은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때 문제의 본질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의 하나이다. 도덕적 탐구 주제나 문제가 정해지면 개인 혹은 그룹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기회를 얻는다. 이때 토론을 통하여 부정적 비판보다는 적극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리고 도덕적 탐구 참여자는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안을 자유로운 연상과 확산적 사고로 발전시킨다. 특정한 도덕적 가치에 기울지 않으면서 적절한 해결 가능성을 찾고, 미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찾아간다. 도덕적 주제나 문제가 다른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고 활용 방안도 함께 찾아간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도덕적 탐구’라는 이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과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일학년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적 발달 수준에 맞게 구체적 예화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통하여 개념적 이해를 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도덕과 학습에서 도덕적 탐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4) 도덕적 실천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도덕 문제와 관련하여 사고와 행동이 다른 경우를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 ①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
- ② 도덕적 실천 동기
- ③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

○ 주제 설정의 취지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적 사고가 없는 행위는 맹목적이고 도덕적 행위가 없는 사고는 무의미하다. 인간은 도덕적 사고의 결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알고 판단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나 왕양명과 같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중요성을 일찍이 주장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삶과 실천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의지의 약함’을 지적하였다.

이 주제에서는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에 의한 실천 성향을 기르기 위해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 도덕적 실천을 이끄는 동기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적 실천인가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참다운 도덕적 실천의 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학생들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도덕적 사고와 함께 도덕적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한다.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도덕 법칙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

기 위한 동기가 없다면 도덕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동기는 정의감, 친절, 사랑, 선의지 등으로 수없이 많을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를 가지고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행동할 때에만 진정한 도덕적 동기를 갖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 실천을 한다. 도덕적 실천 동기는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 이념에 따라 행동한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좋다고 믿는다. 행동에 앞서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신, 정치적 이념, 신념체계, 관습에 대한 신념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신념이 옳거나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념은 주관적이어서 옳거나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할 때, 인간은 자신의 신념이 정당한지, 합리적인지, 옳은지, 좋은지를 면밀하게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한 후에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신념에 따른 행동은 자칫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도덕적 실천은 수많은 성인(聖人)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인간 의지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실천의 의지를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도록 한다. 실천의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신념에 따른 행동이 의지의 작용이지만 신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실천 동기의 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 예절과 도덕

○ 영역 설정의 의의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은 예절이다. 나 혼자만의 세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나를 포함한 최소 공동체는 ‘가족’이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바람직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예절과 덕목이 있다.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인접한 관계는 ‘이웃’이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구체적인 모습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소로서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 존중과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로서 친구 관계에 요구되

는 우정의 의미를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㉞ 가정생활과 도덕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우애 있는 형제자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나의 삶에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 ① 오늘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
- ②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
- ③ 바람직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
- ④ 노인을 공경하는 방법

○ 주제 설정의 취지

가정생활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 즉, 형제자매의 관계,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긍정적인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영역이다. 따라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 노인 공경의 자세,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가정 화목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 등을 파악하게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 양상에 맞추어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고 또한, 각 구성원 간의 해결 노력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속에서의 가족 공동체 윤리, 형제 간의 우애, 노인에 대한 경장 사상, 자녀로서의 효도, 부모로서의 자애 등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 또는 덕목을 서술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가정의 핵심은 가정이 가진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위협으로부터의 일차적 보호, 경제적 원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는 부모에 적합한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가치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만,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본질적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편견 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공경하는 방법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변화된 노인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을 보호받는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 건강한 삶과 새로운 인생의 주체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가르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가정 해체적인 모습들이 먼저 두드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 모습을 오늘의 실태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이 시설 가정, 이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셋째,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묘사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친구와 우정의 의미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된 친구와의 사귀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키워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를 발표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아가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학교생활과 친구간의 갈등
- ②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 ③ 바람직한 친구 관계

○ 주제 설정의 취지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개인의 도덕 발달에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구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친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그대로 투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출발로서 친구 관계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깨닫게 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평생의 동반자로서 친구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중학생 기간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같은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옛말처럼 좋은 친구 사귀이 학교생활에서 교과 학습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관계만이 아니며, 공부와 체력 증진, 취미 생활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속되며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친구관계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 만

들기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본 영역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친구 간의 관계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도 있고 때로는 비뚤어진 관계도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 특히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다룰 때는 피해자의 경우에만 한 번 겪은 경험이 그 사람의 생활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충격일 수 있음을 사례나 예화를 통하여 설명한다.

(예)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실천적 방법을 익힌다. 이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다양한 이웃들과 나의 관계
-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 ③ 봉사 활동의 의미와 방법
- ④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한, 인간은 인간 속에서만 인간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웃 관계이다. 예로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다. 그만큼 이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본 주제의 취지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의 물리적 공간상의 이웃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의 이웃도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는 이웃도 있다. 그러므로 이웃 관계가 공간적으로 다양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합리적인 판단능력만이 아니라 연민, 동정심,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 도덕적 책임 등의 배려 윤리적 덕목들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미덕이지만, 우리 사회가 근대화, 서구화되면서 무시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배려윤리적 덕목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의 방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본 주제를 가르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애완견 기르기에 따르는 타인 배려의 문제나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갈등 사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단계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배려 방법도 수업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이 그 예일 것이다.

㉮ 사이버 예절

익명성, 자율성,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도 타인존중과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예절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요구되는 도덕과 예절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도덕적 책임
- ② 사생활 존중과 보호
- ③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일

○ 주제 설정의 취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이버 공간상에서 체계화된 예절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생활 침해,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상에서의 언어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정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때에는 긍정적인 부분(의사소통의 원활, 참여의 제고 등)과 부정적인 부분을 도입단계에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의 폐해, 보고서 작성 등을 하면서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사이버 절도), 사이버상의 명예 훼손, 확인되지 않는 뜬소문의 유포와 같은 사이버상의 행위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학생 자신이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사례 발표나 토론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본 영역을 교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균형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화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되어 사생활 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나의 삶과 국가

○ 영역 설정의 의의

이 영역은 근대 민족 국가의 등장 이후 인간의 거의 모든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오늘날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현대 국가는 개인의 도덕적 삶을 조장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고,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애국심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려면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검토한다.

㉞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모듬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탐색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공직자의 역할 등과 연관하여 제시한다.

- ① 국가의 필요성
- ②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복지 등 추구)
- ③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생과 더불어 국가의 구성원이 되며, 그 이후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행위의 제약을 받으며 삶을 영위하게 된다. 즉 국가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덕적이지 않은 국가 권력이 운용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인의 삶에 국가 즉 정치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국가의 필요성,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주요 교수·학습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현대인의 삶에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선천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국가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인간은 국가가 없는 상태(자연 상태)의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소극적인 국가관에 따르면, 바람직한 국가는 외적 침입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국가관에 따르면, 바람직한 국가는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복지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은 공직자의 활동을 통해 체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자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맡은 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지도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하려면, 국가와 관련된 추상적·이론적 지식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실체를 구체적인 일상 생활과 연관시켜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나 공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의 필요성이나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다.

(4) 국가발전과 나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나의 도덕적 삶에서 갖는 의미와 애국심의 도덕적 의미를 성찰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생활 경험을 토대로 찾아본다.

- ①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개인의 삶과의 관계
- ②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 등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 ③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
-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추구된 경우와 공동체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된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
- 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식의 조화

○ 주제 설정의 취지

우리의 도덕적 삶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국가는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맹목적이지 않은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점점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저발전된 국가에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 등을 모색해 본다. 구체적으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 즉 정치적 복종의 의무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시민의 정치적 복종의 의무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이지 못한 국가 권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불복종할 수도 있다. 한편,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예: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혹은 국가 공동체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탐구해 봄으로써 개인의 자유 및 권리와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지도할 때는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이나 사례와 연관시켜 지도해야 한다. 특히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입장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애국심은 국수주의를 넘어서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윤리 의식에 기초해야 함을 유의한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환경과 도덕

○ 영역 설정의 의의

신화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문화사의 초기 시대에는 인간과 그의 삶의 터전이 미분화(未分化)된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이러한 신화적 사고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화하고 인간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상 세계를 통제하고 조작, 운영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급격히 증대된 근대 이후,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인간중심적 사고에 점차 매몰되어 왔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 그리고 세계는 단지 그의 삶을 위한 수단적 재료요 기껏해야 그가 극복해야 할 제약적 여건이라는 생각을 강

화시켜 왔다. 이러한 생각은 과학과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급기야 이 기술의 발달은 거꾸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삶의 총체적 기반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현대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정신적·문화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체적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신체를 토대로 이루어지듯 인간의 문화적 활동도 자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적·자연적 여건이 인간의 삶에서 더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여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성취해 온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의 근본적 토대인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자연의 보존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문제이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여 인간 삶의 기반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할 때에는 온전히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외부의 자연을 단순한 물질적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터전으로 보도록 관점을 심화시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를 위해 자연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삶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됨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 환경과 인간의 삶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①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관련성
- ② 환경 파괴의 실상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덕적 의미

○ 주제 설정의 취지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근원적이고 중대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환경과 인간의 삶이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주제를 설정한 근본 취지이다. 그래야만 ‘환경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 규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길러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학생들은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서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유용성의 차원에서 인간중심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연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문화보

편적 우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숭고한 이상을 품게 한다. 이러한 초월적 지향작용 속에 도덕의 완성이 기대됨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환경이란 일차적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터전은 인간의 삶을 정초해주면서 동시에 제약하기도 한다. 즉 이 터전은 순전히 수동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조건 지우고 경우에 따라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이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으로 환경을 지배만 하려 한다면 환경의 반격을 받게 되는데, 현대의 환경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환경이 그 나름 고유한 생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자연의 진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으로서 이 생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적 존재임을 고려할 때 환경이라는 삶의 터전은 인간의 삶 연장이요 인간의 삶과 얽혀있는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환경의 반응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형성해낸 문명적 장치가 자연적 환경의 제약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문명적 장치도 종국적으로는 자연의 수용과 지지 안의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인간의 총체적인 삶 자체와 유리될 수 없음을 각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문화/문명의 토대가 곧 자연이라는 문화철학적인 명제이다. 흔히 문화/문명을 자연 상태에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인간은 이 자연적 야만 상태를 벗어나고 넘어서서 문화적 존재로 고양될 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성취하고 실현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은 것이나, 그렇다고 인간이 문화/문명을 형성하려면 다름 아닌 자연을 토대로 하고 재료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자 문화적 존재’이다.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인간의 삶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인류는 이제 더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윤리는 전시대에 없던 새로운 윤리요, 그 적용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 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 그 불행이 다른 파괴와 어떤 점에서 더 심각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곧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차세대와 관련된 문제이고, 익명적 특성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그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한다. 나아가 환경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생활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학습하게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환경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아가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보아 환경의 도구적 가치만 주장하지 않고, 생태학적인 관점도 받아들여 환경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서양 사상을 환경파괴의 배경으로 기술하고, 동양의 사고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등의 단순한 이분법도 삼간다.

(내)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한다.

- ① 지구생태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 ②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평가
- ③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일상생활의 작은 실천)

○ 주제 설정의 취지

환경문제에 대한 문화철학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지속적인 문화발전과 이를 위한 환경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태도가 바람직한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환경 친화적 생활태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 생활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주의적 생활방식의 유래와 그 기여 및 폐해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탐색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적(인본주의적) 관점과 자연중심적(생태주의적) 관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는 학생들이 환경 친화적 생활태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그 구체적 행동 규범을 찾아 실천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근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도래한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의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 대중문화의 확산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 체제 정착, 신체가 요구하는 물질적 충족이 곧 선이라는 개발지상주의 등을 이해한다. 인간의 신체적·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선이라는 이 근대적 생활 태도가 어떻게 환경문제를 발생시켜 왔는지를 이해한다. 인간의 욕구는 동물의 그것과 달리 자연적 본능에 의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하게 되고 새로운 소비 상품을 개발하게 한다. 이는 자연히 자연 자원의 소모를 과도하게 하고, 결국 자연적 환경 상태를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 자연 고갈,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는 인류적 삶의 위협요소가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주의와 개발주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평범한 물질주의적 생활과 친환경적 생활 방식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생활 속에서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 자극을 준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만으로는 환경문제의 극복 방안이 나오기 어려움을 깨닫고 생태주의적 관점의 적합성,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제3의 견해를 모색해 본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환경문제를 다룬다 하여 인류 문명의 발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균형을 갖춘 문명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원 소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현 세대가 양보한다는 도덕적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삶의 단위를 개인에서 친분 있는 작은 공동체로 확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친분 없는 익명적 존재에 대하여 인간적 동류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종국에 가서는 인류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8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일과 배움

○ 영역 설정의 의의

자연에 적응하며 사회와 문명을 구축해 온 원동력으로서 ‘일’과 ‘배움’이 도덕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한다. 일과 배움은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인간 활동 중의 하나임을 안다. 인간의 일과 놀이, 공부와 진로, 계획과 성취가 삶에서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토론한다. 인간이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데 이들이 갖는 중요성을 토론과 자료조사를 통하여 이해한다.

(가) 일과 놀이

자연에 적응하며 사회와 문명을 구축해 온 원동력으로서 ‘일’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임을 알고, 일과 놀이를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의 사례를 찾아보고, 놀이와 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 ① 인간의 삶과 일의 의미
- ② 일의 윤리
- ③ 행복한 삶을 위한 일과 놀이

○ 주제 설정의 취지

자연에 적응하며 사회와 문명을 구축해 온 원동력으로서 ‘일’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임을 안다. 일과 놀이를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즐거운 일과 피로운 일의 사례를 찾아보고, 놀이와 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은 일하는 존재(homo faber)로서 일을 하면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 일은 인간에게 삶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일은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일이 삶의 의미를 신장시키고 일 자체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진지한 삶을 유지한다.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근로정신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인간은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일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든다. 노작(勞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일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를 익히는 것이 곧 일의 윤리를 익히는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을 하면서 놀이를 하듯이 즐겁게 하고, 놀이하듯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일이 된다면 인간은 행복하다. 이 점에서 일과 놀이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 인간은 일을 하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일과 놀이가 분리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일을 놀이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의 즐거움은 일 자체를 강압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대상화시킬 때는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인간은 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킨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일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 일이 놀이와 같이 즐거운 것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풍요하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과 놀이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도록 한다. 일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일과 놀이가 균형 있게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4) 공부와 진로

학생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성해봄으로써 공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공부, 학교생활, 진로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의 미래와 학교 공부와의 연관 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

- ① 공부의 의미
- ② 학교에 다니는 이유: 높은 학력이 행복한 삶의 조건인가?
- ③ 공부와 진로 선택의 관계

○ 주제 설정의 취지

이 주제는 학생들이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깨우치고, 삶에서 진정한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진로 선택과 공부를 연계시켜 볼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학생은 자칫 공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에서 공부가 갖는 의미, 학력보다는 삶의 과정에서 배움이 갖는 의미와 실재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학교 밖에서 하는 공부의 의미, 그리고 공부가 개인의 진로 선택에서 갖는 의미와 관계를 일깨워 주도록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공부의 의미는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부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공부는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배움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부이고 배움이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은 매우 크다. 이 점에서 공부는 즐거움의 연속이다. 인간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떨어지지만 공부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여 왔다.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만이 갖춘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공부 혹은 학습을 통하여 자아를 성장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학교를 통하여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지식을 학교에서 공부를 통하여 배운다.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가 인간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학력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학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터득하는 공부의 중요성, 방법,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학력이 학력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쌓고 하면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공부와 진로 선택의 관계는 인간에게 중요하다. 공부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할 때 인간에게 의미가 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그것을 선택할 기회와 자유가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는 인간이 자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공부를 하고 진로 속에서 자아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진로 선택을 수단화하여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때 공부의 효과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운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교수·학습할 때는 진로를 선택할 때 공부의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 학교가 공부의 참된 의미를 찾는 곳이지 학력을 위한 곳이 아님을 파악한다. 진로를 선택할 때 그것이 주는 명예, 권력, 경제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가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4) 계획과 성취

삶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취해나가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높은 이상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실천 정도를 점검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① 생활계획 세우기
- ② 높은 이상과 도전
- ③ 훌륭한 성취를 한 사람의 일화

○ 주제 설정의 취지

인생의 시작 단계에 있는 학생은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학생이 꿈꿀 수 있고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한다.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작은 일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 천 리 길을 가더라도 그 시작은 첫걸음인 듯이 긴 삶의 과정에서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하루하루 살면서 목표를 추구하는 성실한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계획이라도 그에 따라 성실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원대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나름대로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높은 이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아름답다. 삶의 과정에서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은 대부분 그 이상을 이루어 왔다. 현재의 나의 조건과 능력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하는 길이고 또한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상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진정으로 그 이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과 이상이 있었다. 인류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자신도 행복한 삶을 성취한다. 개인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될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위인들이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유사한 일은 항상 반복된다. 위인이 겪은 어려움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는 위인의 일대기를 보면서 공감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때 그 이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마침내 성취할 수 있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중학생이 인생의 긴 여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사고를 기르도록 한다. 유약한 심성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높은 이상과 도전 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그만 일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상에 대한 합리적 계획과 실천 방법을 공부를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 청소년과 도덕

○ 영역 설정의 의의

청소년기는 지적 성장과 더불어 자아와 가치관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불일치 탓에 다양한 도덕적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에는 자살, 약물 남용, 각종 중독 현상, 성적 욕망과 이성 문제, 친구들과의 폭력 문제 등이 있다. 본 영역은 이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비인간화 문제 및 생명경시 풍조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기존중 및 타인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비인간화 현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청소년의 소비 생활과 절제
- ② 자살, 약물 남용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 ③ 인터넷(게임) 중독 등 각종 중독 현상과 건전한 자아의 성장

○ 주제 설정의 취지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해 자살 충동이나 순간적인 쾌락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 이 주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부딪치는 문제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하여 건전한 자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지도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건강한 소비를 위한 절제의 미덕 함양, 약물 오남용의 유혹을 극복하는 자세, 각종 중독의 문제에 대처하는 자아 존중감의 고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본 주제에서는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 부재와 갈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현실과 이상의 부조리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독의 문제(약물 중독, 게임 중독 등)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존중감의 결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윤리적 문제라는 것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각종 중독이나 자살의 문제 등은 생명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기 절제 및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자세와 같은 윤리적 차원과 관련시켜 지도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본 주제를 가르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이 부정적인 모습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문화가 기성 사회의 대안적 성격도 갖고 있음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소비 생활을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금욕적이거나 자극적 사례를 사용하여 오히려 교육의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폭력 사례와 폭력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 ① 갈등 사례와 갈등 증폭의 이유
- ②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과 문제점
- ③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 ④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 주제 설정의 취지

초등학교 5학년 ‘대화와 갈등 해결’이라는 지도요소에서 습득한 초보적 수준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능력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고양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본 영역에서는 폭력의 형태와 문제, 그리고 대체 방안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삶과 세계 평화 실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본 주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폭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은 개인적 형태의 폭력과 집단적 형태의 폭력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있고, 행위에 의한 폭력과 부작위에 의한 폭력 등이 있다.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 면에서도 국가간의 폭력만이 아니라 교실 상황에서의 폭력도 자행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도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방법을 지도한다. 갈등 해결의 방법과 기술을 지도하는데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본 주제를 가르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급진적인 평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나 교사에 의한 교육 행위, 정상적인 공무 집행마저도 폭력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나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평화로운 삶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성교제와 성도덕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 사랑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식하고, 남녀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와 동성 친구와의 교제의 차이점과 책임이 따르는 이유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① 욕망과 사랑의 차이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 ③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 및 예절

○ 주제 설정의 취지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는 이성 문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2차 성징(性徵)기를 지나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다. 이 주제는 청소년들이 때로는 넘치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것이 일탈로도 유도될 수 있으므로 그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성취 수준과 인격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설정된 주제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곧 욕망과 사랑은 차이가 있으며, 올바른 사랑은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지도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본질적인 성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장차 바람직한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지도할 때에 인간의 성적 욕망이 무조건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건전한 통로를 통하여 표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성교육과는 다르게 성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차원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도록 한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 영역 설정의 의의

남북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다. 이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지도한 민족에 대한 긍지와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분단 과정, 분단으로 인한

폐해,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의 당면 과제로서 통일 문제를 다룬다. 학생들에게 북한 주민을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려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역사와 영향을 조사하고, 민족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①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배경
- ② 이산가족 등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
- ③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 주제 설정의 취지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 발전을 생각할 때 경계해야 할 상황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경향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분단에 관련된 사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민족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면 최근 청소년들의 특성,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남북 관계(남북청소년 교류 등)를 토대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나 필요성을 제시할 때는 당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 등이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언급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에 대한 민족 공동체주의적 접근 모형에서는 열린 민족주의에 근거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정서적 또는 감정적’ 접근도 필요하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첫째, 분단의 배경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편향된 역사 해석에 근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인간의 정서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접근에는 개방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적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4) 북한 주민과 민족에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을 비교해보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조사한다.

- ①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
- ②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 ③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의 의미

○ 주제 설정의 취지

통일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준거는 민족 공동체주의이다. 최근의 통계 조사 등에 의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적대의식은 줄어들고 있으나, 배타의식과 우월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구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도 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북한 주민에 대한 생활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구체적인 의식주 생활모습만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움직이는 사회 체제나, 가치관 등이 함께 가르쳐져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원리로 작동하는 집단주의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룸으로써 교육 내용의 시대적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보편적인 인권 관점에서 판단하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인권 구현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 주제의 지도 내용이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흐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첫째, 북한 주민 생활에 관한 자료들은 공신력 있는 문서나 웹 사이트 등에서 구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은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자료의 한계를 사전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시사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례가 있는지 유념하도록 한다.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통일은 민족공동체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사회통합 과정 및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알고, ‘같음’을 발견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②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 ③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 ④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 주제 설정의 취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된 이후의 우리나라 모습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남북 상호 간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하여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하고, 최근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새터민의 문제는 단순히 북한 주민의 우리 사회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시급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가시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갈등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은 독일 등 최근의 통일 국가들에서 찾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첫째,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중립화 방안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소한의 통일 전제 조건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새터민의 문제를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문화와 도덕**○ 영역 설정의 의의**

인간이 자연적 상태의 자신을 초월하여 자연에는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 활동의

정상에는 학문, 예술, 종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학문은 진리를 향한 모든 지적 탐구의 정점에, 예술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하는 모든 정서적 활동의 정점에, 그리고 종교는 무한한 절대적 존재와의 결합을 추구하는 의지적 활동의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서 작용은 일견 도덕적 판단이나 덕성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덕성의 실현, 즉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행위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정서적 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히 도덕적 행위에는 세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를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지적 측면, 도덕적 가치나 도덕적 품성을 심정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측면,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려는 습관적 의지적 측면이 그들이다.

이 영역에서는 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도덕이 추구하는 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적 감수성의 함양이 도덕적 품성의 도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가) 진정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가치는 참됨과 선함의 가치와 함께 인간이 추구해온 핵심 가치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외모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아정체성의 관점에서 몸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외모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평가한다.

- ① 자아정체성의 형성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
- ② 아름다움의 가치와 지향성
- ③ 상업주의에 기인한 외모 중시 풍조에 대한 비판
- ④ 진정한 아름다움의 추구

○ 주제 설정의 취지

중학생이라면 아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기 형성의 길을 모색하고 수정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특히, 막 사춘기를 지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성적 욕구와 함께 생활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급우, 특히 이성의 급우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신체적 모습에 관심이 지대하다. 외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외양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심성이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 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을 정도로 외모가 인물 평가의 중요 요인이 되고 또한 상업적 가치까지 갖게 되는 ‘외모지상주의’의 그릇된 세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외모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피상적 편견을 깊이 자성해 보고 진정한 미적 가치

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에 역행해서는 그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연예인들의 활동을 둘러싼 상업주의적, 물질주의적 세태가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어 학생들이 도덕적 감수성과 함께 건전한 미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신체 없는 자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아껴야 한다. 건강을 도모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신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아껴야 할 신체란 피상적인 외모로 드러나는 신체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리킨다. 또한, 외모나 신체적 특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아님을 일깨운다. 진정한 자아는 반성적 성찰에 의해 정련된 자기상이지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自己愛)에서 나오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가치임을 인지하게 한다. 외모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피상적 편견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한다. 나아가 심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궁극에 가서는 상호수용적인, 동근원적인 것이므로 이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도록 일깨운다. 즉, 미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할 때, 그 미적 가치는 추구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자신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自己愛)에서 나오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가치임을 인지하게 한다. 외모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피상적 편견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한다. 나아가 심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궁극에 가서는 상호수용적인, 동근원적인 것이므로 이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도록 일깨운다. 즉, 미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할 때, 그 미적 가치는 추구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몸과 마음의 불가분성, 몸이 마음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신체와 정신 양면을 함께 존중하도록 한다. 이 양자의 조화가 도덕적 삶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게 한다. 자기 신체의 아름다움도 자기에에서 나오는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 외양(外樣)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게 한다.

(나) 예술과 도덕

예술의 가치는 우리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풍요롭게 함을 인식하며,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구현하고 즐기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다.

- ① 인간의 삶과 예술의 가치
- ②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도덕의 관련성
- ③ 우리 고유의 예술적 가치 세계 향유

○ 주제 설정의 취지

미적 가치는 윤리적 가치와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윤리적 가치와 양립하는 상호수용적인 것이다. 미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도덕성을 검비하지 못할 때, 그 미적 가치는 환영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술적 심미안의 배양과 예술적 창작 활동을 통해 미적 체험을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허용할 일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여러 유형의 예술 활동들을 도덕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거나, 경우에 따라 비판해 보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이 절에서 예술과 도덕을 주제화시킨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흔히 지적, 정감적, 의지적 활동의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서 정감적 활동이 차지하는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연관하여 예술 활동은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정서적 감수성의 미적 표현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특히 도덕적 감수성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술적 가치의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유관하다면 서로 어떤 제약 조건이 되는지, 혹은 상호 상승작용은 하지 않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대중이 즐기는 대중 예술은, 그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나 인격적 도덕성의 고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두루 살펴보도록 한다. 감정적 작용 영역의 다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 형태의 역할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한국적 미의 세계, 즉 한국인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인의 정서생활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서생활을 토대로 어떤 도덕적 규범을 지키며 어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여 발표해보고,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차이와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의 고유한 미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본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미적 가치의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의 추구에 우열이 있는 듯 다루지 않는다. 대중문화를 다룰 때도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 한국에 고유한 예술적 가치에 관해서도 민족정체성 형성의 관점과 세계문화 다양성에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기술한다.

(㉔) 과학과 도덕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인식 하고, 과학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①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끼친 영향
- ② 과학기술과 과학자의 가치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인식
- ③ 생명 과학의 윤리적 측면
- ④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 주제 설정의 취지

현대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의 하나는 과학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학기술은 특히 현대에 와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과학 기술은 이미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란과 더불어 과학적 탐구의 도덕적 책임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과학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학의 본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망해 본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것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여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근대 이후의 과학에 대해 그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의 토대가 되는 근대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나아가 ‘디지털 혁명’ 이후 이를 기초로 한 현대의 과학과 기술들, 즉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생명 공학기술, 나노 기술 등이 갖는 또 다른 특이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토대로 한 가상현실의 창출, 운영 기술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를 가져본다.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그것은 이미 특정의 세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다는 대립적인 주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 이 논란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져보도록 유도한다.

현대의 과학기술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야기하는 정보통신 윤리 문제, 생명공학 기술이 일으키는 생명윤리 문제, 그리고 과학 기술 전체가 연관되는 환경윤리 문제 등을 개관해 본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사회윤리의 문제를 야기한다. 인류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먼

안목에서 현대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본다. 이와 더불어 인류의 앞날을 전망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과학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살피도록 한다. 과학적 사실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윤리적·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힘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논의에 필요한 과학적 사실은 시사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연관적 논란에 대해 언급할 때도 그 찬반에 대해 균형 있게 논의를 펴도록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 및 활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설명하되, 미래세대의 권리와 자연에 대한 책임 등 윤리적 관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다룬다.

(3) 9학년

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삶의 목적

○ 영역 설정의 의의

이 영역은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한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성찰하지 않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또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하다. 인간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때에 자기를 존중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다. 행복한 삶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최고선을 추구하고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욕망을 절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권리를 누리기 전에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가) 자아정체성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아의 구성 요소와 정체성의 근거를 찾아보고, 진정한 개성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자아의 발견
- ② 나는 나의 삶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 ③ 자아존중과 자아확립
- ④ 유행과 개성의 진정한 의미

○ 주제 설정의 취지

자아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 정체성이 있을 때 그에 적절하고 타당한 삶이 가능해진다. 자아의 발견은 내가 남이 아니고 나임을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내가 나임을 자각할 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적 삶이 가능해진다. 내가 나임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에 대한 인식도 갖지 못한다. 자아 존중은 남을 존중하는 시작이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아를 확립하는 길이다. 개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행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개성과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유행을 위한 유행을 따르는 것은 참다운 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을 때 나는 가족, 사회,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이 없을 때 나는 끊임없이 타인이 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나임을 확신하고 정체성을 가질 때 진정한 삶이 가능해진다. 도덕교육은 이를 위해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내가 나임을 알 때 모든 것의 출발이 가능하다. 자아가 자아로서 우뚝 서는 것은 나의 신체의 일관성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정신의 일관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한살의 나와 스무 살의 나는 같다. 육체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내가 자아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서 가능하다. 나의 정신이 나를 나라고 확인해 준다. 내가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임을 확인할 때 나의 정체성은 이루어진다. 나의 정체성은 개인적 나와 사회적 나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개인적 나만 있고 사회적 나는 없을 때 나는 주체적인 나가 아니다.

자아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타인에게서 존중받을 수 없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내가 알 때만이 나 아닌 모든 타인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점에서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출발점이다. 나와 타인이 서로 존중을 받을 때 자아가 확립된다.

유행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유행에 이끌려 가는 것은 내가 유행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없고 유행이 나를 대신한다. 나의 개성이 유행에 함몰될 때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 유행은 나의 개성과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행을 따르는 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진정한 자아 찾기와 정체성은 유행이 나를 이끌 때가 아니라 내가 유행을 나에게 맞게 활용할 때 가능해진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자아 형성은 어려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의 발견은 인식

의 발달에 비례해서 개인적 단계와 사회적 단계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은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자아 확립을 정체성보다는 유행이라는 허상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점을 유의해서 지도한다.

(나) 행복한 삶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욕구와 도덕적 의무간의 갈등 등 관련된 주제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최고 선)을 탐구해보고, 이익이나 욕구의 세계와 옳고 그름의 도덕적 세계가 갈등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 ①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 ② 최고선(最高善)
- ③ 인간의 욕구와 도덕적 의무간의 갈등
- ④ 도덕적 무지와 무관심(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

○ 주제 설정의 취지

행복한 삶은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경우가 많다. 현대문명이 물질적 풍요를 인간의 삶에 가져왔지만 그로 인하여 인간이 행복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생들이 그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결과로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갖게 된다. 행복을 위해서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의무를 소홀히 한 그 순간에 이미 행복은 그 사람을 떠난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무시한 삶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도덕적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의 지도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 불행한 삶보다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행복은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부자가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행복은 무조건적 욕망의 충족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행복은 갈등 속에서도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해진다. 도덕적 의무를 무시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도덕적 무지나 무관심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도덕적 무지나 무관심은 성실한 반

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덕적 무지나 무관심은 대부분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최고선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도덕적 갈등, 무지, 무관심을 극복하고 성실히 노력할 때 도덕적 무리 없이 행복을 찾게 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행복을 추상적인 의미로만 파악하거나 손쉽게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행복은 최고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가능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갈등, 무관심, 무지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항상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가능함을 파악하도록 한다. 고생 끝에 행복이 오는 것이므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최고선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 영역 설정의 의의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사대로 자유롭게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이나 차별을 받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는 것은 모든 도덕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외받는 이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을 깨달아 내면화하고, 차별의 철폐와 소외받는 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소외받는 이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역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
- ② 타인의 고통과 약자의 불행에 대한 공감
- ③ 정당화가 가능한 역차별 사례
- ④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받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는 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당한 역차별의 구체적 사례 등을 교수·학습한다.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인간은 왜 존엄한가를 탐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람들도 차별과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됨을 이해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장애, 출생,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기타의 지위, 개인적 기호나 취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소외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불행을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더 나아가 장애인 우대제나 여성 할당제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실행되는 역차별의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이 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 사회의 실제적 사례와 연관하여 교수·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한편, 역차별의 사례를 다룰 때에는 역차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시혜적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성 편견을 극복하고 양성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성이 고루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양성 불평등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성역할 및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의미와 문화적 다양성
- ② 한 성을 억압하거나 한 성에 특권을 부여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
- ③ 양성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할 때의 긍정적 결과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은 성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즉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비교적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양성 평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이 문화에 따라 다양함을 이해하고, 특정한 성이 억압되거나 특정한 성에 특권을 부여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와 양성의 상호보완이 추구될 때의 긍정적 결과 등을 교수·학습한다. 우선 우리 사회와 같이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성격이 강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남·녀의 성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문화에 따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다를 수 있고, 특정한 성의 우월의식이 근거 없음을 파악한다. 또한, 특정한 성을 억압하거나 특정한 성에 특권을 부여했을 때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용이나 승진, 교육 시설이나 직업 훈련 기관의 이용, 교통수단 이용, 토지 및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 및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양성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보완을 추구할 때 개인적 및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의식, 제도,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교수·학습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다룰 때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갈등 또는 대립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도록 한다. 또한 특정한 성의 관점에서만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세계 평화와 인류애

○ 영역 설정의 의의

이 영역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세계 속의 시민이 되었다. 우리가 성숙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서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지구상에 다양한 원인의 국지적 분쟁이 확산되는 추세를 볼 때,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진정한 인류애 및 세계시민 의식을 형성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타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분석하고, 타문화와 교류·체험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①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 ② 다른 나라 풍습 중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
-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오해(혼혈아, 해외입양아,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 등)
- ④ 타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체험, 문화교류

○ 주제 설정의 취지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 문화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극복하고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삶과 문화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 할 수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습득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사회 내의 소수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한 극복 등을 교수·학습한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인종과 국가,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관습,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우열이나 상호 비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타문화를 숭배하는 것은 다르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나 풍습 중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또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체험이나 문화 교류를 할 때 사전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대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 거주 소수 문화인(혼혈아, 해외 입양아, 귀화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히 유지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문화 상대주의를 교수·학습할 때에는 도덕적 상대주의로 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명칭 하에 청소년의 저질·비행 문화가 옹호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때에는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나

우리 문화에 대한 국수주의적 관점이 노정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외국 문화 경험자와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인 국가의 외국인들과 열세인 국가의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 등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통해 진정한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평화 운동의 사례를 찾아본다.

- ① 평화의 소중함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들
- ② 비폭력과 평화(진정한 평화의 의미)
- ③ 남북한 상생의 추구
- ④ 외국의 재난과 우리의 협조

○ 주제 설정의 취지

오늘날 지구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국지적 분쟁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인류의 역사상 갈등과 분쟁,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오히려 늘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질적으로 평화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도덕적 가치들이 실현된 결과이다. 즉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이 주제에서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남북한 상생을 위한 평화의 추구하고 아울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평화 활동 등을 교수·학습한다. 평화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상태를 말하나, 적극적 의미에서는 전쟁과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여러 원인들이 제거된 상태 즉 빈곤과 기아, 정치 및 종교적 억압, 부정의 등의 사회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여, 평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전쟁과 폭력의 부재이며 평화의 충분조건은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세계 평화는 개별 국가의 주권이 평등해져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세계 각국과 인류가 평화와 상호 도움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 운동에 매진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한 간의 상생을 위해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 주제를 지도할 때는 평화가 추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평화의 소중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국제 분쟁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삶과 종교

○ 영역 설정의 의의

인간은 항상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에는 결코 회피할 수 없으면서도 끝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해결불가능성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인간 삶의 유한성에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무한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대결하는 활동영역을 발달시켜 왔다. 그것은 지적으로 매진하는 학문적 탐구, 정서에 호소하는 예술적 창조, 의지적 자발성을 움직이게 하는 종교적 신앙의 영역 등이다. 이 영역 중 특히 종교적 신앙의 영역은 예술이나 철학과는 달리 현실적인 일상의 생활을 포함한 삶 전체를 향도(嚮導)하되, 그 근본 지향을 초월적, 보편적, 절대적 존재로서의 직접적 귀의 또는 그런 존재와의 결합에 두고 이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문화적 삶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 또한 현실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긴 하나 그 규범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그 규범의 현실적 실천을 위해 종교적 신앙을 토대로 하기도 한다. 사실 종교적 신앙은 대부분 현세에서는 도덕성의 원천으로 역할을 하면서 도덕적 규범의 실현을 지향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세를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다. 인간 삶의 유한성과 이를 초극하려는 인간의 이상 지향적 정신성을 이해함으로써 도덕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영역을 학습하는 의의이다.

(가) 삶의 유한성

삶에 쾌락과 행복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자세와 인간 삶의 유한성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진 참된 이상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예를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상상해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① 인간 고통에 대한 이해
- ②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
- ③ 삶의 유한성과 이상의 추구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은 삶의 현실 속에서 노력한 만큼 즐거움, 보람, 기쁨을 얻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삶에는 자신의 의도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다. 인간은 죽음, 고통, 갈등, 투쟁과 같은 불행한 ‘한계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긍함으로써 삶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게 한다. 이러한 운명적 ‘한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진정한 인간적 가치임도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이상 지향적 태도가 오히려 현실 속에서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됨을 이해하게 한다. 사춘기 학생들이 스스로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 주제 설정의 취지이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의 시공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즉 유한성에서 유래하는 운명적 비극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기초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이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러한 자기초월의 활동이다.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이상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자기초월적 삶의 모습이다.

인간은 신체를 갖는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연적 존재로서만 생존할 수 없는 특이한 자연적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문화세계를 구축하여 삶의 토대를 보강함으로써 자연성을 초월하는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기초월적 활동의 근원은 바로 이 특이한 자연적 삶의 조건과 여건에 있다. 인간의 자기초월적 활동은 자연적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른바 문화세계를 구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문화세계는 자연 곁에서 인간의 삶을 지지해 주는 제2의 터전이 된다. 그중에서도 자연적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정신의 자연에 대한 자율성, 자립성, 자족성이 확보되는 곳에서 정상에 이른다. 그 최정상의 영역은 문화 영역 속에서도 학문적 탐구, 예술적 창조, 종교적 신앙의 영역이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삶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오히려 이러한 반성이 인간의 가치 있는 도전적 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인간의 자기초월적 활동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현실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기획하고 조종하고 통어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현실을 초극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게 한다.

(나) 종교와 도덕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 종교와 도덕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대해 관용적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조사해보고, 종교 간의 갈등 사례와 관용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한다.

- ① 인간 생활과 종교
- ② 종교의 가치와 현실 종교에 관한 이해
- ③ 종교와 도덕의 관계
- ④ 타종교에 관한 이해와 관용의 자세

○ 주제 설정의 취지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이며 궁극적인 것이 종교적 신앙 활동이다. 따라서 물질주의적 기계론적 세계관 아래에서의 과학적 인간관과 가장 대조적인,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면 종교적 신앙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량과 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요긴하다.

이를 토대로 도덕이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주제를 설정한 직접적 동기이다. 물론 이때 참된 종교의 본래적인 이상과 현실 속에서 세속화된 실정 종교의 모습을 구분함으로써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현상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교적 신앙에 대한 관용적 자세가 도덕성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인간의 자기 초월적 문화활동 중에서도 철학이나 예술과 달리 종교는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장악한다.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가 일상적인 현실로부터 내세적 이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향도(嚮導)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하는 운명적 비극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대결함으로써 인간의 자기초월을 돕는다. ‘구원’의 세속적 뜻은 바로 이것이다. 종교적 신앙은 죽음, 고통, 갈등, 투쟁과 같은 불행한 ‘한계 상황’의 극복을 직접 지향한다.

종교의 본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세속화된 실정 종교의 모습을 구분함으로써 종교 현상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한다. 실정 종교가 갖추어야 할 불가피한 현실적 요건은 무엇이며, 종교적 신앙 내용이 갖는 절대성-보편성-무제약성의 이름 아래 부당하게 정당화되는 요소는 없는지 관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한다. 종교 활동이라도 신앙 내용이 아닌 실정 종교의 요소들은 현실의 규범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연히 여러 실정 종교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특정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신앙내용들의 다양성을 관용적으로 수용,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 자세를 갖게 한다. 신앙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심성(또는 판단)의 관계를 개방적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더 근원적으로 종교적 신앙 내용이 도덕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 양자 사이에 단절이 있거나 양자가 상충하는 경우를 살펴, 그 잘못된 점을 숙고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종교적 신앙에 대한 관용적 자세가 도덕성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특정 종교의 신앙 내용을 설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 실정 종교들의 구체적인 사상과 교리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종교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성의 의미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힘쓴다.

현실적 규범에 비추어 실정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되 본래적인 종교의 이상이 갖는 숭고한 도덕성을 폄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세속적 사회에서의 종교 공동체, 교회조직 등의 틀을 벗어나는, 우리나라의 무교(巫敎)와 같은 신앙도 그 본래적인 이상에 비추어 편견 없이 이해하도록 한다.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신앙을 절대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입장에서 종교 생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있게 설명한다.

4. 교수·학습 방법

도덕 교사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과 내용 지식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 요소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도덕과의 교수·학습방법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교과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말한다. 도덕 교사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도덕학습능력을 가지도록 돕는다.

도덕과는 도덕규범과 예절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규범적 접근을 특성으로 한다. 특히 인지적 도덕성의 발달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도덕적 습관이나 실천과 같은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발달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 교사는 수업 목표, 내용, 집단, 환경 등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 및 실제 지도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적 접근의 추구

가. 도덕과 교육에서는 도덕적 지식,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도덕적 습관이나 실천과 같은 정의적 및 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도덕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사가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적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생명의 시작과 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다른 문화들 간의 만남이 증가하고 불가피하게 가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리적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도덕과 교육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도덕적 정서, 도덕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덕적 실천의지 및 행동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도덕적 인식, 감정, 행동 세 측면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도록 지도한다.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은 도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도덕성의 정서적 측면은 도덕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도덕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감정과 열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자가 결합되지 않으면 도덕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수·학습 방법들은 도덕적 인식, 감정, 행동 습관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목표와 내용,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생들의 생활 배경, 수업의 물리적 환경, 학부모 집단의 참여 등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되 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다른 방법들을 적절하게 선택 활용함으로써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나.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교육 내용에 알맞게 강의법, 문답법, 토의·토론법, 논술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ICT 활용법, 협동학습 방법, 프로젝트 학습 방법, 역할놀이 방법, 실천·체험학습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수준, 목표와 내

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덕성의 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도덕과의 특정 단위 수업 시간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또한 각각의 방법에 제시된 모든 단계를 어김없이 지키면서 적용할 수도 없다. 학습자 집단의 발달 특성이나 배경적 요인, 수업 상황, 물리적 환경, 멀티미디어 기기와 학습자료 구비 등과 같은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목표를 고려하여 한 단위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 중 하나만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 강의법

강의법은 면대면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도덕적 지식의 이해 증진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친숙한 이 방법은 교사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수준의 지식전달 교육에 효과적이다. 특히 기초적인 도덕 지식, 가치, 개념, 이론, 정보전달 등 기초적인 수준의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강의법은 대체로 교사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나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사고와 판단능력이 발달될 학습 기회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업 이전에 학생들의 선행 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 교사와 학생들의 도덕적 개념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교사의 의도 간의 일치점이나 불일치점을 분석하는 것, 학습자의 능동적 수업 참여와 상호작용 방안을 설계하는 것,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 등 교사의 수업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덕과 수업에서 강의법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도덕 이론의 주요 흐름과 내용,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특정 도덕적 가치가 학습 주제일 때 교사는 수업에서 먼저 특정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준 및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 자신과 학생들이 가진 개념 이해의 차이, 다양한 개념 이해의 내용, 오개념(誤概念) 등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가치나 덕목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덕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나 덕목의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답법

문답법은 교사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하는 대화식 수업방법으로서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실 수업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답법에서 질문은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돕고 학생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한다.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대부분의 질문은 학습내용의 기억, 사실의 확인, 설명에 대한 동조, 학습 이해도 확인 등 단순하거나 폐쇄적 유형의 질문들이다. 그러나 문답식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 도덕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돕는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기존의 도덕적 주장, 지식, 도덕 문제 사례, 도덕적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정확한 내용 이해, 그 배경이 되는 전체나 정당화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평가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능과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이 발달될 수 있다. 도덕 문제에 대한 교사의 높은 수준의 질문은 학생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나 덕목, 도덕 이론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및 활용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도덕적 개념의 이해,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 증진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질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는 질문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 즉 질문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질문을 제기하도록 준비했는가, 학생의 도덕적 지식과 발달 수준을 고려했는가,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가,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학생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학생에게 대답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학생의 입장 및 그 근거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반성을 촉진할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답법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목표와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도덕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토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교실을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토의 · 토론법

토의 · 토론법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정보,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과정,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심이 되는 교수 · 학습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례연구, 각종 과제의 복습, 학습자의 연역적 학습 보완,

집단의 참여 촉진, 문제에 대한 안목의 확장, 타인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이 방법은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에서는 도덕과의 토의·토론법 중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딜레마 토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방법은 도덕 딜레마 제시, 잠정적 입장 진술, 추론 검증, 개인 입장의 반성과 숙고라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교사는 이 방법이 가진 교육적 효과들을 유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가설적 도덕 딜레마에 대한 토론은 현실 도덕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발달시켜준다는 점이다. 토론을 위해 제시된 도덕 딜레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관점의 탐색,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 전제와 정당화 근거를 조사하는 것, 딜레마의 도덕적 주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기술의 연습하는 것, 유사한 다른 도덕 딜레마들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확장하는 것 등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참여 활동은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증진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감적 태도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행동 습관을 발달시켜준다는 점이다. 토론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민주적 담화의 습관을 배우는 것,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등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 협동학습의 습관의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용, 배려, 겸손, 상호존중, 적극적 참여, 등의 덕목과 기술을 발달시켜 준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도덕 딜레마에 함축된 도덕적 애매성이나 복잡성을 찾아내고,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지식의 공동창조자로서 다른 학생들을 긍정하는 기술을 수업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

(4) 논술법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해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한 것이다. 논술은 도덕적 문제의 인식 및 발견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논술법은 도덕적 가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적용능력, 도덕적 탐구절차의 습관화, 논리적 추론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은 도덕적 가치나 덕목, 원리나 규범 등에 대한 지식, 도덕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정당화 근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논술법의 절차를 한 가지 예시하면, 특정한 주제나 문제 사태를 담은 글을 제시하기, 그 주제나 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쓰기, 도덕적 딜레마에 초점을 두고 다시 쓰기, 소집단 동료 검토와 협력적 쓰기, 자신의 이야기이나 대안으로 마무리하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김국현: 225-228).

일반적으로 논술에서는 사고력, 텍스트 구성력, 지식력을 주요 구성요소로서 설정한다. 그리고 그 하위요소로서 생각, 조직, 어조, 낱말선택, 문장 유창성, 어법, 서술, 설득력, 설명력, 이야기, 상상력 등을 중시한다. 도덕과 수업에서 논술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도덕과의 논술에서는 도덕적 상상, 가치와 도덕원리의 이해, 도덕적 탐구, 논리적 구성, 도덕적 설득, 사고의 다양성과 표현의 명료성, 가치에 대한 헌신도가 구성 요소로서 중시된다.

(5) 협동학습 방법

협동학습이란 ‘학습효과를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 서로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활용하는 수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동학습이란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수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은 도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협동학습은 학습과제가 고차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학습 집단 구성이 이질적이고, 학습 과제가 정의적 영역에 속하고,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수업 목표 중의 하나일 때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한 토의, 협의, 논의와 논쟁 등의 활동과정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력의 증진, 자존감 증진, 타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문화나 인종 간의 교우관계 증진,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 형성, 갈등처리 능력, 토의기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배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이동원: 63-64).

협동학습에 속하는 직소우(jigsaw)의 과정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글을 읽고 학습한 것을 모둠 또는 전체 학급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읽을 때보다 많은 자료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고, 자료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기호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고, 글을 읽고 학습하면서 학급 전체 학생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이 읽은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종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 역할놀이 방법

역할놀이 방법은 역할놀이 준비,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무대 설치, 참여적 관찰자로서의 청중의 준비, 역할놀이 시연, 토론 및 평가, 재연,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의 단계로 진행된다. 역할놀이 방법은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 욕구, 가치, 인식에 대한 통찰력 발달,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집단의 응집력 강화, 도덕적 가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체득, 문제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기능, 태도, 그리고 능력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토의·토론 방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보다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7) 실천·체험학습법

도덕적 정서, 의지, 행동 습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제적 참여를 통한 도덕 학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덕 교육은 타 교과들 보다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도덕 교육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리코나(T. Lickona)는 도덕교육에서 학교와 가정의 협력 방안으로서 가르칠 내용, 즉 가치에 대한 합의,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을 지원할 학부모 집단 형성, 학부모들의 도덕교육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의 목록 만들기, 학부모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초청하기,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와 인터뷰하기,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도록 하기, 학생들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부여하기, 가족 영화의 밤 등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도덕과 수업을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활동학습(service learning)이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이에 대한 학습기회가 통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봉사활동학습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사려 깊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봉사활동학습은 준비, 실행, 반성 및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봉사활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 세계의 상황에 직접 관련시키고 가치가 개념,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학생경험중심적 접근

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를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도덕 문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 수업에서는 다양한 도덕 문제나 사례를 활용한다. 이 때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이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의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발달을 위해 제시된 도덕 문제 사례들이 학생들의 경험세계와 관련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도덕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도덕적 정서와 의지 등에서 유의미한 자

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이 적절성을 지니게 되는 상황을 활용하는 환경 조성,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학습자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환경의 제공, 내적으로 통제되고 학습자에 의해 매개되는 학습 등을 강조한다. 학생들 스스로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도덕과 수업에서는 도덕적 가치나 덕목의 개념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사례, 도덕 딜레마의 내용이나 주제 등을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하는 문학작품, 영화,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제의 도덕 문제 사례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도덕 학습(self-directed learning) 능력은 발달할 수 있다. 도덕 문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도움 없이 도덕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도덕 학습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도덕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자신의 도덕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생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도적인 도덕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도덕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덕과 수업에서는 학생생활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도덕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비편향성

라. 도덕과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이 강한 내용은 그 지역이나 시기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되,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을 본래의 맥락이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업 자료의 시기적 적실성, 지역적 적합성을 높이려면 교과서의 내용, 학습 자료 등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특히 수업에서 활용하거나 주장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이론, 주장, 통계 자료 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논쟁적 문제들을 다룬다. 논쟁적 문제, 토픽, 이슈는 사회의 중요한 집단들이 상이한 가치들에 근거하여 상충된 설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를 분리시키는 문제와 논쟁들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논쟁적 문제에는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이념논쟁, 종교 간 갈등문제, 노사 간 갈등 문제 등이 있다. 상이한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도덕적 논쟁 문제들을 다룰 때 교사는 위교(indoctrination)를 주의해야 한다.

위교가 아닌 올바른 도덕교육을 하려면 도덕 교사는 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수업지도안 작성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려 할 때 논쟁적인 주제를 둘러싼 학문적 이견이나 관점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 내용, 시각 자료, 사실적 진술, 개념

들, 가치진술, 일반화, 논쟁적 주제 등과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 검토를 거쳐야 한다.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의 주제를 고려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어떤 장소, 사람, 이슈, 아이디어, 사건들이 두드러지는가, 그 각각에 주어진 지면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부자, 빈자, 소수자, 특정 직업인, 유색인종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어떤 선입견이 제시 되는가 등의 질문 목록을 만들어 검토해볼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유의미한 도덕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 자료나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운영 실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려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 중앙 에듀넷(Edunet),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정보센터 교수·학습자료란 등에서 제공 되는 교수·학습 자료들 중 유용한 자료들을 수업 목표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교사

마. 도덕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학생들의 동일시 대상임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언어, 사고 방식, 태도, 행동 등에 유의하여 도덕적 모범이 되도록 한다.

도덕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인격자의 역할 모델이어야 한다. 역할 모델은 학생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H. Kirschenbaum: 273). 도덕교사는 도덕적 가치의 전수자가 아니라 실제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시킴으로써 영향력 있는 도덕적 모범이자 스승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이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실제적 인간관계를 통해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또 교실 안팎에서 도덕적 인성 또는 인격 특성을 보여주는 인격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도덕 문제들에 대한 추론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나 학생 자신에게 해를 가했을 때 학급 토론, 이야기하기, 격려,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 등을 통해 도덕적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료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절차와 방법,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는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토론과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습관화된 행동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때론 이러한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학습에 미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도덕 교사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덕적 실천의지 강화를 위한 지도

바.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교육이나 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문제, 봉사활동, 체험학습, 교내 행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등을 도덕과 수업에 적절히 관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고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덕적 실천의지,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타 교과와의 협력을 통해 도덕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체험학습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육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가정윤리, 과학기술윤리, 환경윤리, 민주시민윤리 등의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은 가정과, 사회과, 과학과 등 관련 교과에서도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의 중점 목표를 달리하되 협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교령화, 세계화, 다문화 등 최근의 변화들과 관련되는 도덕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타 교과와 연계 학습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 세대평등, 다문화 이해, 편견 해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민족간의 연대와 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도덕과 수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도덕적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도덕실(예절실) 운영

사. 도덕과 수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절한 교육 여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체험학습을 위한 도덕실(예절실)이나, 중등학교의 도덕과 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덕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덕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도덕 학습을 지원해주는 학습 자료, 영상 자료, 읽기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토의·토론법, 논술법, 도덕 딜레마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문학작품, 영화나 영상 자료를 읽거나 시청하는 것, 역할극 등 도덕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도덕실 내부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모듈별 토론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 영상물 시청이나 역할극 등을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나 음향기기, 조명 기구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평 가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은 모두 도덕성 및 도덕성 발달의 특성이 무엇이고, 도덕성은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 온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연구와 최근 교육 측정 및 평가 영역에서의 학문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지닌 도덕성을 과학적으로 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일부 사람들은 도덕과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도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면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학교에서 교과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운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일은 교과 교육의 개선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조난심, 1998: 282). 여기서는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도덕과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도덕과 평가의 본질

가. 도덕과 평가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평가가 학업성취도 및 도덕적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판정하는 자료로써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과 학습 진전 상황을 기록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덕과 평가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성 평가와 도덕과 학업 성취 평가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험 및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업 성취 평가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평가가 결국 도덕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덕성 자체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도덕과 교육내용이 학생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해되고 습득되었는가를 측정하려 한다면, 이러한 도덕과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입장은 몇몇 도덕 교과 전문가에 의해서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조난심(1998: 269-272)은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잴 수 있어야 하는데(즉, 단순히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에 대한 가치화·조직화·인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덕적 사고능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여전히 선발 이데올로기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은 도덕과 평가의 대상을 ‘학습을 통해

도달시키고자 하는 ‘도덕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 평가의 접목을 시도하는 수행평가가 아니고서는 지·정·의의 통합적 도덕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추병완(2005: 244)의 주장 또한 도덕성 평가를 중시하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병열(2003: 441-442)의 경우, 도덕과 평가는 도덕과 수업을 통해 획득된 것은 물론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도덕 학습의 결과 이루어진 현재의 도덕 발달 정도를 측정하여,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더 나은 도덕적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는 도덕과 학습 지도의 목표, 내용, 방법, 과정, 자료 등 제 요인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해 가는 과정과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에, 도덕과 평가의 본질은 결국 도덕과 교육을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도덕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도덕과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데 두어져 있다. 그런 이유에서 도덕과에서 평가 결과는 기록,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도덕과 평가의 관점

나. 도덕과 평가에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한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등을 평가한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의 내면화 등을 평가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실천과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한다.

인지적·정의적·행동적으로 통합된 도덕적 인간 형성을 교육목표로 삼는 도덕과에서는 지적인 발달이나 성취 못지않게 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의 내면화 등 정의적 특성의 계발과 도덕적 가치·규범의 실천 및 습관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도덕성은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이 잘 조화된 전체로서의 ‘인격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덕성을 구성하는 각 영역이 독립적 내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영역을 병렬적으로 합치면 된다는 식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떼어놓고 각각의 영역을 별개의 평가방법과 준거에 의해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식의 평가를 지향한다면, 통합된 전체로서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 무엇을 평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도덕과에서 환원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적·정의

적·행동적 영역이 잘 조화된 전체로서 ‘통합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평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도덕과 평가의 기준

다.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교 급이나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덕목 및 도덕규범의 이해, 도덕적 문제 해결,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실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980년대 이후 도덕 교과 전문가들은 도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조난심·정재걸(1985: 60)은 도덕과의 새로운 학습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구 분	평가의 기준	정 도
도덕적 열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사태에 대한 민감성 ◦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민-둔감 ◦ 적극적-소극적
도덕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사태 파악의 정확성 ◦ 도덕 규범의 이해 정도 ◦ 원인 분석 범위의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부정확 ◦ 높은 수준-낮은 수준 ◦ 포괄적-편협적

위의 표에서 구분된 도덕적 열정성은 도덕성의 지적 혹은 합리적 측면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어떤 특정한 도덕적 사태(문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정서적 반응, 행위, 경향성 등을 통칭하는 뜻이 있다. 도덕적 열정성은 ‘도덕적 사태에 대한 민감성’과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하였다(교육부, 1999: 224). 반면에, 도덕적 합리성은 도덕적 사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도덕성을 뜻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도덕적 사태 파악의 정확성’, ‘도덕적 규범의 이해 정도’, ‘원인 분석의 포괄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특성은 도덕적 평가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서, 특정한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의 반응이 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한편, 정세구(1986)는 국립 교육 평가원에서 실시한 정의적 영역 평가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정의적 영역의 교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9: 225).

목표	평 가 기 준
바람직한 가치-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합의를 이룬 가치에 대한 감지와 관심 정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합의를 이룬 가치의 수용을 위한 의무감 및 확신 정도
합리적 가치-태도	가치-태도의 합리성 추구에 대한 관심과 가치문제를 파악하는 정도
	결정한 가치의 타당한 근거 확립 정도
	가치-태도에 나타난 허심탄회함과 타인의 가치-태도에 대한 감정 이입 및 관용 정도
바람직한 합리적 행위	행위의 신념과의 일치하는 정도
	신념에 따르는 행위의 실천 정도

위의 표에서, 정세구(1986)는 바람직한 가치·태도, 합리적인 가치·태도, 바람직한 혹은 합리적인 행위로 목표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도 조난심·정재걸(1981)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처럼, 도덕과 평가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서, 신념과 사고력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까지 관심을 확대해 본 것이다.

또한 차우규(차우규·추병완·신현우·정창우·황인표, 2000: 17-18)는 블룸(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인지적 영역」과 크래쓰웰(Krathwohl), 블룸(Bloom), 매시아(Masia)의 「교육목표분류학: 정의적 영역」을 토대로 도덕과에서의 평가 기준을 각각 분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	수준(낮음 → 높음)
감수 단계	가치에 대한 감지
반응 단계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관심, 합리적인 가치 추구에 대한 관심
가치화 단계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의무감,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 및 확인 정도
조직화 단계	타인의 가치에 대한 관용, 자기 가치에 대한 허심탄회함
인격화 단계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 의지 및 삶의 철학으로의 확립

최근 정창우(2007: 705-709)는 콜버그, 셀먼, 리코나, 호프만, 레스트 등에 의해 제시된 도덕성 발달 이론과 크래쓰웰, 블룸, 매시아의 「교육목표분류학: 정의적 영역」의 관점,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도덕과 평가의 기준을 고려하되, 인지·정의·행동적 차원의 통합적인 형태로 도덕과 평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교수 및 평가 목표 (위계적)	중점 평가 준거 (평면적)	중점 지도 학교급·학년
인격화 (characterization) ↑	도덕 정체성(moral identity) 사회 지향적 관심 (socially oriented concerns) 자율성(autonomy)	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
가치조직화 (values organization) ↑	도덕 민감성(moral sensitivity) 차별화(differentiation) 정당화(protection) 개방성(openness)	중학교 저학년
성찰적 내면화 (introspective internalization) ↑	숙고(deliberation) 역할채택(role-taking)& 공감(empathy) 자기반성(self-reflection)	초등 고학년
능동적 습관 형성 (active habituation) ↑	이해(understanding) 존중(respect) 역할기대(role-expectation) 만족(satisfaction)	초등 저학년 및 중학년
소극적 순응 (passive obedience)	순종(obedience) 수용(acceptance) 선택(selection)	학령 전

○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 주관성 확보

라.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평가에서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이란 도덕과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평가 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취기준형(achievement standards)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고, 채점기준표(rubrics)를 활동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되 되도록 학생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며, 도덕과 특성 및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은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진술형태였지만, 성취기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에는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도덕적 지식·가치·성향·능력, 그리고 핵심적인 학습 내용 및 도덕적 탐구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성취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좁게는 한 학교 내에서, 넓게는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수행평가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표가 활동 전에 미리 공개되거나 교사와 학생 간의 합리적 소통을 거쳐 채점기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채점기준표(rubrics)란 ‘수행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을 구별해내기 위한 일련의 지침(Wiggins, 1995)’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채점기준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작품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준거와 수행 기준을 제시한 준거 척도이다. 이처럼 채점기준표는 학습자에게 반응의 구체적 방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평가지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채점기준표 개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평가 기준에 대해 동의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서 성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동기 유발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고 평가와 교수·학습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원목적 분류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에서 문항 개발을 위해 교사들 상호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체계적인 문항 개발 개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원목적 분류표는 출제 교사 상호 간의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원목적 분류표는 각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측정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 요소’와 그 내용을 어느 능력 수준에서 측정하는가를 보여주는 ‘행동 목표’로 나누어 보여줌으로써 검사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다(김재춘 외, 2006: 25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윤리과에서 활용하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행동내용	행동목표	개념·원리의 이해	문제의 인식	탐구의 설계 수행	자료의 분석 해석	결론 도출	가치 판단

이와 같은 ‘이원목적 분류표’는 고등정신능력을 재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지만,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들은 교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동시에 행동 목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결국 도덕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틀로 활용될 수 있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검사 상황

에서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라 행동 목표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평가를 하는 교사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거처 행동 목표의 구성방법이 결정되고 또한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이원목적 분류표를 구성하는 것도 도덕과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덕과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마. 도덕과 평가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 구술·논술 평가, 포트폴리오(portfolio),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도덕성의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특히, 도덕과의 논술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 교사가 평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능력이나 태도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도덕과 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평가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또한 특수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기본 틀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춘 외, 2006: 231 참조).

① 평가의 목적 확인 ⇒ ② 평가영역과 내용의 선정 ⇒ ③ 평가방법의 결정 ⇒ ④ 평가도구의 선정과 개발 ⇒ ⑤ 평가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⑥ 평가환경의 구축 ⇒ ⑦ 자료의 수집 ⇒ ⑧ 자료의 분석 ⇒ ⑨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 ⑩ 평가결과의 보고 ⇒ ⑪ 평가결과의 활용

이처럼 도덕과 평가의 기본 절차에 해당하는 매 단계의 중요성을 일단 인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도덕 선생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도덕과 교사의 가장 심각한 고민 또한 당연히 ‘어떤 평가도구가 평가목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인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에 ‘도덕과 평가도구의 선정 및 개발’은 11단계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고려될 수 있다.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도덕과 수업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재려면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통합성을 추구하는 도덕과의 평가는 가능하면 하나의 평가도구를 통해서도 통합적 도덕성을 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도구는 각각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중 특히 어느 하나의 요소를 평가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평가도구가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도덕적 가치 및 규범의 의미와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와 같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형(진위형, 배합형, 선다형)과 서답형(특히 단답형 및 완성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도덕적 가치판단 능력 및 추론 능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을 평가하려면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문항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가치 및 태도의 내면화 정도 혹은 실천 성향 및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수행형 평가가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도덕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강조되는 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순근, 2000: 48).

도덕과에서 수행평가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정창우, 2007년: 735-737). 첫째, 수행평가는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의 일부 지적 요소만을 평가해 온 도덕과 평가의 현실을 개선하고, 환원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도덕성 및 인격의 발달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공조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수행평가는 도덕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드높여 줄 수 있다. 셋째, 수행평가는 시험(test)인 동시에 활동(activities)이 될 수 있으므로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쇄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수행평가는 도덕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행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검사 및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토론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portfolio)법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들은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

- ① 서술형 평가 혹은 논술형 평가란 영어의 에세이 테스트(essay test)를 번역한 것으로, 흔히 ‘주관식 평가’라고 하기도 한다. 도덕과에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의 활용상 의의는 무엇보다 도덕적 추론 및 실천적 지혜와 같은 도덕적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 입장채택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평가, 확인과 다짐을 통한 도덕적 실천의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도덕과 교사가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작문 능력만을 중요한 평가 관점으로 고려한다면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는 더는 도덕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정창우, 2007년: 739).

- ② 구술시험은 종이와 붓이 발명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가장 오래된 수행평가의 한 형태

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교육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 ③ 토론법은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다.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제나 개인적,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충실성과 사고의 논리성, 다른 의견에 대한 태도 등을 여러 관점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인별 찬·반 토론을 벌이거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각 개인의 지도력, 수용력, 사회성,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 등 지적 능력과 정의적 태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 수가 많으면 개별 학생들이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 ④ 면접법이란 구술시험과 더불어 언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도덕과에서의 면접법은 학생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의 도덕발달에 관한 심층적인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지필 검사나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법 등을 통해 충분히 알기 어렵거나 그것들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의문이 있다든가 그것을 더욱 깊이 추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유병열, 2003: 491).
- ⑤ 관찰법은 교사가 일정한 평가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실의 구체적인 기록을 근거로 학생의 도덕적 성장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유병열, 2003: 511). 이 방법은 관찰한 바를 어떻게 기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통 자유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세구, 1988: 125).
- ⑥ 연구 보고서법이란 도덕 과목과 관련 있거나 범교과적인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덕과에서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도덕적 숙고 및 도덕적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삶의 현장 및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종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정창우, 2007년: 751).
- ⑦ 포트폴리오(portfolio)법이란 보통 자신이 쓰거나 만든 작품을 누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이용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백순근, 2000: 113). 특히 도덕성의 발달은 일회적인 경험이나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위대한 것에 대한 습관적인 대면'이나 '지속적인 자기점검 및 반성'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면, 도덕과 평가에서 포트폴리오는 다른 어떤 평가도구보다 도덕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정창우, 2007년: 753).

○ 도덕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바.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생 평가만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가 되도록 한다.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생 평가만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도덕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가 되도록 한다.

이처럼 도덕과 평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종국적으로 도덕과 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와 관련된 제반 활동이 도덕과 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과 교사가 학생 평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도덕과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동기를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정의한다면,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평가 능력은 평가활동을 하기 위해 핵심적인 필수 능력, 즉 기본 능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해력’ 또는 ‘평가 소양’이라 할 수 있다(김수동, 2005: 14). 따라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도덕적 인간 형성을 평가의 목적으로 삼는 도덕과 교사에게는 다른 교과 교사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역할과 책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평가 소양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 평가 전문성과 더불어 도덕과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기평가나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주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는 결국 도덕과 수업을 통하여 달성되고, 그 달성 정도에 따라 도덕과 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해 세심한 계획이나 설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V. 도덕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과목 체계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3~10학년) 「도덕」과 고등학교(2,3학년)선택과정 「시민윤리」(일반선택),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심화선택)로 구성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3~10학년) 「도덕」과 고등학교(2,3학년)선택과정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로 구성	○ 선택과정의 구분을 없애고, 「시민 윤리」 대신 「현대생활과 윤리」 추가
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제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제 나. 학년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기본 체제 유지
성격	○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 ○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의 강조 ○ 학제적 접근 시도	○ 자신의 바람직한 삶과 우리 사회와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교과 ○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 강조 ○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적 접근 활용	○ 도덕과의 정체성 부각 ○ 보편윤리 강조 ○ 핵심 강조 영역 표시하지 않음
목표	○ 일반 목표와 생활 영역별 목표를 제시 ○ 목표를 학습자 위주로 진술 ○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중시	○ 교과목표(총괄 목표와 하위 영역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구분 진술 ○ 목표를 학습자 위주로 진술 ○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중시	○ 학교급별 목표의 신설 ○ 내용 영역별 목표 제시
내용영역	○ 생활영역 중심으로 설정	○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가치관계의 확장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구분	○ 내용 영역 구분의 논리 신설
내용체계	○ 1개 학년에 2개의 대영역만을 다루도록 구성함으로써 내용의 중복이나 지루함을 피함.	○ 각 학년 모두 4개 영역을 다루되, 주제를 다양화하여 중복을 피함.	○ 내용 체계 조정
내용구성	○ 도덕적 덕목 중심의 구성 ○ 초등학교 도덕과와의 연계성 강화 ○ 소영역 내용 체계 진술에서 목표와 내용이 결합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제재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이념의 구현	○ 도덕적 주제 중심의 구성 ○ 초등학교의 연계만이 아니라 차별성 부각 ○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 함양과 가치판단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는 내용 구성 ○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	○ 내용 선정 원리 변경 ○ 학년별로 다루는 주제의 수 및 비중 차별화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됨. ○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 강조 ○ 도덕실 수업의 적극적 권장 ○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가정교육 등과의 연계적 노력 강조 ○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함. ○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할 것을 권장 ○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강조 ○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사 상호간의 공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됨. ○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 및 다양한 실천적 방법 적용 강조 ○ 체험 학습실(도덕실) 및 교과교실 수업의 적극적 권장 ○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가정교육 등과의 연계적 노력 강조 ○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함. ○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할 것을 권장 ○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 판단 능력 및 가치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강조 ○ 지역성과 시사성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교과서 포함)의 개발과 교사 자신이 모델링이 되는 특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실과 더불어 교과교실 수업 적극 권장 ○ 논술법 등 도덕적 판단 및 가치판단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 ○ 지역성과 시사성 있는 교과 교재의 활용 강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강조 ○ 인지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를 언급 ○ 정의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언급 ○ 행동적 영역의 평가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 ○ 수행 평가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 목표에 맞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 ○ 평가를 수업 개선과 학생 이해 및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강조 ○ 영역별, 학교 급별(학년별) 평가의 준거를 제시 ○ 초등과 중등 저학년에서는 덕목 및 규범의 이해, 도덕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등 고학년에서는 특히 인지적 측면은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 자료 분석 및 해석 등 행동 유형 분류를 고려하여 평가 ○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목표에 맞게 수행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되, 특히, 논술 및 서술식 평가의 적극 권장 ○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피드백 권장 ○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별 및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별하여 평가의 강조점을 설정함 ○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형 내용 진술활용을 권장 ○ 논술식 평가의 적극 활용을 권장 ○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 제시

사 회

곽 원 규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권 종 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신 선 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이 정 우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박 진 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은 지 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 은 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 향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 정 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 의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왕 근 (춘 천 교 육 대 학 교)
김 태 웅 (서 울 대 학 교)
서 태 열 (고 려 대 학 교)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II.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II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IV.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사회〉

〈역사〉

1. 성격

1. 성격

2. 목표

2. 목표

3. 내용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5. 평가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교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까지 제시한 문서로서,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자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을 적절한 시점에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교육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게 되고, 너무 자주 개정하게 되면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해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1.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준거이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21세기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진전, 지식 정보 사회의 가속화, 개방화 및 다원성의 추구 등 시대적 상황과 사회 환경의 변화 모습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더욱 큰 정치·경제적 단위로 묶여 가면서 삶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달이 촉진됨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진전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지식 정보 사회로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생활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관련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계화 및 개방화 등과 같은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사회 내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드러나면서 배타적인 동질성과 획일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이질적인 문화의 독특성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국가·사회적 요구

국가 수준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지침이므로 개정 교육과정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사회적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첫째, 세계화 및 지식 정보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세계화 및 개방화 현상 등이 가속화함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및 지식 정보 사회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역사 교육 강화,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의 국가·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과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회과의 쟁점 및 문제점 개선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 환경의 변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의 반영과 더불어 그동안 사회과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별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되 일부 단원을 영역 간 융합형 통합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영역 내 통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각 영역의 개념 체계가 교육적으로 변환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어 통합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간 통합보다는 영역 내에서 교육 내용의 통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역 내 통합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결합하여 역사로 과목 독립을 하여 교육과정 내용 구성 체계에 반영하였다.

셋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이 과다하고 어려워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유사 및 중복으로 말미암은 내용 과다, 추상적인 내용과 소재의 구성,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대한 고려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사회과의 학습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의 양과 수준 측면에서 적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진술 체제 측면에서 내용 진술의 수준이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있어서, 교과서 개발 및 교실 수업 수준에서 기대되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한되고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에 주제명과 주제 안내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소주제명은 삭제함으로써 대강화하고 있다.

Ⅱ.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1.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

한국의 사회과는 1946년 미군정 하에서 미국 콜로라도 주의 Social Studies를 교수요목에 도입함으로써 성립하였다. Social Studies를 ‘사회생활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역사, 지리, 공민, 실업을 망라한 교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내용으로 하였다. 1, 2, 3학년에 걸쳐 공민, 역사, 지리 영역으로 나누어 조직되었으며, 목표도 공민, 역사, 지리로 나누어 진술되어, 이른바 ‘川’자 형의 배열을 이루었다. 특히, 역사와 지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세계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다.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의 교육과정 제정·공포에 따라 사회과의 시수, 목표, 내용이 정해졌다. 새로 제정된 사회과(사회생활과)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에 비하여 지적 체계를 존중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Social Studies가 표방하는 진보주의 교육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제1차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주된 교과로서의 역할과 광복 이후 국가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여러 지식의 덕목을 사회과 교육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보려는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 2, 3학년에 걸쳐 역사, 지리, 공민으로 나누어 조직되고 있어, 이른바 ‘川’자 형의 3분법이 공식화되었다. 편제상의 분과와 함께 목표 진술 역시 부분별로 이루어졌으며 시간 배당, 지도 내용도 부분별로 제시되었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1963년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목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학생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인 경험 중심 또는 생활 적응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했고,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을,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했다. 편제 면에서 볼 때 우선 교과와 명칭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뀌었고, 사회생활과 내의 반공·도덕 내용이 ‘반공·도덕 생활’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 이수 시간도 이전 교육과정보다 축소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지리, 역사, 공민의 내용을 학년별로 체계화한, 이른바 ‘三’자 형의 내용 선정과 배열이 이루어졌다. 즉 1학년에 지리, 2학년에 역사, 3학년에 공민을 중심으로 사회과의 본질을 살피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인간 및 사회 현상에 대한 공간적 이해, 시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내용 면에서 볼 때 1학년은 지역 확대법에 따라 향토, 각 지방, 우리나라 전체, 세계의 각 지역, 세계 전체, 세계와 우리나라로 구성되었으며, 국토 이해, 애향심과 애국심, 자연의 개발과 이용, 국제 협력, 지역성 등이 강조되었다. 2학년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사에 걸쳐 국사와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합쳐져 제시되었는데, 국사 교육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차후 단계에서 국사과가 독립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3학년은 인간과 사회생활, 민주 정치, 경제생활, 문화와 사회 문제, 국제 관계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민주 사회생활의 원리 이해, 반공, 당면 문제의 해결, 국제 협력 등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생활 경험 중심’을 표방하였지만 오히려 이전의 교육과정보다 생활 경험이 적게 제시되었으며 사실적,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 많았다.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0)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방향 측면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 교육의 방법적 원리 측면에서는 학문적 접근 방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의 조화라는 사회과 교육의 과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교육과정이 되었으며, 여러 면에서 한국화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의 이해, 지식의 구조적 학습, 탐구 방법과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의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과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교육 내용 전체를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여 현대 사회의 이해를 추구하였고, 사회과학 제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면서, 이전부터 있었던 민주적, 세계 시민적 인간 형성의 관점에서 국민적 문제와 자세를 더욱 강조하였다. 목표 면에서는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한국인의 육성에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라는 종합 교과로서의 틀 아래에서 1학년에 지리, 2학년에 역사(세계사), 3학년에 공민을 편성하여 제2차 교육과정의 이

른바 ‘三’자 형의 구조를 유지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지식 그 자체보다도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신장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의 선정이나 배열에서 사회과학의 개념이나 법칙, 원리를 통해 구조화하기보다는 제반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를 직접 도입하고자 했다. 편제상으로는 반공·도덕 생활이 도덕과로 국사 영역이 국사과로 독립되어 나감으로써 분리, 해체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학문 중심과 같은 교육과정 관점 상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과는 사회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의 확립, 전인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 내용의 선정, 초·중·고의 특성 및 계열성의 확립, 내용량과 기준의 적절성 고려, 체계적인 국사 교육을 위한 계속적 보완 등이 개정의 방향이었다.

중학교 사회과에서 구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보다 통합을 위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의 배열에서 공민, 역사, 지리 분야를 ‘川’자 형으로 1~3학년에 걸쳐 편성한 제1차나, ‘三’자 형으로 각 학년에 한 분야씩 학습하도록 하던 제2, 3차의 것과는 다르게, 1학년에 공민과 한국 지리를, 2학년에 세계 지리와 세계사를, 3학년에 세계사와 공민을 배치함으로써 한 학년에 2개 영역을 편성하였다. 이는 영역 간에 관련되는 학습 내용을 같은 학년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상관형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적 요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다양한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였고, 특정 사조나 이념을 표방하지 않고 사회 기능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사회 재건 및 미래 중심의 접근이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에서 많이 논의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온 탐구 활동의 중시,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학년별 영역 배분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습 영역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학년에서는 지리와 세계사 영역, 2학년에서는 세계사와 공민 영역, 3학년에서

는 공민과 지리 영역으로 구성하여 공간 의식, 시간 의식, 사회 인식 및 사회 경험으로 심화하도록 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2개 영역 간의 통합은 학년별로 통합되는 영역이 달라졌을 뿐이고,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는 미미했고 단지 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 기계적으로 두 영역을 묶은 것에 불과했다.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가 통합적 성격을 더욱 강력하게 추구하였는데, 편제 면에서 국사 영역을 사회과로 복귀시켰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형 과목인 ‘공동 사회’가 나타났다. 내용 배열도 통합을 더욱 강화하면서 계통적 학문 체계에서 탈피시켜 실생활 경험과 사회 문제 중심으로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시도하였다. 교과와 총괄 목표에서는 사회 인식 교과, 시민·국민 양성 교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사회 인식 면, 시민·국민 양성면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같은 기능 면이 보장되었다. 영역별 목표를 더 구체화, 상세화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성격 차이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었다. 동시에 모든 과정에 걸쳐 사고력과 학습 방법, 학습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인식을 기초로 과학적 사회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신장, 민주 국민으로서의 주인 의식, 합리적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의 육성,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내용은 공간(지리)과 시간(역사) 관련 현상을(주로 1, 2학년에서) 동시에 인식한 다음에 사회 구조 및 문제를(주로 2, 3학년에서) 학습하게 하는 π 자 형의 구조가 되도록 조직되었다. 그리고 생활 주변의 사회 현상 파악으로부터 각 지역, 국가, 세계의 사회 현상 파악 및 문제 해결 내용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체계를 이루어 초등학교의 지평 확대와 연계시켰다.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 차별화하여 교육과정 체제 및 편성·운영상의 큰 변화를 도모하였다. 21세기의 변화에 대비할 시민적 자질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학습 과정의 이원화,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 신설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학습 과정의 이원화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년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구분을 의미한다. 10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년제로, 11, 12학년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단위제로 운영됨으로써 학제 개편을 염두에 둔 학습 과정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

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학습자의 흥미, 관심, 적성,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 방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과를 포함한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재량 활동이 초등학교에서 확대되고, 중등학교에서는 신설되었다. 한편, 사회과에서는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 통합성과 내용 학문 간 계통성 조화를 추구하고 교육과정 지역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 체계의 측면에서는 사회 현상 인식과 사고력 신장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 체계의 측면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그리고 평가의 측면에서는 수행 평가를 강조하였다. 내용 선정은 1학년에 지리와 세계사, 2학년은 세계사와 일반 사회, 3학년은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을 융합한 내용 체계로 구성하였다. 한편 사회의 민주화 및 다원화와 함께 다양한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사회 교과서에도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Ⅲ.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1. 개정의 기본 방향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번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변동과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과 교육 내용의 계열화를 도모하고 학습 내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회과 교육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였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이 성격, 목표, 방법,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저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 ① 성격, 목표, 방법, 평가의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 ② 범주별로 유목화하여 각 항목으로 제시
- ③ 주제명과 주제 안내 및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소주제명은 삭제
- ④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내용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둘째, 내용상 사회 변동, 시대 상황, 국가·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범주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사회과와 관련해서는 지식 정보 사회와 세계화의 진행에 대한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 교육 강화, 경제 발전이 가속화하여 가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는 생활경제 교육,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법 교육,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제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역사는 역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과목으로 독립하였다.

셋째, 교과별 학습량 및 수준의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은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적정화, 중복성, 연계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

셋째, 개정 교육과정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성격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목표에서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내용에서는 학년별 교육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학습 분량을 적정화하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습자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발문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을 권장하였다.

평가에서는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영역별로 볼 때 지식 영역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IV.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사 회>

1. 성 격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교과와 개념 및 최종 목적,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전략 및 강조점, 학교급별 특성 등을 서술하고 있다.

가. 사회과의 개념 및 목적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사회과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과라는 점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고르게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인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과의 목적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다.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나아가 개인·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과 개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을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

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대상인 학습 요소는 사회 과학을 비롯하여 인문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연구 방법 및 절차, 사회 문제 및 쟁점과 관련 가치·태도 등이다. 이들 학습 요소를 지식, 연구 방법과 절차, 가치·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과 관련된 학습 요소로는 역사, 지리 및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해야 할 사회의 기능적 요소, 현대 사회의 문제와 쟁점에 대한 지식, 미래 사회에 대한 지식 등이다.

둘째, 연구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학습 요소는 설문 조사, 현장 답사, 참여 관찰, 사료 학습, 사례 학습 등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에 기초한 탐구 방법에 관한 요소를 비롯하여 사고 과정, 문제 해결 절차, 정보의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치·태도에 관한 요소에는 인권 존중, 자유, 평등, 사회 정의, 참여, 책임감, 의무, 협동심 등 사회생활 각 분야의 당위적 가치와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용, 타협, 연대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과 체계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는 것과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여긴다.

이러한 학습 요소들은 교육과정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사회과 교육 내용의 체계를 이룬다.

다. 교수·학습 전략 및 강조점

사회과 성격에서는 사고력과 의사 결정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는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탐구해 가는 학습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고와 판단을 강조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논리적 사고를 비롯하여 반성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가치 판단, 의사 결정 등을 신장시키고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발견 학습,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가치 명료화 및 가치 분석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등 각 영역의 내용을 학습하는 데 적합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다양한 사고력의 신장을 위하여 학습자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질적·양적 또는 주관적·객관적 관점이 고려된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회 현상은 시간적·공간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회과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사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 실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 다루어야 한다. 교재의 지역화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사회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그 근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라. 중학교 사회과의 특성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따라 발견·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연계성과 학교급별 강조점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사회과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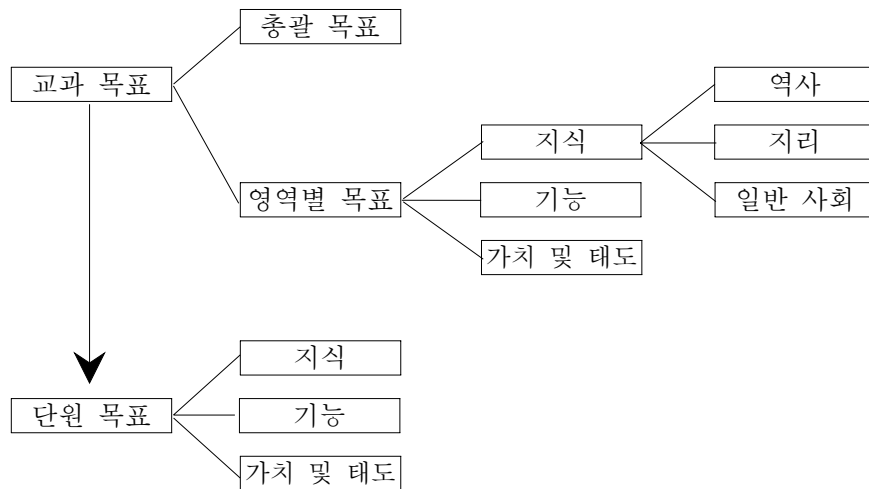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중학교 사회과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절차에 의한 지식의 발견과 적용 및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어 고등학교에서 학습할 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고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진 인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목 표

가.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

사회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목표는 위계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 목표, 학교급별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가 존재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목표가 삭제되어 교과 목표, 학교급별 목표, 단원 목표로 단순화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목표가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교과 목표와 단원 목표만이 제시되었다. 교과 목표는 다시 총괄 목표와 항목화된 영역별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단원 목표는 ‘학년별 내용’에서 단원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문단의 형태로 제시하였

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과 목표와 단원 목표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교과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지만, 단원 목표는 내용상의 변화에 따라 서술 형태가 달라졌다. 즉, ‘학년별 내용’에서 단원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문단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 대단원 아래의 소주제가 삭제된 관계로 단원 목표가 더 상세하게 진술된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사회과의 목표 체계도

사회과의 교과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내재한 기본 정신에 비추어 사회과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과 목표의 형식상 특징은 총괄 목표와 영역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과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목표로 설정된 점이다.

나. 총괄 목표 제시 및 설명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사회과 총괄 목표는 사회과의 다양한 목표 요소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하고 있으며, 국

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목표 요소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생활에서의 참여 능력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자의 목표 요소로는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이 제시되고 있다.

총괄 목표에 나타난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 이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생활에서의 참여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요소와 궁극적인 목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표> 총괄 목표에 나타난 목표 요소

1차적 목표 요소	2차적 목표 요소	궁극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지식과 능력 ◦ 기본 개념의 탐구 능력 ◦ 우리 사회의 제반 특징 이해 ◦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 ◦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 ◦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현실 이해 ◦ 정보 활용과 문제 해결 능력 ◦ 사회 참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발전 및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사회과 교육에서 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강조하는 바를 고찰하면, ‘민주 시민 자질 육성’은 사회과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오늘날 사회과 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참된 민주 시민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 추구를 국가의 이상이나 목표와 조화시켜 나가는 시민인 동시에 인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세계 시민임을 강조한 것이다.

‘기초적 지식과 능력’ 및 ‘기본 개념과 원리의 탐구 능력’은 학년 수준에 따라 차례로 강조되어야 할 요소이다. ‘탐구 능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 개념의 탐구 능력을 기르고, 2차적으로는 이를 강화하여 기본 원리들의 탐구 능력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식과 능력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현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와 세계의 이해’ 요소도 1차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는 목표가 추구하고, 2차적으로는 세계의 여러 현실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목표가 추구될 것이다.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복

잡, 다양화되고 정보화됨에 따라 유능하고 합리적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관계 역시 정보 활용 능력이 1차적인 목표 요소라면, 이를 강화시킨 문제 해결 능력은 2차적인 목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 혹은 ‘사회 참여 능력’이 차례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 표를 보면, 사회과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대로 ‘기초 지식과 기능’ 목표가 ‘시민적 자질의 육성’ 목표에 앞서 제시되어, 전자가 후자의 수단이 되면서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극단적으로 규범적이고 이념적인 시민적 자질만이 강조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의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회 인식의 형성을 위하여 기초적 지식과 능력,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탐구 능력, 다양한 정보의 활용 능력이 강조되어, 지식 및 탐구 방법의 이해가 사회 인식의 기본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종래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국민적·민족적 자각과 신념의 육성’이 배제되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시민적 자질’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가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하위 목표 제시 및 설명

-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 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 라.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에 비추어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 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 바.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영역별 하위 목표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항은 역사, 지리, 사회과학의 상호관련

하에 통합적 관점을 강조한 목표이며, 이하의 항목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특성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 영역별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즉, 영역별 목표는 1개 항의 교과 특성과 관련된 목표와 5개 항의 행동 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항은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학습 내용인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항은 ‘지리’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와 삶의 터전 또는 생활 무대가 달라진 데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자연 환경적, 인문 환경적인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고장, 지역, 국토를 비롯하여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규모에 따른 학습의 계열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 항은 ‘역사’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각 시대의 특색’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은 ‘우리 문화와 민족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항은 ‘일반 사회’ 영역과 관련되는 목표로서 제 사회 과학과 관련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대 사회의 성격 및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 항은 기능 영역의 목표로서, 지식 영역의 전 목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길러야 할 기능 또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현상과 문제란 역사, 지리, 제 사회과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며, 어느 지식 영역의 학습에서든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의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등은 모든 지식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이해와 함께 추구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 항은 가치·태도와 관련된 목표로서 사회과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와 ‘민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는 역사, 지리 및 사회 과학의 모든 지식 영역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별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항목	영역	핵심 요소
가	지식(통합)	◦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의 통합적, 체계적 이해
나	지식(지리)	◦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의 이해 ◦ 삶의 터전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이해 ◦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이해
다	지식(역사)	◦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파악 ◦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 이해 ◦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 파악
라	지식(일반 사회)	◦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 이해 ◦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의 기본적 원리의 이해 ◦ 현대 사회의 성격과 사회 문제들의 파악
마	기 능	◦ 지식과 정보의 획득·조직·활용 능력 ◦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참여 능력,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바	가치·태도	◦ 민주적 생활 태도 ◦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3. 내 용

가. 내용 선정의 기준

2007년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앞에서 진술된 개정의 방향과 교과 목표를 실천하고자 학습자 측면, 학문·철학적 측면, 사회·국가적 요구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선정하였다.

(1) 학습자 측면에서의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사회과 학습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유발, 학습자의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학습자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경험·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사실과 문제 및 주제를 내용으로 선정하여 지식과 생활 경험의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 탐구 지향적 학습, 학습자의 능동적 지식 형성 과정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에 관한 내용을 선정한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현상 이해를 위해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선정한다.

(2) 학문·철학적 측면에서의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사회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한다. 즉,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개인과 사회의 문제, 쟁점, 과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 사회 문제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유용한 핵심 개념 및 원리에 관한 내용을 선정한다.

셋째, 사회과 학습의 유용성, 적합성, 적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생활 중심의 지식과 사고 기능, 학습 기능, 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넷째,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사회과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치문제를 함축한 쟁점과 의사 결정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선정한다.

(3)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내용 선정의 기준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화와 개방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족 통일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자 저출산 및 고령화, 지식 정보 사회, 참여 민주 정치 등의 내용을 다루어 미래사회 예견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셋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역사, 경제, 생태적 관점, 세계 이해, 민족 문화의 정체성, 진로 교육 등 국가·사회 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러한 내용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에서는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선정하였다.

지리 영역은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의 연계와 학습 대상 사례 지역이나 국가 수의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내용을 선정하였다.

역사 영역은 국사의 경우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되, 정치사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세계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망라주의를 탈피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은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학문의 지식 구조를 고려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나. 내용 조직의 원리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내용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중점,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조직하였다.

첫째, 학교급의 성격, 학문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융통적인 통합 방식을 적용하였다. 영역 내 통합을 지향하여, 지리는 한국지리와 세계 지리의 통합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국과 세계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도록 하였으며, 역사는 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사와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사회는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의 통합을 위해 하위 영역별로 주제 중심의 통합 단위 구성 및 스트랜드 관점을 결합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들 간의 위계와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 발달, 학습준비도, 사회적 경험, 사회기능 등을 고려하는 환경 확대 방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시간적·공간적·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자기 생활 주변의 사회 현상 인식에서 각 지역, 국가, 세계의 사회 현상 인식 및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계적인 지평확대법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지리 영역의 내용 조직은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상세화 하였으며, 지역을 세계적 시각에서 국가를 고찰한 다음에 한국의 주요 지역을 살펴보는 순으로 구성하여 세계적 수준에서의 지리적 패턴을 파악하고, 학습 대상 사례 국가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는 지역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사회과 관련 학문의 기본 개념을 구체적 사례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회 인식을 누적적으로 발달시키도록 구성하되,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회 과학 개념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대 인식·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사회 영역은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계열화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사례 이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과 교육의 통합성과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 배경 학문의 계통성 간에 조화를 추구하였다. 지역·국가·지구적 내용 간의 균형 및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내용 간의 균형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과 방법의 통합, 지식과 기능 및 가치의 통합을 통하여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역사, 지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를 학습자의 시간의식, 공간의식, 사회의식의 발달과 연계하여 배열하였다.

다섯째,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 등을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관심과 능력의 차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 체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7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는 세계 ○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 지역마다 다른 문화 ○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사회생활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우리의 생활과 법 ○ 인권 보호와 헌법
8학년	<p><한국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p><세계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 		
9학년	<p><한국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p><세계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개발과 이용 ○ 산업 활동과 지역변화 ○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 세계 속의 우리나라 ○ 통일 한국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시장 경제의 이해 ○ 국민 경제의 이해

라. 학년별 내용

【7학년】

(1) 내가 사는 세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국토 이해 및 세계 이해의 기초로서 우리가 사는 공간(지역-도시-국가)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심적인 내용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나라, 세계 각 지역이 세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치의 차이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생활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면적과 형태를 보이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역의 위치, 형태, 범위에 근거한 공간인식을 키워주고자, 자신이 사는 주변지역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국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수준에 맞는 공간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해 장황하거나 추상적인 기술을 피하고 간명하게 학습하도록 한다. 즉 세계 속에서 나와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 국가들의 크기나 형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한 다음,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나 위성사진,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한다. 실생활과 관련지어 우리나라와 시간 및 날씨가 다른 나라들이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정보를 개인생활에 활용하고 국가의 자연 환경을 이해하는 기초로 삼도록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다양한 면적과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의 면적과 형태들을 비교함은 물론 우리 국토와도 비교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국토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지구본과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 및 세계 주요 국가의 위치를 조사한다.

이 내용은 세계인식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하나의 국가단위의 지

역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 주요국가의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 국가가 우리와 비교하여 지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들 국가의 주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인지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리적 환경의 기초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리적 정보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② 세계 주요 국가의 면적과 형태를 비교한다.

국가의 면적은 국가의 자원과 국가의 잠재적인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 국가의 국토 면적은 그 국가의 발전 및 개발 잠재력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국가의 지리적 형태는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국가의 면적과 형태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③ 지도나 위성사진, 인터넷을 이용해 내가 사는 동네와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의 위치를 조사한다.

지도, 위성사진,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사는 도시의 위치를 국가적 공간 규모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리지식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된 존재감과 공간인식의 기초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다루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는 장소의 위치를 찾고, 우리나라 도시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국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토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IT(ICT) 활용수업이 되도록 한다.

④ 시간과 날짜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찾아 그 이유를 알아본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리적 지식을 갖도록 하고자, 특정한 장소 및 지역이 지구상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 장소 및 지역의 시간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에 따라 지구의 지표면에 특성이 부여되는 바,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표준시나 날짜변경선과 같이 우리의 생

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지리적 기준들이 설정된 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리적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한다.

⑤ 남반구에 있는 나라와 북반구에 있는 나라의 지리적 차이를 설명한다.

지구는 인간 활동의 무대이지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 공간이므로 지표공간에는 다양한 위치가 만들어지며, 지표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리적 구분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분 중의 하나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구분하는 적도인데, 이 구분에 따른 위치의 차이는 단순한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겨울이면 남반구에서는 여름이 되는 것처럼 지구에서의 보완적 위치에 따른 차이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관련되는 지리적 정보를 잘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반구 중심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가) 단원의 개관

세계의 기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후가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인구분포, 산업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만큼이나 다양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환경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을 세계 다른 나라의 기후와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과 우리나라의 차원에서 기후가 특정한 지역의 음식, 가옥구조, 농업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는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와 관련하여 인간이 입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 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전 지구에 걸쳐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고, 기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온과 강수량을 이용하여 그 차이에 따른 지역 간 생활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환경적인 특징을 대표하는 기후특성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의 영향으로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양식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자연 재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 재해에 대한 적합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세계 기온 분포도를 보고 기온이 대비되는 지역 간의 생활양식을 비교한다.

전 지구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온 분포의 양상과 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의 기온 분포는 반드시 위도와 일치하지 않고 위도, 수륙분포,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자연조건과 요인들이 차이가 나는 양상을 언급하더라도, 중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미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피하며, 전 지구에 걸친 기온분포의 양상 및 패턴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기온의 지역적 차이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특정한 지역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기후환경이 지역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말미암은 지역 간의 생활양식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세계 강수량 분포도를 보고 강수량 분포가 대비되는 지역 간의 생활양식을 비교한다.

세계 강수량의 분포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강수량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피하고 강수량 분포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기후환경이 달라짐으로써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적응하여 생활양식을 발전시키게 되므로,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 간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많은 곳과 적은 곳은 의, 식, 주 전반에 걸친 생활양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하여 자연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③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기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기후 인자들이 가진 특징들을 반영하여 고유한 기후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후특성은 우리나라 주민 생활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과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기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측면에서 대비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주민 생활 특징을 조사한다.

비(강우)와 함께 기후현상의 하나인 눈(강설)은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인간 활동에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 여가 활동과 축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산업용수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고립되고 인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 있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지역만이 갖는 주민 생활의 특성이 있게 되었다. 최근 과거에 눈에 의해 인간 활동을 제약받았던 지역들은 오히려 이러한 특성 있는 자연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설량이 많은 지역과 같이 기후환경이 인간생활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연 환경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⑤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한다.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자연 재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나타나기도 하고, 강력한 바람과 함께 태풍이나 돌풍이 발생하여 인간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국가에 인명이나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재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 재해의 극복방안을 찾는 태도를 기른다. 최근에 나타난 자연 재해의 특성은 자연적인 것보다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3)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가) 단원의 개관

세계에는 매우 다양하고도 독특한 지형 경관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주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절한 사례 지역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세계의 대지형을 이루는 산맥과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적 지식을 획득하고, 그밖에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과 하천에 대한 지리정보를 갖도록 한다. 또한, 지형 경관에 따른 자연 환경의 차이를 산지, 평야, 해안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자연 환경의 차이가 의, 식, 주를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표면의 지형 형성 작용 중 관찰 가능하면서도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획득하여 자연 환경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세계 각 지역에는 다양하고도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세계적인 차원

에서 지형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지형과 우리나라의 산맥 및 하천에 대한 지리적 정보 및 지식을 확보하여 이러한 지형적 특징들이 지역 간 인간생활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나라에서 산지, 평야, 해안과 같은 서로 다른 지형을 가진 지역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산,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인터넷 또는 시각 자료를 통하여 독특한 지형 경관을 살펴보고 세계 지형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독특한 지형 경관에 대한 여러 종류의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정리, 분류해봄으로써 지구 자연 경관의 다양성 및 세계 지형의 다양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즉 이 내용은 지형의 다양성을 통해 지구 자연 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학교 수준에서 대규모 지형이든 소규모 지형이든 형태의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형성원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② 세계의 대산맥과 대하천,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과 하천의 위치를 확인한다.

세계의 대규모 지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가 되는 대산맥과 대하천과 같은 세계 대지형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들 대산맥과 대하천의 분포, 형태, 위치들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지구환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리적 지식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 대한 기초적 이해 역시 우리나라의 주요 지형 즉 주요 산맥과 하천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산맥과 하천의 분포, 형태, 위치가 우리나라 자연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③ 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찾아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사한다.

지형과 관련한 재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양상은 화산, 지진과 같은 활동들인데, 이러한 활동에 노출된 지역들은 인간의 생존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지역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자연 환경을 지닌 지역들이 여전히 인간 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자연 재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 식, 주 등 생활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④ 산지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을 사례를 들어 지형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인간의 생활무대가 되는 지형은 산지-평야-해안에 이르는 연속적인 지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산지, 평야, 해안 지역의 지형은 다른 자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다른 자연 환경을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을 독특한 생활터전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지, 평야, 해안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모습, 지역 간 생활 모습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4) 지역마다 다른 문화

(가) 단원의 개관

문화는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환경이 지역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서로 다른 생활 모습과 다양한 문화경관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전파와 문화이식이 일어나 그 결과로서 유사한 문화지역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중학교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종교경관과 같은 특정한 문화경관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주민생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여 문화경관과 지역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하여 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문화경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를 지닌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스포츠, 영화, 예술, 지역 축제와 같은 다양한 하위 문화들에 흥미를 보이므로, 학습자가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을 보이는 지역 축제를 소재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파악한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제약을 받으면서도 자연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문화의 물질적

인 측면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물질적 측면은 정신적·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환경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세계에는 자연 환경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에는 다양한 여러 문화지역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마다 문화경관이 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련하여 인간 혹은 문화집단이 어떻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종교적 경관이 뚜렷한 지역을 사례로 그 지역의 주민 생활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문화경관 중 가시적으로 가장 뚜렷한 경관을 남기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종교적 경관이다. 종교는 문화경관 중 물질적인 상징경관을 가장 많이 남기거나 운영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체감을 제공하고 같은 정신세계를 공유하게 한다. 종교적 경관은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게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행동양식을 통일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주민들의 일상적 행동양식 및 일정한 생활양식을 형성시키게 된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경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을 사례로 하여 주민생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교적 경관이 두드러진 특정한 장소 및 지역에서의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이 다른 종교적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③ 문화 이식 또는 확산으로 인한 독특한 문화경관의 형성을 사례 지역을 통해 설명한다.

독특한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을 사례로 그 문화경관이 주변지역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도록 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어떤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와 다르게 독특한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장소 및 지역을 사례로 이러한 경관이 형성되는 원인 중 문화이식과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경관의 변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전파된 문화는 어떻게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그러한 경관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하나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른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다양한 문화 축제를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다양한 지역의 문화축제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특정한 문화는 지역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문화축제들은 그 지역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지역의 특성들을 잘 반영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문화축제

속에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축제의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성과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 관련성을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하며,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해 왔다. 이러한 문화 교류 및 국가 간,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아시아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면서 문화적 공통성 및 상호 관련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적인 문화요소들이 어떤 것이며,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왔고, 개별 국가들에 서 이러한 공통적인 문화요소들은 그 국가나 지역이 처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개별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형성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5)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구의 분포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구분포를 가져 온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국토의 차원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인구문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구분포의 유형과 지역별 차이, 인구이동의 양상과 유형, 인구문제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고, 인구 밀집지역과 희박지역, 인구 유입지역과 유출지역과 같은 구체적으로 대비되는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단원은 인구에 대한 계통적인 지리 학습 방법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통하여 인구현상과 인구문제에 대해 더 실질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세계 인구분포의 지역적 차이, 인구 이동 현상 및 그 원인을 이해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인구문제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대세계와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인구문제를 더 체계적이고도 복합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고, 인구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특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구문제들이 나타나는 양상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문제들이 나타나는 양상들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나) 교수·학습 내용

- ① 세계 인구 분포도를 보고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을 확인하고, 대표적인 두 나라를 사례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추론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거나 밀집해 있으며, 어떤 지역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되거나 아주 적게 거주하는 지역이 된다. 이러한 지구상의 인구 분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세계적인 인구 현상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밀집된 나라가 있고, 인구가 희박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인구 분포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②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과 유출되는 지역을 사례로 들어 비교해보고, 인구 이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현대 사회에서 인구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 결과로 다양한 인구분포 유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양상을 보면, 어떤 지역은 좋은 기후조건, 교육기회, 직업조건 등의 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불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러한 현상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 ③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인구 문제(인구 급증, 고령화, 성비 불균형 등)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세계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인구증가와 함께 세계의 각 나라는 다양한 인구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국가의 인구부양력을 넘어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직면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겪으며, 어떤 나라들은 남아선호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라나 지역마다 다른 인구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인구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④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시대에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여러 가지 인구성장 억제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고 이로 말미

암아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구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인구성장 억제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의 다양한 요소들과 결부된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6)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먼저 도시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의 의미를 알도록 하고, 도시의 발달 과정을 산업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도시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지역들을 통해 도시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한다. 한편, 도시가 편리한 생활의 장이기도 하지만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도시 문제들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도시 발달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문제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의 형성 과정과 관계되므로, 도시 문제가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 인구이동 및 집중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현상 및 도시문제의 복합성을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고, 도시의 시민으로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이 단원은 도시에 대한 계통적인 지리 학습 방법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도시의 사례 지역을 통하여 도시현상과 도시문제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도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도시적 생활양식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인간거주공간으로써 도시가 갖는 의미를 촌락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 활동들이나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도시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활동, 현대도시의 필수적인 요소인 여가와 관련되는 활동 등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적인 생활양식이나 도시의 역동적인 성격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사례로 도시화 과정을 설명한다.

도시적인 생활이 보편화하는 도시화 과정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인데, 수도권을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당한 부분이 집중된 수도권은 도시화 과정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역사가 바로 수도권의 도시화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시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③ 사례 지역을 들어 도시 발달 과정을 산업 발달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도시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은 도시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도시 발달 과정은 산업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 전근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산업적 토대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대도시들은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이면서도 두드러진 도시나 지역 사례를 통하여 도시의 발달 과정이 산업의 발달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다.

④ 도시 내부에서 고급 주택지와 저급 주택지가 분리되는 모습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도시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형성 과정이나 내부의 기능지역의 분화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중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도시 내 주거지역의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도시 내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시의 주거지역이 고급주택지와 저급주택지로 분화해나가는 과정은 도시 내부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과 일정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의 발달 및 분화과정을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주거지 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지들은 구체적으로 도시 내부의 어떤 지역들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지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⑤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발달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 문제 중에서도 과도한 인구의 집중에 따른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은 보편적인 것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특히 도시화한 생활양식이 생태적인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시 문제의 해결에는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인식과 안목을 요구한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도시의 시민이므로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7) 개인과 사회생활**(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모두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계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집단 및 사회 속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문제를 직·간접적인 생활경험과 관련지어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이 단원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아 정체성, 그리고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유형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한다.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지니는 문제점과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해 보는 기회를 얻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너무 심화하여 다루지 않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및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해당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생물학적·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화가 단순히 청소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내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회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관련 시사 자료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② 자아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 내용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사회화의 과정 및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 변화와 발달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외부적·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주체적인 요인 중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한 사

회 집단, 제도, 문화 등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유의한다.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관련 학문 분야의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③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을 탐색하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 경험 속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닌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별로 특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한다.

이 내용은 개인, 집단, 제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유지·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집단 및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과 연관된 사회 집단 및 제도를 조사한 후, 이러한 집단 및 제도가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토론할 수 있다.

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현상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간 사회에서 존재해 온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넘어선 차별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자기 삶의 경험과 연결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구별하고, 차이는 존중하되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며, 자신의 일상생활과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유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차이가 어떻게 존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별은 어떻게 지양될 수 있는지를 서로 의견 교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내용은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해보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줄이고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도록 권장한다.

(8) 문화의 이해와 창조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문화의 수용자이자 창조자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에서 문화가 지니는 의미와 변화의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더욱 나은 인간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이 단원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여 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강조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대중 매체 속에 담겨 있는 대중문화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문화 창조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주변의 사례를 이용하여 문화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 주는 문화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또는 차원을 소개하고, 문화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지닌 속성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문화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이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이 내용은 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 따라 검토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타문화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인식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계화 속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제국주의 등의 관점이 우리의 문화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문화의 관점을 지구촌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분쟁의 사례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③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 속에 담겨있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이 내용은 대중문화와 대중 매체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대중 매체가 만들어 내는 대중문화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거의 삶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대중 매체의 등장이 개인적·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단순히 대중 매체와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물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대중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하는 기회를 얻는 것을 권장한다.

④ 문화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이 내용은 인간이 지니는 문화 창조자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간이 기존의 문화가 제공하는 지식과 규범에 의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측면 이외에도, 개인과 집단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바람직한 문화 창조와 계승의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9) 우리의 생활과 법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법이 국가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진 공동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법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법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이 단원에서는 법이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국가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법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법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 중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 기능을 분쟁 해결의 수단과 제도를 통해 이해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누리는 권리를 탐색하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의식을 갖도록 한다. 나아가 권리의 제한과 충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법이 입법과정에서부터 현실 적용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법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인식을 재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에서는 거시적인 사법체계보다는 미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법적 사실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친밀감, 이해도, 효능감 등을 높이게 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찾아내고 분류해보는 학습 활동을 권장한다.

② 법은 분쟁을 예방하여 서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법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법의 적극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법이 권위적인 통치 수단 및 처벌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분쟁과 갈등 해결의 도구임을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법의 이러한 기능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편리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하여 법이 가지는 분쟁 해결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사 문제나 자료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및 그 해결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법 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 공동체가 구축해 놓은 사법 제도와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

적으로 운용되는 사법 제도와 그 운영 원리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사법 제도와 그 운영 원리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사법 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소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사례·판례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며, 모의재판, 청소년 법정 등을 활용하여 사법 제도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하도록 권장한다.

④ 일상생활과 직업 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법의식을 가진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며,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 일상생활 영역에서 법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법을 만들고 지키는 데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법적 친밀감이나 신뢰도, 효능감 등의 증진을 통하여 적극적인 법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권리구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과 권리 구제 단계를 체험해 보는 학습을 권장한다.

⑤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사회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비판적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설정되었다. 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정보를 수집하고 공정한 법적 가치판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확인에서 출발하여, 쟁점 정리, 법적 정당화 논리 검토를 거쳐 일정한 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법적 가치판단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모의재판 등을 통해 간접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10) 인권 보호와 헌법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원을 통해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 원리, 보호 수단, 정부의 성격과 형태가 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인권 개념의 역사적 등장과 인권 의식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인식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헌법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이해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곧 인권의 보장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형태와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정부구성과 운영의 민주적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더불어 타인의 권리 역시 나의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권 개념의 등장과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탐구를 통해 인권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헌법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헌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보는 학습활동을 권장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나 수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수단을 파악하도록 한다. 헌법 침해와 헌법 수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려는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며 각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권력분립 제도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아가 다른 나라 정부 형태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부 형태와 특징을 조사하게 하여 비교하는 수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가진다.

이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존중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받을 경우 자신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법의식과 타인의 기본권 역시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를 탐구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역할극을 통하여 기본권 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공감적 이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9학년】

(1) 자원의 개발과 이용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이해하도록 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이 구체성을 갖도록,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같은 것을 사례로 하여 원료로 사용되는 자원의 산지, 그리고 자원의 이동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원과 지역과의 연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자원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원을 둘러싼 지역갈등,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같은 주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탐구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자원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자원의 유한성과 자원분포의 편재성으로 발생하는 자원문제의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전 지구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자원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원의 의미와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시대적 배경, 기술수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을 이해하고 최근 강조되는 무형의 비가시적 자원인 인적,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적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인류가 직면한 주요문제 및 쟁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의 원료를 알아보고, 원료의 원산지와 이동과정을 파악한다.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써,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에 어떤 다양한 원료자원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생활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원들이 원산지로부터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자원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원의 생산과 지역 간의 이동을 조사하고, 지도 등 다양한 지리정보 매체를 활용할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사례로 자원이 그 지역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자원 부국인 국가가 가난한 나라도 있고 부유한 나라도 있으며, 자원은 빈약하지만 부유한 나라가 있다. 여기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도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느냐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 및 주민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세계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을 선정하여 자원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③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지역 갈등 문제를 사례 지역을 들어 설명한다.

세계의 에너지 자원은 기본적으로 유한하고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에서의 과다한 사용으로 고갈되기 직전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역할극이나 토의학습 등을 이용하여 어떤 에너지 자원들이 지역갈등과 지역 간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세계의 중요한 자원들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의 발생과정과 전개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우리나라, 일본 등을 사례로 인적·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자원의 의미와 가치는 시대적 배경, 기술발달의 수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연자원보다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문화적 자원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회와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보아,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그 사회나 국가의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한다. 우리나라, 일본 등은 공업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자원은 빈약하나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⑤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원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구 상 자원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대체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는 자원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중요자원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 현대 사회 및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자원 확보를 위한 개인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하며,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 일어나도록 친환경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른다.

(2) 산업 활동과 지역변화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지표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활동의 일부로서 산업 활동들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지역주민의 실제생활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산업 활동들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특성과 지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지역 전체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간의 산업 활동이 농업, 공업, 광업,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 활동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식과 맥락을 이해하고, 특정한 산업 활동과 특정한 지역과의 연관성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의 변화는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특성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산업발달과 지역특성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와 세계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지역의 산업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지역의 성장과 쇠퇴가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상업적 농업지역으로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 요인을 이해하고 지역 변화를 파악한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지역 및 지역성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는 과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가 농업지역이다. 전통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농업지역들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더욱더 상업적인 농업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적인 농업활동의 다양화를 통하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생존을 추구하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지역변화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생활의 변화에 따른 지역 및 지역성의 변화 양상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광업의 발달과 쇠퇴에 따른 지역 특성의 변화 및 주민 구성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역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산업 활동의 성장과 쇠퇴는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특정한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한한 자원에 의존하는 광업이든 수출의존적인 산업이든 매우 극적인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광업이 성장하는 초기와 광업이 쇠퇴하는 말기에는 지역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쇠퇴하는 시기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다방면의 문제 해결책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지역문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활발한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사례로, 입지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지역성의 변화를 이해한다.

산업 혁명 이래 전 세계에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은 많으며,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산업화의 양상들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지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에서 공업 활동이 집중되고 집적된 공업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이 공업지역들이 가진 입지과정과 배경, 그리고 입지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공업화를 통하여 형성된 지역이 고유한 지역특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④ 공업의 쇠퇴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의 사례를 통해 그 배경과 지역 특성의 변화를 이해한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지역에 반영되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며, 지역의 특

성도 변화하게 된다. 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함으로써 지역의 기반을 이루던 산업이 쇠퇴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의 생존을 위해 지역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은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현대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중심적인 공업이 쇠퇴하는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 지역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⑤ 서비스업의 입지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변화된 다양한 사례를 선정하여, 그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의 변화를 이해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의 소비와 기호의 다양화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공업의 입지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듯이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입지는 지역의 이미지와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한 서비스 산업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바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의 입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입지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업의 종류에 따라 입지 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3)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가) 단원의 개관

자신의 일상생활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확산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두드러진 환경문제와 지역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문제들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의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환경문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려면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도 환경문제 전개양상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대비가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하며 그 결과를 서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조사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탐구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공업화의 진전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왜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 이해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찾아봄으로써 환경문제 인식의 단서를 제공하고, 각 지역이 각각 다른 환경보전 활동을 하게 되는 배경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활용 교육(IE)과 같이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환경보전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리고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전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다.

② 일상생활에서 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며, 이는 현대 사회의 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와 관계가 깊다.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소비활동은 자원의 소비를 바탕으로 하며, 자원의 남용과 고갈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러한 소비와 같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곧바로 환경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비교하고 사례를 통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한다.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것이지만, 개별 국가나 사회들은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개발도상국이 공업화와 경제개발을 확대하면서 과거 선진국이 경험했던 환경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수준에 따라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은 물론이고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서 개별 사회나 국가가 부딪히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과 전개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는 것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환경문제의 공간적인 맥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의 정도와 관계없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④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해한다.

현대세계의 환경문제는 그 양상을 지역적으로 달리하면서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즉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문제, 인구문제, 식량문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기른다.

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사례를 통해 조사한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여러 국가와 지역 사회들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식과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친환경적인 개발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접근은 모든 곳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세계 속의 우리나라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7학년(중학교 1학년)의 ‘내가 사는 세계’와 대비가 되는 단원이며, 앞에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 단원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단원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진 위상 및 위치, 입장을 이해하고자 국제적인 물류 중심을 건설하는 지역,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지역,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을 지닌 지역 등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통하여 세계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속 한국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국토가 당면하고 있는 독도(문제)를 검토해보고, 점점 늘어나는 국제교류를 위하여 우리의 지리적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는 과정,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것들, 세계적인 위상의 확보와 국제화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외국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안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좁은 국토이지만 세계적인 위상을 갖는 데는 넓은 세계로 진출하려는 진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인 지역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며,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와 함께 국제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의 방안을 추구하는 자세를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세계적인 위상은 국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계 속에서 한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요소는 경제력, 외교력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력과 세계적인 위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GDP, 국제교역량을 비롯하여 경제지표, 정신문화의 수준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사례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나 세계적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② 해양 진출의 요지 또는 국제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조사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좁은 국토지만 넓은 세계로 진출하려는 진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이러한 진취성은 우리 국토의 여러 곳에 전 세계의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남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및 사례 지역을 통하여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세계로 진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그러한 진취적 정신들을 가지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자유 도시로 선정된 배경과 그 영향을 파악한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노력은 많다. 그런데 우리 국토 자체를 개방화시켜서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교류거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21세기에 와서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국제자유도시들을 만드는 일이다. 세계적인 교류거점을 만들고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거점들이 하게 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④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지역의 주민 생활을 조사한다.

우리 국토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갯벌과 같이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자연 환경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지역의 주민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을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며 현명한 것인지를 인식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⑤ 독도가 갖는 지리적 의미를 이해한다.

우리 국토의 최고 동쪽 끝에 위치하는 독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지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국토와 국토를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의 일부임에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국제분쟁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독도의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을 이해하고 영토를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도록 한다.

⑥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 문화적인 특색을 외국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한다.

오늘날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외국인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러한 국제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및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다양한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올바르게 소개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5) 통일 한국의 미래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하려면 국토 공간의 지리적 통합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북한의 개방지역, 우리 민족의 상징적 장소인 백두산, 분단의 상징적 공간인 비무장지대 등을 중심으로 국토통일과 관련되는 지역들의 지리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통일된 우리 국토’가 가지게 되는 위상을 파악하여 ‘통일된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는 데 중점을 둔다. 북한의 개방화, 남북협력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

토통일의 희망을 품도록 하되, 중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학습하도록 한다.

국토분단에 따른 국토공간의 왜곡, 국토의 일체성 확보를 위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국토’의 지리적 특성과 잠재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토통일의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토의하고 통일 및 우리 민족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관계의 지리적 맥락을 고려하여 ‘통일된 국토’가 갖게 되는 지리적 특성과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국토의 발전상을 설계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북한의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개방화를 시도하면서, 중국의 개방화 초기처럼 몇 개의 대외개방 거점지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개방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북한의 개방지역들이 가진 지리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다가올 국토통일의 시대에 이 지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도록 한다.

② 백두산 지역, 비무장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국토의 분단으로 생겨난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성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 걸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으로써 한민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지역이므로, 민족의 측면에서 백두산이라는 상징공간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 국토의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백두산 지역과 비무장 지대와 같은 상징적인 공간의 지리적인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한다.

우리 국토는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에 있고,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국토의 분단을 경험하였다. 앞으로 국토통일이 일어나면, 과거처럼 주변 강대국의 개입이 여전히 강해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접한 여러 국가들로 국력을 펼칠 수도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국토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이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④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통일의 필요함을 깨닫고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모습을 그려본다.

국토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제이며, 우리 민족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토의 통일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고통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밖에 국토 통일의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들도 함께 파악하도록 한다. 다가오는 국토 통일의 시대에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국토공간의 이용계획을 세워, 통일 이후 바람직한 국토의 모습을 제시하도록 한다.

(6)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정치의 의미와 본질, 민주주의의 성격과 이념에 대한 이해와 정치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이 단위에서는 정치의 의미와 본질을 권력 현상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정치 현상에 작용하는 권력의 원천 및 권력의 주체를 파악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 원리를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의 비판적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며,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나아가 그러한 비판이 적극적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발전과 구성원의 권리 보장이 구체화할 수 있는 관점과 방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의 본질을 권력 현상 및 바람직한 정치의 목표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이 내용은 정치 생활에 작용하는 권력현상을 파악하여 정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람직한 정치 목표와 관련하여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공통으로 권력관계의 개념이 내재하여 있다. 따라서 정치의 의미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 ‘국가 기관의 활동’, ‘권력을 추구하는 활동’, ‘공동체의 공동 목표의 추구’ 등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을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목표의 측면에서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사례, 이야기, 역사적 사건, 문제, 쟁점 등 다양한 학습 소재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치권력의 원천과 주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현대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토대로 운영되는 정치 질서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권력의 원천과 주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현대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주체로서 시민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의 원천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우월적 개인이나 집단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권력의 주체는 이러한 권력의 원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등장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가 형성되기까지 복합적인 역사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역사적 사례나 상황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권력의 원천과 주체를 찾아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민주주의가 여러 정치 원리 중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원리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다루되, 특히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특징지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 국민주권,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분립 등은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일종의 이념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역사와 사회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원리와 현실 사이에 극복해야 할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의 정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④ 민주주의의 이념을 역사적·사회적 전개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이 내용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의미의 구분과 그에 따른 쟁점을 다루되, 그러한 구분과 쟁점의 중심에 평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연관되어 있음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내용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권력적인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적으로나 역사적(실제적)으로 모든 정치 현상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 간의 권력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합의, 강제 등을 통해 규정(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규정은 선과 악, 미와 추, 좌와 우 등과 같이 대립적인 두 가치를 포함하면서도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정치 질서는 이상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향해 변화해 가는 잠정적인 질서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잠정적인 질서를 더욱 완성된 발전적 질서로 만들어 가는 동력은 구성원의 비판적 안목과 적극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정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학습 경험을 통해 정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정되었다. 또한, 참여의 장으로서 정치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참여의 주체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정치 과정은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권력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치 발전은 이러한 참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참여 주체들은 권력의 구조와 기능, 참여의 수단과 방법, 참여의 기능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논쟁 중심의 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참여 주체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민주주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적 상호 작용이 어떤 구조를 지니는지,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권력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보다 의미 있게 실제로 작용하는 구조는 문화와 자본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은, 권력의 구조가 법, 문화, 자본 등으로 구성됨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력이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연관되어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치 참여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참여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참여의 수단과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는 여러 실정법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참여의 방법, 예를 들면 선거, 시민 단체 활동 및 여론 형성, 정당 활동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 저항권은 사회적인 대립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참여 방법으로서 행사의 조건과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유의한다. 본 내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중심으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 주체와 기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 내용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누구이며, 각각의 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 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참여의 자질과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의 주체로서 시민, 정부, 정당, 언론, 시민 단체, 압력 집단 등이 있음을 이해하는 한편, 참여의 기능으로서 현존하는 정치 질서 유지 기능과 비판을 통한 개선 기능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 내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선택하여,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참여 주체들의 주장을 비교해보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④ 정치 발전의 과제를 시민 사회 및 정치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이 내용은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발전을 시민 사회의 발전적 확대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 문화 역시 시민 사회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시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치 문화로서 토론과 설득, 비판과 타협, 양보와 관용 등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치 문화적 측면의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볼 수 있다.

⑤ 정치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정치 과정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권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이

해관계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정치 과정에서 대립하는 현상과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 내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현실의 문제 및 정책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8)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경제 활동이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으로 사회생활의 바탕이 되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분업과 교환을 통해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원이 인간의 경제적 욕구 실현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선택을 요구하며 경제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경제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선택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수 있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경제 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현실의 경제생활은 다양한 경제 주체의 역할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주체 간의 상호협력이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됨을 깨닫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희소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경제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희소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내용은 인간의 무한한 욕구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경제생활에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희소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바탕이다. 학습자들의 희소성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인 개념 설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와 그 기준에 대한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제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여 효율성, 형평성 및 장기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내용은 무한한 욕구와 한정된 자원이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선택이라는 의사 결정을 하게하고, 경제적 선택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생함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선택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에 요구되는 비용과 선택의 결과 얻게 되는 만족(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사회가 직면하는 선택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효율성과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 효과가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형평성 사이에 의사 결정이 필요할 수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인간의 경제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전개되며, 어떤 일방의 경제적 의사 결정은 상대방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간 사회가 자급자족을 넘어 분업과 교환으로 상호 협력하는 경제생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이해하고, 경제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자 설정되었다. 분업과 교환을 통한 상호 협력은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에도 이루어져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함을 직업(일)의 분화, 지역 간의 분업, 국제 무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더불어 상호의존적인 경제생활에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이나 경제활동의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④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제 체제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본다.

이 내용은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선택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기본 경제문제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생산물 분배에서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택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 체제의 의미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하되, 현실 경제에서는 두 체제의 특성이 혼합된 다양한 경우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시장경제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이해’ 단원의 내용과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⑤ 경제생활 속에서 소비자(저축·투자자), 생산자(기업가와 노동자),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

이 내용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할 때 경제가 원활

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자 설정되었다. 사회 구성원은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비자, 저축·투자자, 기업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에서는 소비의 경제적 의의를 탐색하고, 소비와 저축, 저축과 투자의 관계도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한다. 생산자의 경제적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기능과 노동의 경제적 의미를 탐색하고, 노사의 바람직한 관계도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 활동의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경제 주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등의 의의와 기능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소개할 수 있다.

⑥ 일생 주기 동안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바람직한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재무 설계를 한다.

이 내용은 경제생활에서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신용관리와 자산관리가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설정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신용을 토대로 한 경제적 거래가 증가함을 신용카드 등의 사례를 활용해 파악하고 신용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생활을 하려면 일생 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재무 설계와 관련하여 자산관리를 설명할 때 예금, 보험, 증권 등의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흥미와 현실적 유용성을 얻도록 한다. 금융자산 등의 예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선택되고 활용될 수 있다.

(9) 시장 경제의 이해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상품이 거래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을 이해하며, 시장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 보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시장경제의 작동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장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수요 공급 법칙을 활용해 분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거래의 경제적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또한, 앞 단원에서 학습한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시장이 작동되는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의 보완 방안으로서 정부의 개입 및 그 한계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① 수요와 공급의 의미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이 내용은 시장은 분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교환 행위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시장에서의 거래는 대가를 내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예상, 소비자 수 증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생산비 변화, 생산기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의 영향을 받고, 가격과 수요량 및 공급량의 관계가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 그래프를 활용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가격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균형가격의 변동은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됨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③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인하는 신호로서 가격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 역할을 함을 구체적인 사례와 수요 공급 곡선을 활용해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격은 인위적인 간섭 없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상품을 사도록 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급자가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실을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④ 시장 기능과 정부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이 내용은 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경제 체제보다 장점이 있지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기업의 생산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경우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희소한 자원의 활용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한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정부의 개입도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⑤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관하여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 내용은 시장 경제 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근거를 탐구하여 우리 경제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시장 경제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에 대한 보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 질서를 밝힌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제활동에 대한 조정의 여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 지배나 경제력 남용 방지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밝힌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제활동에 대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은 대립이라기보다 보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10) 국민 경제의 이해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국민 소득, 경제 성장, 물가, 실업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현대 개방 경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국제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국내총생산 등의 경제 지표를 활용하며 그 변화를 경제의 변동 및 성장과 관련시켜 파악하도록 한다. 경제 불안정의 주요 요소로 물가와 실업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가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제 거래의 분야도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본, 노동까지도 확대되며, 환율 등 다양한 국제 경제 변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 단원은 국민 경제, 국제 경제 수준의 다양한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학습 경험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사례와 구체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경제 문제에 대한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국민소득의 의미를 국민 경제의 순환과 변동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가게, 기업, 정부가 포함된 국민 경제의 순환을 이용하여 국민 소득을 국내 총생산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 총생산은 국민경제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임을 파악하고 경제활동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개념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은 경제의 순환 모형과 국민소득 관련 통계와 도표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경제성장의 의미와 경제성장의 요인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경제성장의 의미를 연도별 국내총생산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요의 증대와 생산 능력의 확대가 조화되어야 경제성장이 원활해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경제성장은 생산 기술 발달, 새로운 상품 개발, 노동 인구 증가, 물적 인적 자본의 증가, 자연 자원의 변동, 국외 시장 확대, 사회 복지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 정책의 유형과 의미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경제적인 불안정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경제 불안정이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제 안정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내용에서는 다양한 정부의 경제 정책 사례를 활용하여 금융 및 재정 정책 등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한 정책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도록 한다.

④ 물가의 의미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이 내용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물가 변동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물가의 의미와 물가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 변동의 이유를 수요(총수요)와 공급(총공급)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적절한 통화량 관리, 생산요소 가격 안정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물가 변동과 관련해 총수요 총공급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으나, 총공급의 장단기 구분 등 지나친 이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석 등은 설명하지 않는다.

⑤ 실업의 의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이 내용은 실업의 의미를 파악하여 실업과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을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종 통계에 나타난 실업률의 변화를 살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감한 시기와 분야 그리고 증감의 요인을 찾아보고 실업 문제에 대해 사회적 처방을 모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⑥ 국제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국제 거래, 환율 등과 연관시켜 이해한다.

이 내용은 오늘날 경제에서 국가 간 경제적 거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는 추세임을 사례와 통계 자료, 국제기구의 활동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거래는 상품 위주에서 개방화의 확대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도 확대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국제 경제 거래의 확대는 국내 산업과 사회구성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례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 거래에서는 환율이 거래의 조건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환율의 변화는 국제 교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도록 한다.

4. 교수·학습 방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원칙과 방법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수·학습의 원칙

(1) 원리 발견과 적용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 지식의 맥락적 이해와 구성 능력 강조(‘(1)’ 항)

사회과는 학생들에게 인간관계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양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사회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반성적 사고와 가치선택을 거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이다. 따라서 지식의 전달을 통한 사회과학적 사실, 개념, 일반화에 대한 단순 암기 및 기억에 치중하는 전달식 강의 수업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학생의 경험 및 필요에 맞게 의미를 구성하고 학습한 개념과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과학적 지식을 사회 현상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맥락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과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여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념학습을 통해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개념과 원리를 충실히 이해하도록 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원리를 탐구,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여 지식의 생성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결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개념형

성 과정 혹은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에 따라 효과적이라면 활용하되 설명식 수업에서도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사회과 목표와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 고등 사고력 향상을 위한 탐구수업(‘(2, 4)’ 항)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고등 사고능력(higher order thinking) 향상을 수업의 중요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즉, 사회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해 방식을 응용하고 또한 배운 지식을 응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고등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개념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학습, 반성적 사고에 의해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 발견된 원리를 적용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학습,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증거에 토대를 두고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끌어낸 결론들이 증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념형성, 개념달성을 통한 일반화의 도출로 이어지는 탐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탐구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추출된 개념을 토대로 일반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맥락중심으로 제시하여 개념이 사고의 기능적 도구가 되게 하며, 일반화 가능성이 큰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며, 관련된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지식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인식하고 재해석하며, 지식과 정보가 경험과 연계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학생들도 자신의 인지적 구조와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현상 이해 및 문제 해결에 관련 개념들을 사용하고, 하위 요소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요약, 분류, 비교, 대조, 번역, 해석, 가설, 예측, 추론,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상상, 대안 제시, 선택, 결정 등의 활동을 통한 사고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고등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 개념, 사건, 문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며, 주어진 문제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틀로 탐구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소집단 활동을 자주 하며, 이때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한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쓰기(writing)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쓰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하며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개발된다. 또한, 교사는 좋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끊임없이 사고를 자극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 참여 강화(‘(3, 5)’ 항)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두는 교육,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크게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능동적 자기 통제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습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조절 활동, 자기 모니터링, 자기 성찰 활동, 지식의 구성과 활성화 활동 등과 관련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 관점에서 본 사회과 교육의 목적은 자기 감시와 자기 성찰적 자세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개인·사회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과 교육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인식 체계에 의하여 학습하며 스스로 체계화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도록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게 학습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갈 뿐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귀납적 인식, 반성적 사고, 메타인지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며, 또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귀납적 인식을 통해 교사가 제공하는 사례를 보고 관련 활동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고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반성적 사고는 학습자 자신의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 과정을 재조명하여 기존의 지식 구조를 수정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인지과정이다. 메타인지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을 계획, 점검, 평가하며 그 평가에 따라 전략을 선택, 사용하고, 수행에 관련된 노력의 통제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인지적 능력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한 수업 계획에서는 주제와 명확한 목표 인식, 양질의 사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면 그래프 만들기, 지도 그리기, 보고서 쓰기 등 조작적인 학습 활동과 질문, 토론 수업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과 생활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나. 교수·학습의 방법

(1)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1)’ 항)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과로,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과 결과 및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 및 논리적 축에 따라 계열화시키는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생활 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하여 학문과 생활 영역 간의 통합, 지식과 기능 및 가치·태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행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흥미 중심, 활동 중심, 탐구 중심, 주제 중심, 기능 중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활동 및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선하고 그것을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는 형태로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말고,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지도를 하며, 실질적인 지식의 형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학생에게 과다한 사실 지식의 습득을 강조할수록 사회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반감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사실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정선, 축소하고 그것을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가르쳐야 하며,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학습자의 활동이나 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회 현상과 지리 현상, 역사적 흐름이 서로 연관되도록 통합적인 시각과 영역별 계통적 시각을 균형적으로 가지게 한다. 또한,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함께 획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재의 재구성 및 주제 및 문제 중심의 접근(‘(2)’ 항)

학습자들이 실생활 경험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인지하는 주제와 문제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교사는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재구성 시에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맞도록 해야 하고, 교실 상호작용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리 영역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비교학습 관점, 역사 영역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시기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 일

반사회 영역에서는 현대 사회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주제 중심의 내용 재구성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의미를 폭넓게 깊이 있게 탐구하여 가는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세계에 적용시켜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주제 선정 시 실행가능성(학습 자료의 접근성, 학생의 선수 학습 정도와 수행 능력 정도), 가치성(주제의 중요성, 학습과 생활 내용과의 관련성,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 이해에 이바지하는 정도), 맥락성(학생의 관심사 반영 정도, 학습내용의 적용 정도), 의미성(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정도)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중심의 내용 재구성은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 및 비판적 사고력, 참여적인 정치태도, 세계 시민적 자질, 관용 등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때는 사회 비판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논쟁문제, 한국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문제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권력과 법, 경제적 불평등, 성 불평등, 복지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지역갈등, 민족문제, 지구촌 사회문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문제 토론 전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질문의 형태를 취하여 제시되는 것이 좋고, 학습 종결 과정에서는 마무리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주제나 문제 중심 수업 진행시에는 선정된 주제나 문제에 적합하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수준에서는 탐구수업, 토론수업, 협동학습, 역할극, 모듈별 조사, 질문법 등의 방법을, 개인 수준에서는 학습과제 수행, 개별 학습 활동지 풀기, 개인적 관심사 탐구, 개인적으로 퀴즈 풀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재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에는 주요 개념, 학습 활동지, 해당 수업에 필요한 안내자료, 주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자료, 수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탐구수업과 다양한 발문 기법 활용(‘(3)’ 항)

대개 인지적인 영역의 탐구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사실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하여 일반화하거나 이론을 구성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식의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사회 지식의 탐구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교수·학습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하나는 개념 습득과 형성을 위한 개념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화나 이론을 이끌어 가는 탐구 학습이다. 개념은 사회, 지리, 역사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실제 탐구 수업에서는 지도, 도표, 그래프, 연대기 등을 읽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기능을 함께 길러 주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숙달하도록 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 탐구 및 문제 해결의 과정은 ‘왜’ 그리고 ‘어디에’라는 질문을 하는 단계(관찰, 지각, 정의 및 분류하는 과정)→‘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단계(적용, 분석, 종합의 과정을 이용하여 설명과 예측하는 과정)→‘무엇을 해야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단계(가치 전략과 문제해결 기능을 이용하여 평가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의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사회탐구뿐 아니라 가치 탐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탐구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은 가치분석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가치문제의 정의와 인식, 가치 관련 행동 서술, 행동과 관련된 가치 확인 및 서술, 가치 갈등 확인, 가치 원천 서술, 대안적 가치 서술, 대안적 가치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치 선택, 가치 선택에 대한 이유·원천, 가능성 진술의 순을 따른다. 가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수방법은 설득하기, 확신시켜주기, 모범 보여주기, 감동시키기, 규칙 및 규율 정하기, 대화전략 등이 있다.

발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를 지향하게 하고 독자적인 탐구 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수업에서 발문은 수업 내용에 대한 동기 유발 및 도입의 수단, 수업의 복습이나 요약, 학생의 현 상태와 수준의 평가, 수업 내용의 설명, 가르친 지식의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교사의 의도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발문하는 전략에 대해 교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발문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효과적인 발문을 구성하기 위해 인지적 수업 목표의 여러 단계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발문을 구성해야 하며,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발문을 구성하며, 수렴적 사고보다는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을 하며, 많은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발문을 하기 전에 학생을 먼저 지명하지 말고, 발문을 한 후 4~5초 기다려야 한다.

(4) 소집단 학습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4)’ 항)

소집단 학습이란 2~6명 내외 학습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학습 목표를 향하여 함께 활동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개별적 책무성,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게 되며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익히게 된다. 협동학습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며, 수평적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구성주의적 수업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 소집단 성취분배 모형(STAD), 소집단 게임 토너먼트 모형(TGT), 직소 모형(Jigsaw), 집단연구 모형(Group Investigation) 등의 다양한 협동학습 방법을 참조하여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자료와 과제를 개발하고 협동학습의 원리와 규칙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즉,

학습목표 혹은 과제 성격에 따라 학습자들을 동질적 혹은 이질적으로 4~6인 정도의 소규모로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명료화하고 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타인 존중의식, 사회 참여의식, 협동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저학년의 협동학습은 산만한 수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내용과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여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통제적인 분위기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5)’ 항)

사회과 학습에서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이미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그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 방향과 연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사회 과학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탐구 방법이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사례 학습, 통계(표본) 조사 학습, 야외 관찰 및 현장 학습, 지도 이용 학습, 문헌 조사 학습, 인물 학습, 사료 학습, 상황 분석 학습, 미래 예측 학습 등은 사회 과학 연구 방법에 기초한 학습 방법들이다. 이 중에서 야외 학습이나 지도 이용 학습은 지리적 성격이 강한 내용에 더 적합하며, 인물 및 사료 학습 등은 역사적인 학습에 더 적합하다. 가치 학습에는 도덕적 발달 모형, 가치 명료화 모형, 가치 수용 모형, 가치 분석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 결정을 위한 학습에서는 의사 결정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의, 조사, 문답법,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등은 여러 분야의 내용에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할 때 학습의 목표, 내용 및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 학습 환경, 학습자의 수준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은 개별 교수·학습 방법보다 집단 교수·학습 방법이 더 적합하며,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중학교 2학년은 집단 교수 방법과 개별 학습 방법을 비슷하게 활용하고, 시각적 자료, 논술, 논리·수학적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3학년은 집단 교수·학습 방법이 적합하고, 논술, 시각자료, 논리·수학적 사고 자료를 활용한 방법이 적합하다.

(6) 정보화·세계화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학습지도(‘(6)’ 항)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 처리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 매체의 발달과 통신 능력의 극대화에 따른 정보의 폭증은 한편으로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학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와 판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 획득의 질적, 양적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보와 지식의 수

준 및 활용 능력과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개념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 처리 기능과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학습(CAI), 인터넷 활용 교육(IEE), 이러닝(e-learning) 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화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료와 정보를 선택, 검색, 조직, 분석, 종합,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정보 처리 및 탐구와 사회 참여 능력을 신장시킨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지의 산업, 문화, 환경 등 최선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자 우편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토론 및 협동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고도 폭넓은 사고의 기회를 얻도록 격려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회 문제를 더욱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지식과 기능을 더욱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적용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얻도록 한다. 컴퓨터의 활용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정보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고, 흥미 본위의 교수·학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컴퓨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학습자들이 지방이나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참여 의식, 공동체 의식, 개방 의식, 그리고 민주적 의사 결정 태도 등과 같은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국가, 지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배양한다.

민주시민 교육에 비중 있게 지도하여야 할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으로는 부패방지 교육, 환경 교육, 에너지 교육, 경제 교육, 소비자 교육, 법 교육, 복지·보험 교육, 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진로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공명선거 교육, 통일 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문화예술·문화유산 교육, 국제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육, 정보화·정보윤리 교육,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 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외국인근로자 포함), 지적 재산권 교육 등이다.

(7)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7, 8, 9)’ 항)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의사소통의 물질적 매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래 사회교과서가 탐구형식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므로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 사회과 수업에서

는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그림, 노래 등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면 교재를 분석한 다음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목록화하고,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원을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안내서를 만들도록 한다. 안내서에는 교사의 질문내용 및 학생 활동 내용, 워크시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과 내용의 특성 및 사회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시사 자료 활용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주고, 쟁점이 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사자료 활용에서 유의할 것은 자료가 담은 내용의 오류 및 관점의 편중화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자료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어느 한 측면의 처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를 선정할 때는 교육목적과 수업목표의 일치성, 흥미 유발의 적절성, 학생의 연령과 수준의 적절성,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증진 여부, 오류와 편견의 여부,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자료는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유용하며,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도구이다. 나아가 지역 사회에 대한 직접 탐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실과 결부시켜 이해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미를 구성하게 하여 사회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역 사회 자료로는 학생들의 주변 문제로 인식되는 자료, 지역의 과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학생들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 새로운 시점이나 생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8) 영역별 교수·학습지도의 유의점

(가) 역사 영역 교수·학습 지도의 유의점

역사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역사의 특성이 충실히 구현되어야 한다. 역사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 및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사건의 유사정보다는 개별성, 다양성에 관심을 두며, 과거 사건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려면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 영역에서는 사건 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활동상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발전적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 주체적 이해는 스스로 역사적 상황을 상상하여 구성하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와 그 해결 과정(구체적인 활동상)을 이해하는 것 등을 말하고, 발전적 이해란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각기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그것들의 변화 양상이나 문제 해결의 모습을 상호 관련시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 영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① 내용 요소와 행동 영역의 통합

역사 영역의 교수·학습을 비판하는 것 가운데 ‘사실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라든가 ‘사실을 암기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사실의 주입 및 암기에 교수·학습 활동이 편중되고, 기능 영역이나 태도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지적이다. 이 점은 교수·학습 목표설정에서 지식·이해 목표에 편중된 점과 함께 교수·학습의 방법 및 자료의 개발에서도 소홀하였던 점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원별 혹은 주제별로 기능 및 가치·태도 목표를 설정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지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내용 요소의 재구성과 흥미를 고려

단원별 혹은 주제별로 어느 특정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 요소들도 포함되도록 재구성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 요소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폐기하고 교수·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아무리 유익한 수업이라도 학습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미 열린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강의식보다는 가능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이 유용하다. 도입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는 학습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게 하는 방법, 교수·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준비하였다가 학습 과제를 해결한 학생들에게 수준에 알맞은 읽을거리, 지도 그리기, 수준별 형성 평가 문제 등의 다른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지도를 첨가하는 방법, 정리 단계에서 역사 퍼즐, 만화로 표현하기, 기행문 쓰기, 유적지 안내 또는 국가 홍보 팸플릿 만들기, 마인드 맵 그려보기 등의 흥미에 따른 다양한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치밀하고 세심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내용 요소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활동의 조직

역사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파악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형성하고 다른 장면

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는 역사적 인과 관계나, 역사적 상황을 이루는 제 사실들을 상호 관련시켜 이해한다거나, 역사적 사실의 내면에 있는 역사적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역사적 사실의 내면인 역사적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 혹은 역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행해진 사고의 과정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를 교수·학습하려면 이에 적절한 방법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감정 이입이나 추체험과 같은 역사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고유한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곧바로 수행 평가로 연계하는 것이 좋다. 이때 유의할 점은 수행 평가가 집으로 연장되어 또 다른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교실에서 교수·학습 과정과 맞물린 수행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수·학습 내용과 수행 평가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개별 활동과 조별 활동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협동성 신장과 학습의 극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나) 지리 영역 교수·학습의 유의점

지리 영역에서는 사회현상과 지리적 현상, 역사적 흐름이 서로 연관되도록 통합적인 시각과 영역별 계통적 시각을 균형적으로 가지게 한다. 특히, 지역 및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암기와 주입식의 학습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고, 주어진 주제, 문제, 과제들을 탐구과정에 따라 학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다양한 지리적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리 탐구 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관찰과 기록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야외 답사 학습, 각종 통계 수치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원인 분석, 실험, 시사성이 강한 지리적 문제의 해결, 게임과 시뮬레이션 활용 등의 방식들을 이용하면 탐구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 영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① 다양한 지리 활동의 활용

지리 학습의 가장 필수적인 학습 방법인 야외 답사 및 조사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습 내용에 따라서 야외 답사 및 조사, 관찰 및 참여, 토론 및 발표, 사례 연구, 견학, 면접, 시뮬레이션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도록 한다.

야외 답사 및 현장 학습은 지리 현상에 대한 직접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지리의 개념 및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야외학습은 지리 수업에

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리 영역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는 자연적, 문화적 사상들의 분포 유형, 지역의 형성 및 분리의 실제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동안 지리의 기본 기능을 익히도록 해 준다. 야외 현장 학습은 야외 현장 견학과 야외 현장 조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수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설명식 수업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학습 현장에서의 교사 주도의 관찰 및 해설과 정보를 기록→교실에서의 해설과 설명이라는 수업 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후자는 전형적인 탐구 수업의 형태로 전개되며, 교실 수업이나 현장의 직접 관찰에 의한 문제 제기→가설 설정→자료의 수집 및 문제의 재확인→가설 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뮬레이션 학습은 도시의 입지, 공장의 입지, 농업 계임 등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수업의 실행 과정은 학습 주제의 결정→목적과 목표의 설정→적용 단계의 결정→시뮬레이션 활동의 계획 및 준비→활동 전개→정리 및 반성의 단계로 구성된다.

②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 활용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지구의, 영화 및 기록물, 슬라이드, 통계 자료 및 신문 자료, 사진, 인터넷 자료, 여행기, 탐험기 등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들을 이용한다. 이때 여러 가지 수업 방법 및 수업 전략들을 동시에 고려한다.

지리 수업에서는 지리 탐구의 필수적 도구인 지도의 이해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도가 사진, 인공위성 이미지, 그래프와 더불어 공간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지도 학습은 학생들의 공간 인지 능력, 공간 개념화의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쳐 지리 도해력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도는 보편적인 현상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기는 일반화, 상징적 기호(그림 기호와 추상 기호)를 통한 추상화, 지표 특징 및 패턴에 유사하게 표현되는 실제 세계와의 동질 유사성, 상징화와 관련한 다양한 지도 언어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지도학습을 통하여 간단한 방향 찾기에서부터 분포, 스케일, 거리, 입지시키기, 상대적 입지, 지도 언어, 표현 기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도 유익한 학습 기능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1 : 50,000, 1 : 25,000, 1 : 5,000 등의 중·대축척 지도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어 지도를 활용한 지리 학습이 더욱 쉬워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대축척 지도를 이용하면 지형, 기복, 촌락, 교통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지리 학습은 여행, 관광,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제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체적인 지식을 다룰 수 있게 된다.

③ 지역·공간의 문제 해결 능력 및 공간정보 처리능력 향상

급속한 사회 변화를 보이는 현대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사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리적

현상과 자원 문제, 도시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등의 지역 및 공간 문제들을 다루어 주어야 하며, 학습 목표,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더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공간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일반사회 영역 학습 지도의 실제 및 유의점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위해 민주사회의 주요 가치를 동시에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여 단순 사실 및 지식의 암기에 국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반사회 영역은 내용의 특성상 시사성이 강하므로 국내외의 시사 자료와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며, 지리, 역사 등 인접 학문 영역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능으로는 기초 기능, 문제 해결 기능, 비판적 사고 기능, 사회참여 기능 등이 있는데, 이들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첫째, 기초 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탐구 문제를 형성하고 탐구 절차를 설계하며,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비판적 사고능력 및 문제 해결적 사고 기능의 습득에는 연역적 사고 능력이나 귀납적 사고 능력 및 유추와 추정 능력, 그리고 통계적인 사고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의 습득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 연역적 또는 귀납적 개념 학습, 토의, 토론, 협동 학습, 과제를 통한 학습, 작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습득 및 분석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는 신문, 잡지, 통계 자료, 학생 자체의 사회 조사, 면담, 설문, 관찰 등을 이용한 학습을 들 수 있다.

둘째, 문제 해결 기능과 관련하여 먼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된 목표의 의미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하는 데에는 상황을 종합하여 해결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으며 각 대안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발견하는 등의 상황 종합 능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비판적 사고 기능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거나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먼저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사실의 진술과 가설적 진술을 구분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주장이나 진술의 증거와 관련하여 진술의 사실적 정확성과 주장이나 진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주장이나 진술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집단 참여 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는 인지적 사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집단생활 기능 역시 중요하다. 이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집단 내에서 생활하는 양식을 익혀야 함을 의미한다. 집단에서의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하기, 집단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생각 제공하기, 집단의 지도자 되기, 집단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집단의 어떤 방향을 결정했을 때 그곳으로 나가게 도와주기,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분명히 표현하기,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표현하기, 갈등을 풀기 위해 협상하기, 집단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등은 사회과에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집단생활 기능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① 사회문화 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 세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성하여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경험을 관찰·분석하고,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비교방법을 사용하며, 사례분석,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 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모습을 법과 연결하여 조명하도록 하며, 신문, 영화, 판결 등 다양한 자료나 외부 전문가들의 강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어려운 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법적 소양과 건전한 법 의식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③ 정치 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

생활의 원리로 민주 정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 현상을 맥락적·비판적으로 탐구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정치 활동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민주적 생활 원리와 민주적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정치적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집단 활동의 정치 사회화 과정이 정치 학습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경제 영역의 지도상의 유의점

생활과 직결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원리들을 우리 사

회의 경제 현상과 관련지어 탐구하도록 하여 경제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관심과 학습된 지식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사회 속에서의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평 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과 평가의 일반적 방향

(1)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의 평가(‘(2)’ 항)

사회과의 평가는 목표, 내용,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성취 기준으로서의 목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에 대해 학습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므로 목표·내용·방법·평가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중간고사, 혹은 학기말 고사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가를 교육 활동의 종착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는 종착점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며, 일련의 순환적인 교육의 한 과정이다. 교육은 목표 설정과 교수·학습 활동,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다. 따라서 평가는 다음 목표 설정과 교수·학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개인별 성취 수준과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3, 4)’ 항)

교육 활동이란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평가의 기준은 한 학생이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목표에 도달시키는 것이므로, 평가에서는 학생이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알고자 해야 하는 것이다.

성취 수준은 평가를 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잘 분석되고 체계화된 기준이다. 이때, 교육과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과에서의 평가는 성취 수준을 근거로 설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취 수준은 교육과정의 목표 혹은 내용으

로 제시된 내용 기준과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행동 기준으로 구성되는데, 평가 기준 역시 이에 따라 설정된다. 행동 기준은 주로 학습 기능, 사고력의 신장과 가치·태도의 변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란 성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평가에 도입해야 할 요소와 그것의 범위 및 심화의 정도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목표는 평가의 기준으로서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상세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과정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를 고려한 평가 방법 적용(‘(1)’ 항)

교육과정 내용의 대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 다양화되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대강의 교육과정 지침’을 제시하고 기존의 대단원-중단원-소단원 체제를 주제명-성취 기준 체제로 단순화하였으며,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강의 열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교사 수준에서 그 열개에 따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자신이 수행한 수업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1, 7, 8)’ 항)

사회과의 평가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학습이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개인 수준에 맞는 평가를 지향하므로 평가의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한 지필 평가에서 더 나아가 기능 및 가치·태도를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 평가, 작품 분석법, 면접법,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 평가 방법도 활용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요하고 편리한 평가 방법임은 틀림없다. 객관식 중에서도 선택형(선다형)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에도 단순한 암기력보다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평가에 대한 교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의 언어적 상호 작용 분석과 같은 형태적인 분석과 더불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수업으로 구성했는지에 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이 객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도구의 개발은 교재의 분석을 통해 배울 내용과 활동들을 추출하고 교사의 평가 관점을 체계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용에 따른 행동

요소에는 지식 영역은 사실, 개념, 일반화, 기능은 정보 수집 처리, 자료 활용, 의사소통, 참여 활동, 문제 파악, 가설 방법 및 추론, 근거 분석 및 제시,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으로는 관심, 흥미, 동기, 규범 지키기,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 학습의 과정 및 수행을 중시하는 평가(‘(5)’항)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임을 고려하여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구 지향적 수업 또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수행 평가 또는 질적 평가의 방법도 도입되어야 한다. ‘수행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이론은 지금까지 많이 실시해 온 지필 평가가 실제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수행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식 영역에서도 암기 이상의 인지 작용을 측정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식 지필 평가 방법으로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수행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고도의 정신 작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 평가는 주로 질적인 자료에 의존하는데, 질적 자료란 지필 평가에 의한 자료가 아닌 관찰, 면접 등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양적 자료는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사고의 과정, 기능 영역, 가치 영역 등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수행 평가의 기본은 실제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6)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6)’항)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요구하는 종래의 평가관에서 벗어나 지식은 물론 기능과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의 세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기능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 영역은 실제로 해 보이는 것을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치·태도 영역도 강조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가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 목표에서는 고급 사고력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고력, 개념이나 일반화보다는 단편적인 사실 위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과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영역이 합쳐져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세 영역이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 평가의 내용

사회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식 영역, 기능 영역으로서 탐구 기능과 의사 결정 및 실천 능력,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으로 나뉜다.

(1) 지식 영역(‘(1)’항)

사회과에서 다루는 지식에는 사실적 지식, 기본 개념과 일반화 및 원리가 있다. 사실적 지식이란 특정 공간과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사회과에서 사실에 관한 지식들은 여러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하므로 사실에 관한 지식만을 평가한다면, 흔히 말하는 암기 위주의 사회과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상위 수준의 지식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념과 일반화는 사실보다는 상위의 지식이다. 개념은 여러 사실에서 공통성을 추출하여 이름을 붙인 지식이다. 개념이나 일반화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적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평가 영역이다. 지식을 사실에 관한 지식과 개념·일반화의 두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를 인지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주로 단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고급 사고력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암기’의 결과로써 얻은 지식은 주로 ‘사실’에 해당하는 지식일 것이며, ‘적용’ 이상의 인지 작용의 결과로써 얻은 지식은 ‘개념’이나 ‘일반화’일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과 일반화의 성취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 이상의 고급 사고력 혹은 인지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개념과 일반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지필 평가도 있고, 관찰 등의 방법도 있다. 지필 평가의 방법은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지필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온 종전의 관행을 개선하여 고급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탐구 기능(‘(2)’항)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기능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는 능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사회과에서 기능은 지역의 모습을 지도로 표현하거나 지도를 통해 지표현상을 읽어내는 지도 관련 기능, 연표의 작성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되는 기능, 도표나 그래프의 분석 및 해석에 관계되는 기능,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기능 등이 전

통적으로 중시했고, 최근에는 정보 처리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정보 처리 기능이란 사회 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재조직, 평가해 가는 일련의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세부 기능도 다양화하고 있다. 정보(자료) 수집 기능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도서 및 신문, 시사 자료에 대한 수집 능력 정도를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GIS 및 인공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줄 아는 기능까지 중요한 기능으로 취급되고 있다.

(3) 의사 결정 및 실천 능력(‘(4)’항)

사회과 평가 요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의사 결정 능력이다.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즉, 우리는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선택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 생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은 소집단 활동 등 여러 장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결정 능력 및 의사 결정에 따른 실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소집단 활동 등 여러 장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실천 능력이란 사회 문제나 쟁점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작용 관여 수준과 관련된다. 상호작용 관여는 한 사람이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관여 능력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민하게 지각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타인 지향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그 성격상 지필 평가보다는 실제 기능을 실연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치·태도 영역(‘(3)’항)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태도 영역은 사회과에서 매우 다루기 어려운 평가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과가 사회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의 가치·태도 목표는 도덕과의 목표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에서 가치·태도 영역은 우선 역사, 지리, 정치, 사회 제도 등 사회과 고유의 영역에 관련되는 것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21세기 세계화된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사회 조망능력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능력, 과학·기술·사회의 통합 인식능력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말미암아 사회 변화 관계를 인식하고 관련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 민주 이념의 이해와 실천능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가치·태도 영역은 ‘무조건……하여야 한다.’라는 식보다는 가치를 분석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다.

가치·태도 영역의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의식하면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관찰하고 체크리스트 방법 등으로 그 결과를 누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5) 학습자의 흥미, 관심, 동기, 습관(‘(5)’항)

학습자의 흥미, 관심, 동기는 정의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이 있는 학습자 변인인 동시에 학업 성취를 위한 노력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원천이다. 흥미, 관심, 동기란 대체로 행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습 흥미와 관심 및 동기의 일반적 특성은 내적인 보상을 주는 학습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고, 정보의 축적을 확장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학습 동기와 태도는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적 영역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된다.

다. 사회과 평가의 방법

선다형 지필 평가이든, 수행 중심의 평가이든 어떠한 방법의 평가를 하더라도 단순한 결과적 지식 습득의 여부보다는 기본 개념 및 원리의 이해와 아울러 이러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 과정과 활용 능력이 평가되도록 한다. 이것은 곧 교수·학습 활동의 평가로서, 학습 과정의 평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평가라면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으나, 평가의 대상은 교육 활동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활동 내용이 어떠한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정도 교육 활동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1) 수행 평가 중심의 평가(‘(1)’항)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에는 지필 평가 외에 면접, 체크리스트,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가) 면접

관찰이 평상시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면접은 평가 시간을 따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구두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서는 정식 면접(interview)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등을 끄집어낸다는 관점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법은 ‘특정 행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기록해 가는 방법이다. 관찰법이나 면접법을 적용할 때에 학생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문장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각 항목에 도달했는지,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를 점검(체크)해 갈 수도 있다.

(다) 관찰

이 방법은 평상시 학생의 행동을 보고 어떤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관찰 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평가 영역은 지식 영역 중 수준이 높은 사고력, 기능 영역, 그리고 가치·태도 영역이다. 관찰한 결과는 누군가 기록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체크리스트 법과 관련된다.

(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수행 평가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서, 이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각종 자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원을 학습해 나가면서 학생이 모은 자료, 만든 도표나 연표, 발표 요지 메모, 기록해 낸 학습지 등은 그 학생이 이 단원을 학습한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2) 지필 평가(선다형 평가)('2' 항)

지필에 의한 평가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하고 편리한 평가 방법임이 분명하다. 선다형 문항은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사회과의 주요 지식이나 원리 등을 잘 이해, 혹은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적절한 평가도구이다. 선다형 문항은 매우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다양한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선다형은 다른 객관식 문항보다 내재적인 결점이 적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 상태·목적·내용을 다룰 수 있는 다양성·포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험자의 우연적 오차의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에 문항형식으로서 가장 적절하다. 만약 답지

들을 단순하게 제작하면 단순기억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되지만, 답지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고등 정신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선다형 지필 평가를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암기력보다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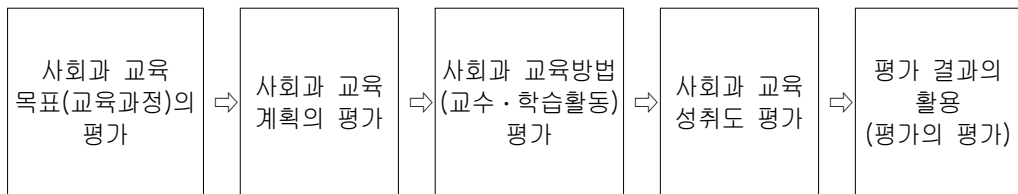
(3)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병행한 평가('3' 항)

전인적 교육 목표에 충실하려면 이른바 결과 평가라고 일컬어지는 통계 중심의 양적인 성취도 평가만을, 그것도 교과서 내용의 이해 여부만을 측정하는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의 이해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질적 자료란 지필 평가에 의한 자료가 아닌 관찰, 면접 등에 의해 누적 기록된 자료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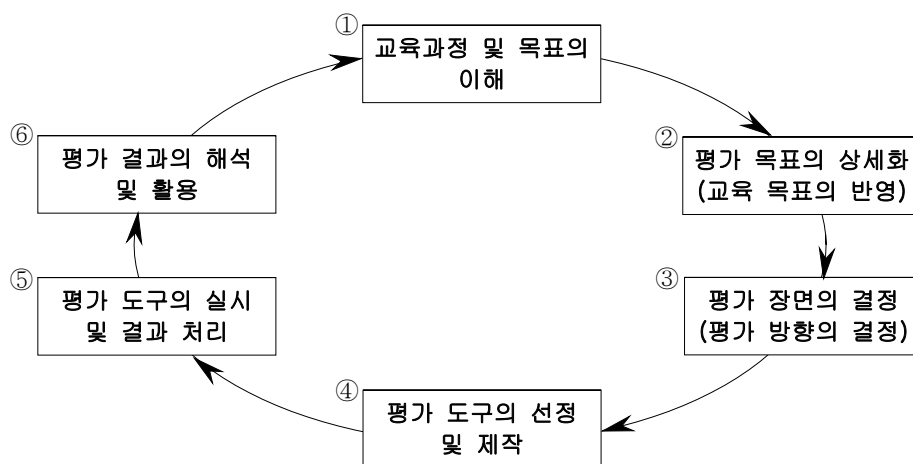
(4) 사회과 평가의 절차와 실제

(가) 평가의 절차

평가 절차는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의 절차는 큰 영역의 절차인 거시적·원리적 절차와 세부적인 영역의 절차인 미시적·실천적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과 평가과정 전체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후자는 실제 평가를 하는 단계의 절차를 가리킨다. 거시적·원리적 절차의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평가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과정 중에서 실행상 주의를 요하는 절차는 ‘평가 장면의 결정’ 과정과 ‘평가 도구의 실시’ 과정이다. 평가도구의 실시는 먼저 평가도구의 선정 및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장면이라 하면 평가 도구의 내용이 담은 방향성을 가리키며, 이에 따라 평가 도구의 형태가 달라진다. 즉, 평가에서 창의력을 측정하느냐, 발표력 또는 작문능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도구가 다른 것과 같다. 보통 평가 사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필 고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과 작품 분석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 사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평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 상대 평가를 선호하였을 때에는 주로 지필 평가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도달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평가 장면(사태)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장면과 유사한 말로 평가 장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직접 평가 활동을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교실, 야외, 혹은 평가 장면이 설정 가능한 다양한 장소 등을 평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장면이 결정된 이후에 평가 목표가 상세히 수립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는 평가 도구가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정 평가는 수시 점검법이나 보고서 또는 작품 분석법 등에서 사용하게 될 적합한 평가 도구를 사전에 구상하여야 평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필 평가는 어떠한 형태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더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평가 도구는 지적 수준에서 볼 때 학생들이 풀기에 적절해야 하고 문제의 발문법이나 구성상 오류가 없어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 등 문항의 양호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모든 사람과 집단에 공정성을 갖춘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 평가의 실행

① 학습 목표의 진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학습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평가는 수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학습 목표의 진술 방식이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부적절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목표 진술 용어가 애매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는 상세하고 한정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학습 목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특정 학습 행동을 성취하려는 사람(학생, 분단, 학급)
- 목표 달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 행동(쓸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등)
- 학습의 결과 또는 효과(사실의 진술, 가설 설정, 관계 파악)
- 목표 달성의 조건
-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

② 이원 분류표의 작성

수업 목표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목표 중에서 형성 평가의 문항 개발에 좀 더 적절한 수준의 목표들을 평가 요소로 잡아 보고, 세로는 내용영역, 가로는 행동영역으로 구성된 이원 분류표를 작성한다. ‘학습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블룸(Bloom)의 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다) 평가의 형태

① 진단 평가

진단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력 수준, 수업 결손 부분, 흥미, 성격, 적성 등을 바르게 파악하여 교육적 활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일련의 평가 활동으로서, 예전적 평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활동에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형성 평가

형성 평가는 학습 과정 중의 평가로서, 최종의 교육 목표를 향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평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서 교수·학습이 전개되는 유동적인 상태에서 학습자에게 피드백(feedback)의 효과가 있으며, 사회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다.

③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주어진 학습 과제 또는 한 교재가 끝났을 때, 설정·진술된 사회과 학습 목표의 달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업성취도 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1, 2)’항)

평가는 학습에서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수업에 다시 환류(feedback)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는 교사에게는 수업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학생의 무엇을 더 보충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료가 되어야 하고, 학생에게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평가는 점수화와 등급화의 의미를 넘어 각 개인의 인지 수준과 기능의 발달,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은 평가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평가의 서술이 수량화되었을 경우 학습자의 평소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나 발달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 의도, 의욕을 촉진하여 더 나은 성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계속적인 자기 성장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 자신도 학생의 평가와 수업의 평가를 분석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 역 사 >

1. 성격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를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역사의 성격에서는 과목의 개념 및 목적, 사회과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전략 및 강조점, 학교급별 특성 등을 서술하였다.

가. 역사의 개념 및 목적

역사 과목의 성격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자 현재를 이해하는 토대이다.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연관 지으며, 나아가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하는 것이 역사 학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는 국사 내용과 세계사 내용이 별도의 체계와 교과서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별개로 학습함으로써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역사’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역사 과목은 인류의 삶을 내용 범위로 하되, 우리를 중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적인 이해와 인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는 과거로 채워지고 나아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이 과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나타날 현상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기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다루는 과목이 바로 역사이다. 현재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이런 점에서 역사 학습은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역사에서 이해와 안목은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고

력이란 어떤 문제 상황에 접했을 때 역사학의 특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통해 우리와 타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역사 의식은 역사에 대한 견해나 사상, 느낌, 감정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존재 의식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실천하려는 문제 해결 의식을 포괄한다.

나. 역사 과목의 내용 선정 및 조직

역사 과목의 내용 선정과 조직은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역사의 내용인 과거의 사실과 현재와의 연관 및 범위로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다룬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역사는 통사로 구성하였다. 문명의 형성부터 조선 전기 및 세계적으로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까지를 8학년에서 다루었고,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9학년에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연대기에 따라 통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시대별로 병렬 구성하였다. 10학년에서 다루는 역사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내용 조직을 이루었지만, 중학교에서 다루는 전근대사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원을 달리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내용을 정선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과거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와 문화 등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정치사, 제도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제와 사회, 문화의 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루기가 어려웠으나, 인간의 삶을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갖추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다. 교수·학습 전략 및 강조점

역사 과목의 성격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서로 고립된 별개의 주체로 파악하는 시각을 지양하고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이해를 촉진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중요한 사료, 연표, 역사지도, 사진과 그림,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설명, 이야기, 문답, 글쓰기, 토론 학습 등 다양하고 적절한 교수·학습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나아가 평면적이고 나열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과거 시공간에서 활동한 인간의 모습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의미를 사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이 갖는 취지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특성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였다. 중학교 역사는 초등학교의 인물사, 생활사에 중점을 둔 국사 학습을 바탕으로 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한 통사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연계성과 학교급별 강조점을 제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중학교 역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국사와 세계사의 통사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세계사와 융합한 국사 학습을 하고, 나아가 선택 과목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통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목 표

가.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

역사 과목이 독립하였기 때문에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역사는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역사의 목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았으며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총괄 목표는 역사 과목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였으며, 세부 목표는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와 관련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학년별 내용에서는 단위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내용과 관련된 목표를 문단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나. 총괄 목표

‘역사’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과거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한다.

역사의 총괄 목표는 학습의 대상과 이해라는 지식적 측면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를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 자료를 통한 역사 교육 방법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인식과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 시간상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정,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 학습을 통해 과거 사실에 대한 개념과 원리 이해라는 수준의 사고력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에 도달하는 능력까지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역사 학습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히 자료를 통한 학습을 중시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는 하나로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를 탐색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다. 세부 목표별 설명

- 가.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나.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현대 세계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
- 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역사 과목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항은 중학교 역사의 내용 범위인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의 역사적 사실과 개념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나’ 항은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라고 하여 근현대사를 중시하는 표현이지만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학교 역사에서도 현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오늘날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 항은 역사에서 다루는 자료인 사료의 취급과 이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기능 중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라’ 항은 오늘날 문제의 기원과 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과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마’ 항은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들 5개 목표를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가’ 항과 ‘나’ 항은 지식·이해 영역에, ‘다’ 항은 기능 영역에, ‘라’ 항과 ‘마’ 항은 가치·태도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두 가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들 세부 목표가 세 가지 영역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나’ 항의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부분은 지식·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현대 세계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기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마’ 항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부분은 지식·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부분은 가치·태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내 용

가. 내용 선정의 기준

중학교 역사에서는 앞에서 진술된 개정의 방향과 교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하였다.

첫째,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이해를 통해 현대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하며,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목표의 구현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둘째, 국사 내용은 정치사와 제도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와 문화 등도 필요한 경우 포함하도록 하였다.

셋째, 세계사 내용은 지역적 범위가 넓고 다루는 시기가 길어 학습 부담이 많았으므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정선하였다. 또한, 유럽과 중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류와 상호 영향을 강조하였다.

넷째,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가르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엄선하여 깊이 있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엄선하여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역사 지식과 인식을 토대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비약되지 않도록 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하였다.

여섯째, 고등학교 역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근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중학교 역사에서 국사와 세계사의 체계적이면서 통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근현대 부분에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도록 구성하였다.

나. 내용 조직의 원리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내용을 교과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조직하였다.

첫째,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계열별로 통사적 접근을 취하였다. 역사 학습에서 통사 학습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므로 이를 중학교에 적용하였다.

둘째, 역사 영역 내 통합을 지향하여, 역사는 국사와 세계사를 병렬적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국사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통사로 구성하였고, 세계사는 시대별로 전개하되 각 시대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의 나열이 아닌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내용 요소의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조직하였다.

넷째, 과거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와 문화 등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다. 중학교 역사의 내용 체계

영역 \ 학년	8학년	9학년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라. 학년별 내용

【8학년】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역사의 뜻, 역사 공부의 목적, 역사를 보는 눈 등 역사 인식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한편 세계 각지의 선사 문화 및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역사의 개념과 사관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역사학의 본질을 알게 하며,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발전 논리 속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이어서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는 가운데 한반도와 요동, 만주 등지에 거주한 주민들이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시원과 그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역사의 뜻을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한반도와 요동, 만주 등지에서 발굴된 유물, 유적을 세계 다른 지역의 유물, 유적과 비교하여 문화 발전 과정 및 생활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한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철기 문화

의 확산을 이해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성장한 여러 국가들에서 보이는 사회 모습의 특성을 알게 한다. 특히 이 단원을 이해하는 데는 유물과 유적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지역의 문명을 비교함으로써 문명 발전의 방향과 여러 지역 문명의 특징을 연계하여 인식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역사의 뜻을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역사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역사 공부의 목적은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 이론보다는 문헌, 유물, 유적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탐구하게 함으로써 역사의 어원, 역사 학습의 목적 및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알게 하도록 권장한다.

② 도구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도구의 발전이 인류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와 요동, 만주 등지에서도 도구의 발전에 힘입어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한반도와 요동, 만주 등지에서 출토되는 선사시대 도구의 생김새, 쓰임새, 출토 장소 등을 비교함으로써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차이점을 알게 하고, 이를 다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신석기 시대의 농경 생활이 고대 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③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특히 대표적인 여러 문명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전하고 문자가 발명되고 도시가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문명 발생 지역의 유물과 유적들을 상호 비교하여 각 문명들 사이에서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출현한 국가 체제와 도시의 다양한 특징을 문명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권장한다.

④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추론한다.

고조선은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한반도와 요동, 만주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청동기 및 철기 유물, 유적 등의 특징을 알고, 고조선에 관한 기본적인 문헌 자료 등을 통해 고조선의 성립 배경 및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성격을 알도록 권장한다.

⑤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을 이해한다.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여러 문헌 자료와 철기 유물, 유적 등을 통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과 생활 모습에서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들 나라의 정치 구조와 사회 풍속 등은 지리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어 각국의 체제 정비나 대내외적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삼국시대의 사회와 문화도 다루게 되어 있다. 먼저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보였던 특징들을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을 중심으로 이해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재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삼국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중앙 집권적 체제의 특징을 추출한다. 삼국의 영토 확장과 대외 관계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삼국의 불교 문화와 고분 등을 통해 삼국 문화의 특징을 추출한다. 삼국의 문화를 통해 이들 나라가 주변 다른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추론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는 물론 시기별로도 비교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삼국의 성장에 가려 중시되지 않았던 부여, 가야 사회의 특징과 대외 교류를 알게 함으로써 한국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유의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고구려의 성장과 팽창에 따른 대내외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현 세력에 대항하면서 일어났다. 이후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사방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고구려가 문물 정비와 정복 전쟁 과정을 통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 체제에 도달하였음을 알고, 이 과정에서 전개된 중국과 신라, 백제와의 관계도 유의한다.

② 백제의 변천 과정과 대외 활동 양상을 이해한다.

백제는 처음에 한강 하류의 한 소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고 국가 체제

를 정비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백제가 문물을 정비하는 과정과 함께 영역 확대를 알도록 함으로써 백제가 중앙 집권적 체제를 정비했음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백제가 중국 여러 왕조 및 왜와 교류하면서 경제력을 쌓고 문화가 번성하였음에 유의한다.

③ 신라의 영역 확장과 체제 정비 과정을 연관 지어 파악한다.

삼국 중 가장 늦게 성장한 신라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영역을 확대하고 중앙 집권적 체제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문물 정비 과정과 함께 영역 확대를 알게 함으로써 신라가 훗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에 유의한다.

④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부여, 가야의 경우와 비교한다.

삼국은 영토의 확장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와는 달리 부여와 가야는 삼국에 각각 통합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인 공통점을 알게 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체제의 기반과 특징을 이해하게 하는 한편 부여와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탐구하도록 권장한다. 부여는 여러 나라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삼국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⑤ 삼국이 신분제 사회였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삼국의 귀족은 지배 계층으로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여 사회적 특권을 누렸으며 평민과 노비는 피지배층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신분제의 구조, 신분제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례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삼국 시대에 신분제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⑥ 고대 문화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이웃 나라와의 교류 양상을 파악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삼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웃 나라와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종교, 학문, 예술 방면에서 관련 문헌과 유물, 유적을 통해 삼국 고유의 문화가 보여주는 특징을 추출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과 교류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불교와 고분이 삼국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통일 신라와 발해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삼국의 통일 과정과 삼국 통일 이후 신라의 변화와 발해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의 대외 항쟁 및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도 여기서 다룬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알고, 통일 신라의 민족 국가 발전 과정과 문화 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고구려 유민에 의해 건국된 발해의 발전 과정과 문화 및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도 포함한다. 통일 신라가 분열되어 후삼국이 쟁투하는 과정을 탐구하도록 한다.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우리 역사에서 삼국 통일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한다. 통일 신라 및 발해의 문화가 이전 시기의 문화에 기반을 두어 발전하였음을 인식하고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탐구한다. 통일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알게 함으로써 이 시기 사회 모습의 양상과 특징을 탐구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 과정을 파악하고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며 이어서 당과도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크게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인물 자료 또는 지도 등을 통해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이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에 끼친 영향을 알도록 권장한다.

② 삼국 통일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의의를 다각도로 평가한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어서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부흥 운동을 전개하자, 신라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대표적인 사건이나 전투 양상을 통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민족의 융합을 위한 노력 등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관심을 기울인다.

③ 통일 이후 신라 사회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통일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려고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

편, 민족의 융합과 학술·사상의 발전으로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여러 제도의 정비 과정과 종교, 학술 방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통일 신라 사회가 이전 시기의 사회와 달라진 점을 탐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④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공격을 물리치고 발해를 세웠다. 9세기 선왕 때에는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발전하였고 영역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문헌과 유물, 유적 등을 통해 발해가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 발해의 건국과 발전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발해가 인적 구성과 출자 의식에서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구려 문화에 근간하여 당 문화를 수용하여 가미시켰음에 유의한다.

⑤ 통일 신라와 발해가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안다.

통일 신라와 발해는 경제, 사회, 문화상에서 당, 일본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또한 통일 신라와 발해는 대립하면서도 상호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도당 유학생의 활동, 신라와 발해가 일본에 끼친 영향 등을 이해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당시의 육상 및 해상 교통로를 활용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양상을 탐구할 수 있다.

⑥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과정을 이해한다.

통일 신라는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중앙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빈번해지고,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 집권적 체제가 동요하였다. 이에 유력한 지방 세력은 중앙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 중 견훤과 궁예가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이 시기의 사회 변동과 매우 밀접한 골품제의 모순을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확인하면서 6두품과 지방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를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4) 고려의 성립과 발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이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 관계가 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 관계 방면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고려 전기 사회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에 유의한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지니는 특징과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통일이 우리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이해한다. 고려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귀족 중심의 사회를 불러온 요인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고려 전기 여러 신분 층의 지위와 처지를 탐구한다. 고려 전기의 문화를 종교, 학술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성격을 탐구한다. 고려의 대외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고려가 처한 당면 과제와 정치 변동을 이해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고려의 통일은 후삼국 통합과 발해 유민 포용을 통해 이뤄졌음을 이해한다.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발해의 유민을 포용함으로써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족 통합 정책과 북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후 고려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고려 태조가 시행한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②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를 통해 귀족 중심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한다.

고려 초부터 정치 제도, 토지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호족 세력을 재편하여 귀족 중심의 사회를 형성해 갔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음서제와 공음전을 통해 고려가 귀족 중심의 사회임을 알 수 있으며, 과거제, 전시과의 운영 원리를 통해서도 고려 귀족이 통일 신라의 귀족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호족이 귀족이나 향리로 전환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다룰 수 있다.

③ 고려 전기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각 신분의 일상생활을 추론한다.

고려는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등 다양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생활 모습 등이 크게 달랐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각 신분의 일상생활을 문헌, 예술 작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귀족의 생활을 혼인 관계, 문벌의 형성, 재산 소유 등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④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고려 전기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한다.

고려 전기의 사상, 학문과 풍속, 예술 작품은 귀족 중심의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이 시기 대표적인 종교와 학문,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추출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이 시기의 문화는 불교가 중심이었지만, 유교와 풍수지리설 등도 병존하여 어우러졌음에 유의한다.

⑤ 고려의 대외 관계를 전쟁과 문물 교류의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고려 전기에는 북진 정책을 수행하면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고, 여진과 싸워 동북 9성을 축조하는 한편 송과는 평화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회복한 사례, 귀주 대첩을 통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여진족을 토벌하여 동북 9성을 쌓은 사실 등을 알게 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송과의 문화 교류를 다루어 동아시아에서의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5) 고려 사회의 변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무신 정변 이후 사회 변화와 대몽 항쟁 및 후기의 문화, 신진 사대부의 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하면서 무신 정변이 일어났으며 이어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도 빈발하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약화하였음에 유의한다.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이 시기에 일어난 농민과 천민의 봉기로 고려 지배체제가 붕괴 위기에 몰렸음을 알게 한다. 몽골의 침략에 맞선 민족의 항쟁 의지를 이해한다. 반원 자주화의 과정을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파악한다. 신진 사대부 세력이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배경을 알아본다. 고려 말 대외내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알게 함으로써 고려 사회의 변천 과정을 역동적으로 인식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붕괴하고, 농민과 천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봉기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권력 구조의 변화와 사회 신분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 변동의 원인과 고려 사회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 학습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모든 인명을 암기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발생 지역과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방향을 권장한다.

② 대몽 항쟁 과정을 알고 반원 자주화 노력을 설명한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맞아 줄기차게 항쟁하였으나, 결국 일부 영토를 상실하고 내정 간섭을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민중은 몽골의 침략과 조공 요구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었다. 한편, 원·명 교체기를 틈타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대몽 항전 세력의 활동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대몽 항쟁 및 반원 자주화 노력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고려 후기의 문화 변화를 설명한다.

고려 후기에는 불교계의 통합 운동이 전개되고, 성리학이 대두하였다. 또한, 활자나 공예품 등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 유산을 남겼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불교계의 변화 및 성리학의 등장 과정을 알고 이전과 달라진 점을 파악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팔만대장경, 금속 활자 등의 인쇄 문화와 불화, 상감청자 등을 통해 이 시기의 문화 변화와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④ 고려 말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여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한다.

고려 말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 한편,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은 조선 건국의 또 다른 중심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신진 사대부 및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배경 및 활동, 지향 등을 알게 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조선 건국에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고려 말의 정치 변화와 조선 건국에서 신진 사대부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인물 학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6) 조선의 성립과 변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전기의 문화와 사회생활,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확립, 왜란과 호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정치적 변화를 사림 집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왜란과 호란의 극복 과정을 통해 조선 사회가 변화해 간 양상과 방향을 다룬다. 조선 전기의 문화를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신분별로 각각의 처지와 활동을 탐구하도록 한다.

조선 전기의 체제 정비 과정을 통해 조선이 지향한 사회 체제를 파악하고, 그 시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사림 세력의 성장과 양란의 극복 과정이 조선 후기 국가 재건의 역사적 기반임을 인식한다. 조선 전기 각 신분의 일상생활 모습을 고려 사회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이 단원에서는 실록과 같은 국가의 공식적 기록뿐 아니라, 일기와 문집 등의 문헌 자료, 그

림이나 그 밖의 예술품 등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한다. 인물의 사례를 통해 조선 전기의 사회생활과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 체제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한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조선과 고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국대전의 편찬이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의 완성이라는 점을 법전 내용과 연계하여 알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만 경국대전의 조항보다는 그 규정이 적용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도 있다.

② 조선 전기에 이룩한 민족 문화의 발전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조선 전기의 사회는 민족 문화가 꽃핀 시기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조선 전기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보급 과정, 각종 과학 기기의 용도와 가치 등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 문화의 발전이 민족 의식의 성장 및 국토의 확장 등과 매우 밀접하였음을 이해하는 데 유의한다.

③ 조선 전기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각 신분의 일상생활을 추론한다.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 양반을 비롯하여 여러 신분 층이 자신의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사회 활동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신분별로 나타나는 지위와 생활 모습의 차이점은 물론 고려 사회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문헌 이외에도 예술 작품이나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사림파가 등장한 이후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확산되었음을 이해한다.

사림 세력이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훈구 세력과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림 세력은 일시적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으나, 결국 사림 세력이 조선 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통치 영역뿐만 아니라 농민의 일상생활에도 파급하여 갔음에 유념하면서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개념을 추상적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사림을 사례로 탐구 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⑤ 외세의 침략에 맞선 다양한 노력 중심으로 왜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왜란과 호란으로 조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 의병의 활약과 수군의 활동 등으로 조선은 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호란 후에는 북벌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양란의 전개 과정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백성들의 대응 방식을 알도록 권장한다. 양란의 전개 과정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인물의 사례를 들거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물, 유적, 국가나 개인의 기록,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7)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통일 제국의 특징과 그 발전 과정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제국의 성립과 확대, 제도의 정비 내용 및 문화적 특징을 다루고, 특히 보편적인 세계 종교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본다.

통일 제국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각 제국이 갖는 독자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형성된 통일 제국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세계 종교의 발달 배경과 의미를 각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변천과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일대를 통일하여 대제국을 형성하였음을 이해한다.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및 쇠퇴 과정을 중앙 집권적인 제도의 정비 및 그리스 세계와의 충돌, 국제적인 문화의 발전, 조로아스터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여기서는 왕조별 특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나열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② 마우리아, 쿠산 왕조를 중심으로 인도의 정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마우리아 왕조가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하고, 분열기를 거쳐 쿠산 왕조가 세워졌음을 이해한다. 두 통일 왕조는 불경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등 불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하였다. 불교의 성립과 불교 문화의 발달 및 전파 과정을 인도 사회의 발전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춘추·전국 시대에서 진·한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 변화를 설명한다.

춘추·전국 시대는 제후국들 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진은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중앙 집권 정책을 시행하였다. 토목 공사 등으로 인해 단명하였으나, 뒤를 이은 한 제국은 제국을 안정시켰고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한 제국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④ 그리스 문명의 형성에서 로마 제국의 발전까지 정치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스 문명의 형성과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과 그 문화를 다룬다.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과 여러 폴리스의 다양성을 다루고,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계기로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었음을 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팽창하는 과정과, 이후 서양 문명에 영향을 미친 로마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⑤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 그리스와 로마의 대표적인 학자와 그들의 활동을 조사한다.

춘추·전국 시대와 그리스, 로마에서 활약했던 주요 학자와 그들의 활동을 찾아본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 깊이 성찰한 학문과 사상이 사회 현실과 연관을 맺으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⑥ 크리스티교, 불교, 유교의 성립과 확산 과정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오늘날 세계 종교로 발전한 종교인 크리스티교, 불교, 유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각 종교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제국의 성립 및 변천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그러나 종교별 수행 방법과 교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8)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문화권의 성립과 발전 과정 및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교의 성립과 더불어 발전한 서아시아 문화권, 게르만족의 이동 후 크리스티교와 봉건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문화권, 불교와 힌두교 및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동남아시아 문화권, 조공 질서에 바탕을 두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수·당 제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하여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및 이들 문화권 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이슬람 제국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를 파악한다.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과 이슬람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어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된 문화 요소를 파악한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 요소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② 중세 유럽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비교한다.

중세 유럽에는 서쪽의 게르만족 국가와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이 공존하였음을 안다. 서유럽의 국가들은 봉건제와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적 사회였으며,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권이 강한 중앙 집권적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두 사회가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크리스티교를 중심으로 중세 유럽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르네상스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중세 유럽에서 크리스티교가 교세와 영향력을 확장시킨 과정을 파악한다. 정치와 사회, 문화 생활에서 크리스티교 교회가 차지한 위치를 사례 중심으로 탐구하며, 14세기 이후 르네상스가 일어나 인간 중심 문화가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관련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중세 사회에서 크리스티교의 위치를 느낄 수 있도록, 르네상스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굽타 왕조 이후의 인도의 정치 변화 과정을 힌두교, 이슬람교 확산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굽타 왕조 시기에 힌두교가 등장하는 등 인도의 고유한 전통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이후 인도 북부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이슬람 왕조가 성립되고,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음을 다룬다. 인도 역사의 전개 과정 및 문화적 특징을 종교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⑤ 동남아시아 국가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한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도서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나라가 일어났음을 안다. 이 나라들은 해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불교, 힌두교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이해한다. 지도와 연대표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한다.

⑥ 수·당이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하고 정치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설명한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중국을 다시 통일하여 대제국을 이룩한 수와 당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발전 연장선에서 정치 안정과 문화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안다.

⑦ 동아시아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음을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을 통해 파악한다.

당 제국과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발전된 중국 문화가 이웃 지역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문화권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수와 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류 상황을 파악하고 공통된 문화 요소를 파악한다. 다만 각 지역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범위에서 일본의 국가 형성 과정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9)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육로와 해로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사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송·원 제국과 명·청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 정책에 관한 내용과,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슬람 세계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시킨 무굴 제국, 유럽 세계의 절대 왕정 출현과 신항로 개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역사가 별개의 것으로 고립되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문화가 융합·발전하여 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송대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 해상 교역의 확대 과정을 관련지어 파악한다.

송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다룬다. 특히 생산력이 향상되고 강남 개발이 촉진되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성장하였음을 안다. 또한 이 시기에 바닷길을 통한 해상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이해하고, 해상 교역의 내용을 탐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세계사의 단초가 열렸음을 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세계 제국이었고 육로를 정비하고 역참제를 시행하여 각 지역 간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음에 유의한다. 무역을 장려하였고 외래 문화의 수용에서 개방적이었으나 정복 과정에서 저항이 심했던 한족과 남송인을 차별하는 민족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안다. 몽골 제국의 형성이 동서 교류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③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발전 과정을 파악한다.

셀주크 튀르크, 일 한국,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지는 서아시아 국가들의 성립과 이 지역에서 특히 동서 세계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전하였음에 유의한다. 오스만 제국이 광대한 영토에 여러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도록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던 배경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왕조별로 관련 사실이 지나치게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도와 연대표를 적절히 활용한다.

④ 무굴 제국의 성립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발전을 지역별로 파악한다.

무굴 제국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이 널리 이루어졌음을 안다. 동남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고 전통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었음을 안다. 각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 자료, 지도와 연대표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한다.

⑤ 신헌로 개척과 국제 무역의 확대를 배경으로 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유럽 국가들이 신헌로 개척에 나서면서 국제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안다. 이후 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형성되고 중상주의가 대두하였음을 대표적인 국가를 사례로 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동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서유럽의 경우와 비교하여 파악한다.

⑥ 명·청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 상을 파악한다.

명·청 제국의 성립과 중국 사회의 발전을 사회 경제 발전과 대외 교류를 중심으로 다룬다. 무사 사회 형성 이후 일본 사회의 발전과 대외 관계를 함께 다루도록 권장한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 교역이 확대되고, 동서양 사이에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파악한다.

【9학년】

(1) 조선 사회의 변동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조선 후기에 체제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혁, 실학자들의 사회 개혁론 및 농민들의 개혁 운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옮겨가는 과도기였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학자들의 사회 개혁론과 농민들의 봉기를 통해 사회 개혁이 조선 사회 내부에서 제기되었음을 알게 한다.

양란 이후 정부가 추진한 부세 제도 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혁의 방향과 실상을 알도록 한다. 봉당 정치가 순조 연간에 들어와 세도 정치로 변질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알게 한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의 방향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것이 신분제 변동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실학자들이 제기한 사회 개혁론과 농민들의 동향을 이해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정치·사회 질서의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양란 이후 정부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부세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중 대동법과 균역법은 이 시기 부세의 불균 문제를 없애려는 대표적인 조치였으며 탕평책은 봉당 정치의 폐단을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개혁 조치를 관련 사료에서 추출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조선 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도록 권장한다.

② 봉당 정치가 세도 정치로 변질된 사정을 알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정조의 탕평책에도 봉당 정치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자 순조 연간에는 세도 정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세도 정치는 정치 기강의 해이와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고 농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세도 정치의 등장 배경을 탕평 정치의 한계와 관련지어 탐구하도록 권장하며 세도 정치의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게 한다.

③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사회 개혁론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면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이에 실학자

들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 개혁론을 제기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농업, 상공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사례별로 설명하고 실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하였음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④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문화 부문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민 문화의 대두는 이 시기의 문화 변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문학, 예술, 국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문헌 이외도 그림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서민 문화가 이전 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배경과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⑤ 새로운 종교의 등장과 농민 봉기를 농민 의식의 성장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세도 정치로 말미암은 정치 기강의 문란과 사회적 모순에 당면하자 동학을 비롯하여 미륵 신앙, 정감록 사상 등이 널리 퍼져 나갔고 외부에서 들어온 천주교도 교세를 확장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조선 후기 농민 의식의 성장과 연계하여 정감록, 천주교, 동학 등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과 흥경래의 난을 비롯한 농민 봉기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2)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략적 접근과 대원군의 왕정 체제 개편 이래 우리 민족이 중세 말기의 사회 모순과 외세의 침략 및 강점에 당면하여 근대 국가 건설과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원군 집권 이래 일제의 대한 제국 강점까지 근대 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민족 내부 각계각층에서 전개된 정치·사회 운동과 정부의 시기별 개혁 정책의 추이를 이해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 근대사 전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어서 국권 피탈 이후 일제가 벌인 식민 통치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 민족 구성원이 전개한 항일 민족 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이해하게 한다.

대원군 집권 이래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과 강점의 실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족이 전개한 근대 국가 건설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 시기 민족 운동과 외세의 침략, 서구의 신문물이 오늘날에 끼친 영향을 추론한다. 우리 민족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추체험하여 국권 수호의 자세를 본받는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개항 이후 여러 세력이 추진한 근대 개혁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이해한다.

강화도 조약을 전후하여 정치·사회 세력은 여러 갈래로 근대 개혁 운동을 벌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개혁 운동과 사건의 전개를 연대순으로 파악하기보다, 개화파 세력·왕실과 집권 세력·농민 세력의 인식과 지향을 파악하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대원군 집권기에서 대한 제국 시기까지를 다룬다.

② 열강의 침략에 맞선 주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우리 민족은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주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은 대표적인 주권 수호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이 시기에 전개된 주권 수호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 세력 별로 나누어 지향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의 주도층과 활동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파악하고 이후 민족 운동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는데 유의한다.

③ 일제의 침략 과정과 식민 지배 정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일제는 대한 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 침략하고 식민 통치를 통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일제의 침략 과정과 식민 통치의 특징 및 실상을 단계별로 파악하는 데 유념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가 우리 역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탐구하도록 권장한다.

④ 3·1 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파악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독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주권을 되찾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3·1 운동은 이후 민족 운동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3·1 운동을 이전 시기 우리의 민족 운동 및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과 연계하여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나서, 3·1 운동의 지향과 성과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음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⑤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을 파악한다.

3·1 운동 이후 민족 운동 세력은 이념 성향과 운동 방략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때로는 광복을 속히 달성하기 위해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

로 교수·학습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전개한 민족 운동의 지향과 활동을 계열별로 구조화하여 파악하되 신간회 운동을 비롯한 민족 협동 전선 운동에 힘을 기울였음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이러한 운동 방향의 의의와 한계가 8·15 광복 이후 우리 역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⑥ 신문물의 수용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변화상을 이해한다.

개항 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까지 신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물이 급속하게 우리 사회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신문물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외세의 침략 수단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적지 않게 일으켰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신문물의 도입 배경, 경로 및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전통 문화가 근대 문화로 발전하는 데 끼친 영향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와 빚어지는 갈등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개항 이후 우리 사회에 들어온 서양 풍속을 제시하여 이러한 풍속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제의 강점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과 일본 문화가 우리 민족 문화에 끼친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대한민국의 발전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8·15 광복 이후 좌·우 정치 세력의 극심한 갈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6·25 전쟁, 민주화 운동과 경제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8·15 광복 이전과 이후 시기를 연계하여 인식함으로써 일제의 강점 이래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여러 요인이 분단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 1960년대 이래 남북한이 체제 강화를 위해 극심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화해와 통일을 위해 추구한 노력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8·15 광복으로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치 변동을 국내외 정세와 연계하여 이해한다. 6·25 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정치 변동의 실상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에 끼친 영향을 알게 한다. 8·15 광복 이후 시기별로 경제 성장의 규모와 의미를 이해한다.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의 정치 사회 변동을 알게 한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게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광복과 정부 수립, 분단과 6·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8·15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지 못한 채 남쪽과 북쪽에 체제와 이념을 각각 달리하는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고 이후 밀고 밀리는 전쟁을 거치면서 민족 분단이 고착되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분단의 국내·외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을 상호 연계하여 탐구함으로써 남북 분단이 굳어지는 과정과 이후 역사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②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려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4.19 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부가 붕괴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대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후 1980년 신군부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에 이은 유신 체제, 신군부의 독재, 민주화 운동, 민간 정부의 수립 등 일련의 정치 변동을 당시 국내외의 배경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정치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지 말고 역대 정부별로 나누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데 유의한다.

③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 변동을 이해한다.

8·15 광복 이후 우리 경제는 6·25 전쟁과 열악한 여건에도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의 실상과 이것이 사회 변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시기별 경제 변동 및 경제 성장의 과정과 연계하여 경제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편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탐색하는 데 유의한다.

④ 북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북한은 8·15 광복 이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유일 지배 체제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정책의 실패와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에 오늘날 북한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에서 북한 사회가 추진한 여러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방향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관련 자료 중에는 선전 자료가 많아 자료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고민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왔다. 7·

4 공동 성명을 비롯하여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6·15 공동 선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했음을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이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와 통일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4) 산업화와 국민 국가 형성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 이후 나타난 유럽 세계의 변화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미국 남북 전쟁의 배경 및 결과,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후 산업 혁명의 확산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어지게 된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촉발되게 된 계기와 그 결과가 유럽사의 전개에 미친 영향을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독립 전쟁의 배경을 유럽사와 연관시켜 파악하고 남북 전쟁의 배경 및 결과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서구 세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변모하게 된 배경과 이것이 제1차 세계 대전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산업 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산업 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산업 혁명을 계기로 공장제 기계 공업이 확립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이해한다. 산업 혁명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각국의 산업 혁명의 전개 양상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산업 혁명의 결과 초래된 긍정적·부정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유럽에 국민 국가 체제가 등장하였음을 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는 동안 등장한 새로운 국가 형태를 이전 시기 국가 형태와 비교한다. 빈 체제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의 전파, 영국의 선거법 개정,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을 다룬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열거하는 대신, 유럽 전체를 시야에 넣고 국민 국가 체제의 형성이란 역사적 맥락 위에서 다루도록 한다.

③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유럽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안다.

미국의 독립 배경과 독립 전쟁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이 연방제와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음을 알고 그 개념을 파악한다. 유럽의 지배를 받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을 파악하고,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 과정을 다룬다.

④ 남북 전쟁을 전후로 미국의 영토가 확장되고 산업화가 촉진되었음을 이해한다.

19세기 미국의 변화를 영토 확장과 남북 전쟁, 산업화를 중심으로 다룬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펴 영토를 확장하였다. 남북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전쟁을 전후하여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안다.

⑤ 제국주의 등장으로 세계 여러 지역이 식민지로 분할되는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산업 혁명을 거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팽창적 대외 정책을 펴게 된 과정과 아시아·아프리카 침탈 과정을 알고 제국주의 개념을 탐구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과 상호 충돌 과정을 지도를 통해 제시한다. 열강이 각각 어느 지역을 확보하였는지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제국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사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5)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각지에서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일어났고 아프리카에서도 민족 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화의 개념과 근대 국가 수립이 요구되게 되었던 배경을 당시 각국이 처하였던 현실과 직접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 과정과 이들 국가들의 대응 양상을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제국주의 침략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수탈과 억압을 당하였음을 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정책과 지배 논리를 파악한다. 제국주의 침략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식민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인이 겪은 어려움을 파악한다. 단,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사료를 활용하여 어려운 개념 나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서아시아·아프리카인들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열강의 침략이 이어지는 중에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이란에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정치 세력들이 지향했던 ‘근대화’의 의미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저항과 개혁 운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탐구한다.

③ 인도·동남아시아인의 저항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며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각 지역에 전개된 운동을 당시 처지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향했던 목표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각국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의 명칭과 과정을 나열하거나, 식민지화 여부만을 기준으로 근대적 개혁 운동의 성패를 단정 짓는 방식은 지양한다.

④ 동아시아 세 나라의 개항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외세의 압력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음을 안다. 삼국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벌였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삼국 역사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세 나라의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과정을 파악하고, 조선과 청의 대응 과정을 이해한다.

청·일 전쟁에서 제1차 대전 시기까지 일본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변화를 다룬다. 일본에 맞서는 한국인의 노력을 그 지향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중국의 개혁과 혁명 운동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여러 역사적 사실을 국가별로 분리하지 않고 서로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 현대 세계의 전개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1, 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 냉전 체제의 성립과 종식,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대두와 소련의 붕괴 과정 및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의 세계에 관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나와 우리에게 관하여 더욱 바람직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한다.

① 제1차 세계 대전이 총력전이란 새로운 양상을 띠었음을 이해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이해하고,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전쟁의 특징을 탐구한다. 특히 장기전, 총력전의 성격을 띠며 전쟁 후 유럽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음을 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을 안다.

②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적 영향을 설명한다.

러시아 혁명의 원인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제1차 세계 대전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알고, 혁명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파악한다. 러시아 혁명이 유럽의 사회 운동, 아시아 민족 운동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③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사례를 조사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개한 민족 운동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해 본다. 반제국주의 운동의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1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이 독립하려고 한 노력의 의의를 파악한다.

④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알고,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설명한다.

경제 공황과 극복 노력, 파시즘의 등장과 반파시즘 운동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개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알고, 전쟁 중 국제 평화 기구를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안다. 전쟁 시기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조사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⑤ 식민지 독립과 냉전 형성을 중심으로 1945년 이후 국제 정치의 흐름을 파악한다.

1945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독립 국가가 탄생했고, 중국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음을 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냉전으로 비화되면서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고, 신흥 독립국들의 자주적인 발전이 어려워졌음을 파악한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열

거하기보다 국제 정세의 특징과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⑥ 냉전의 완화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과정을 설명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자유화 운동이 이어지며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안다. 동유럽 자유화 운동의 배경을 냉전의 완화와 경제 변화 등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국제적인 차원의 냉전은 끝났으나, 여전히 국지적인 전쟁·민족 갈등이 존재함을 알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의 원칙

(1) 국사와 세계사의 상호 관련성 이해 (‘가’ 항)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역사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양자 간의 상호 관련성에 입각한 역사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교사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적 안목에서 살펴보고,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사와 세계사를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자국사 위주의 역사 이해가 가질 수 있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시간과 공간의 관련을 강조하는 통합적 이해 모색 (‘나’ 항)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시대나 한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나 지역의 인간들이 남긴 문헌이나 유물, 유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전개되었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시간적 변화에 따른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계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이나 사건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여러 가지 역사적 현상이나 상황을 연표와 역사 지도를 통해 제시하고, 학생들이 입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간에 따른 역사적 변화를 공간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스스로 이해한 바를 표현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3) 역사적 개념과 인과 관계 학습을 통한 맥락적 이해 (‘다’ 항)

역사 이해의 근간은 과거의 중요한 사실들과,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를 통한 보편적 지식 추구의 토대가 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고차원적인 역사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는 개별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개념 등을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과거의 사실과 사건 중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러한 사실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는 개념과 일반화, 법칙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역사적 개념의 의미를 고찰하고, 해당 시대나 주제, 인물 사례를 조사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을 탐구할 수 있다. 역사적 개념을 통한 학습은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여 의미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학생들이 개념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 지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과 관계를 여러모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거나 정형화, 도식화된 접근을 하는 대신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4) 능동적인 역사 지식 생산자로서의 학생 : 역사 지식 형성과 해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라’ 항)

학습자가 중심이 된 수업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적극적인 학습 참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역사 수업은 학생의 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스스로 학습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메타인지의 강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나아가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사 지식 생성과 반성적 성찰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역사 지식이 수업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역사 사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실을 인지하고 의미 부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 지식의 생산에 동참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탐구의 하나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역사 사실과 사건, 그 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이 같은 중층적 해석의 가능성이 역사학의 본질임을 숙지하는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5) 역사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육과정 적용 (‘마’ 항)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학교 수준의 재구성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준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대강의 교육과정 지침’을 제시하고, 기존의 대단원-중단원-소단원 체제를 주제명-성취 기준 체제로 간략화했으며,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역사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한 틀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수준과 처지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 살아있는 역사 수업 (‘바’, ‘사’ 향)

역사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동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식 수업, 문답 학습, 극화 학습, 토론 학습, 제작 학습 등이 있고, 내용 구성에 따라 사실 학습,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비교 학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사료, 시각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7) 정보화·세계화 및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사 학습 (‘아’ 향)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정보 처리 능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학생들이 정보와 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개념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초적이다. 이를 위해 역사 교사는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IE), 컴퓨터 보조 수업(CAI), 이러닝(e-learning) 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자료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다양하고 생생한 매체로 설명할 수 있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교과서나 교사의 강의에 담을 수 없는 풍부한 역사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컴퓨터의 특성상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시뮬레이션, 쌍방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사 자료와 정보를 선택, 검색, 조직, 분석, 종합,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습득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개발된 프로그램의 한계나, 구축된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교사는 해당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려 교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제를 선정, 재구성하는 수업 계획이 필요하다.

나. 교수·학습의 방법

(1) 강의식 수업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주요 개념이나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수업으로 특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전달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강의식 수업은 맹목적인 암기와 반복을 통하여 죽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수법의 전형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의식 수업은 수업 시간과 여건이 제한된 현실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수법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폭넓은 역사 지식과 논리적 설명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이야기 방식으로 수업을 주도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강의식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사고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태도와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다룰 때는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하거나 토론 등으로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좋다. 역사적 가치나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문답 학습

강의식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수업 방식으로 문답 학습을 들 수 있다. 문답 학습은 교사와 다수 학생 사이의 발문과 응답이라는 대화식 수업 방식을 말한다. 문답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의 발문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한다. 학습자의 사고 유형에 따라 발문의 유형은 제한형 질문에서 확장형 질문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다양한 발문의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발문이 제한형 질문에만 한정될 경우 강의식 수업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확장형 발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과 문제 의식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3) 토론식 수업

토론식 수업은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토론식 수업은 집단 학습의 과정이며 교사보다는 학생 상호 간의 문답이 많다. 토론식 수업은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합리적 사고 능력, 추리 능력을 기르는데 유리하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정확한 말로 표

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론은 민주 시민의 기초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게 한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견을 듣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토론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교사는 토론 전에 토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숙지시키고 적절히 개입하여 원활한 토론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4) 극화 학습

극화 학습은 역사 교육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교수·학습 방식이다. 극화 학습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행동 결정을 추체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 의식과 역사 지식의 함양은 물론 연기라는 표현 양식에서 비롯된 독특한 감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역할극이 끝난 후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극화 학습은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후 분석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준비 단계에서 교사는 역할극의 목표와 주제, 상황을 설정하고 대본을 작성하며 배역과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대본은 교사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하여 학생과 공동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후속 토의의 과정에서는 연극에서 다룬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5) 제작 학습

역사 학습에는 만들기, 그리기, 스크랩북 제작, 독후감 작성, 논설문 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제작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만들기와 그리기는 미술 활동을 역사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박물관을 견학하거나 유적지를 답사할 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유물과 유적을 그려봄으로써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대상의 특성이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답사 보고서는 박물관이나 유적지의 답사와 견학을 마친 후 그 과정과 의미를 글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관람만 하기보다는 탁본 제작 등의 제작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표면적인 인상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크랩북 제작은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사건, 시대, 인물, 주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일종의 참고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독후감이나 논설문 쓰기는 역사에 관한 책을 읽은 감상이나 역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글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 의식과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역사 신문 만들기는 중요한 시대나 주제를 정해 학생들이 스스로 당시의 신문을 만들어보는 작업이다. 역사 신문 제작은 학생들이 과거로 시간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역사를 해석하는 주체적인 시각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다. 교수·학습 자료

(1) 사료

사료는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사료에는 문헌 사료 이외에도 유물이나 유적 등의 다양한 문화재도 포함된다. 사료를 역사 학습의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직접적인 역사 이해를 체험할 수 있다. 역사 교수·학습에서 1차 사료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재편집이 중요하다. 사료 학습은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상을 재구성하며, 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방법이다. 사료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역사는 계속 다시 서술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역사적 사료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각 자료

시각적 상징을 이용한 역사 교수·학습 자료에는 지도, 연표, 그림, 도표, 사진, 만화, 슬라이드, 영상 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교과서나 역사부도 등에 실린 것을 활용하거나, 슬라이드 자료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연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연표에는 주제별로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분야별 연표와 여러 분야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연대순에 따른 시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복합 연표가 있다. 잘 구성된 연표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의 흐름은 물론 횡적인 연관성과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연표는 교사의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한 단위 혹은 주제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연표에 어떤 사건을 포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실의 의미와 관계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연표 이외에도 사진이나 그림 등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다. 또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 이해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시각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 목적에 유용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멀티미디어 자료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역사 학습 자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러 매체가 컴퓨터와 결합한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전달 효과가 뛰어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가 제공하는 색인화 기능, 검색 기능, 하이퍼텍스트 기능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처리·분류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역사 교과는 특성상 많은 정보를 다루고 유목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해야 했던 사료 학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5. 평 가

가. 역사 평가의 일반적 방향

(1) 교육과정 일부로서의 평가 ('가' 항)

평가는 역사 교육과정 일부로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는 평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비추어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업 방법을 반성하며 개선할 점을 찾아서 교수·학습 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수업 계획-실행-평가-재설계의 순환 과정에서 평가 결과는 수업의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학생의 무엇을 더 보충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료가 된다. 평가는 점수화와 등급화의 의미를 넘어 학생 개인의 인지 수준과 기능의 발달,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 자신의 평가 결과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의 지표가 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평가와 수업 평가를 분석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은 평가 실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2)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 ('나' 항)

평가는 역사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의 목표 혹은 내용으로 제시된 내용 기준과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행동 기준으로 구성되는 데, 평가 기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평가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편적인 역사 지식의 암

기를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역사적 사고 기능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 영역까지 평가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편적인 역사지식을 암기했는지 평가하는 데서 나아가 자료를 분석, 해석하고,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3) 역사적 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양적 · 질적 평가의 활용 (‘라’ 항)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임을 고려하여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 교육 목표에 충실하고 역사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 평가뿐 아니라 과정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 탐구의 과정이나 사고력 신장, 역사학에 대한 가치 · 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 방법으로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질적 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질적 자료는 지필 평가에 의한 자료가 아닌 관찰, 면접 등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역사 평가에서 질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의 역사에 대한 관심, 동기, 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문항과 평가 기법(‘마’, ‘바’ 항)

교육 평가의 기능은 교수 · 학습 과정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련 속에 있다. 앞으로 학생의 목표 성취를 돕기 위해 새로운 교수 ·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발하는 것도 교육 평가의 기능이다. 따라서 평가 문항이 개인차의 변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문항은 학생들이 풀기 적절하고, 문제의 발문과 구성에 역사적 오류가 없어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 등 문항 양호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과 사회 집단에 공정성을 갖춘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 항목과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다. 어떤 항목의 능력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의 육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서 평가 항목을 구성한다. 평가 문항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배합하여 구성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결과보다 학습 과정 및 수행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 사고 과정, 기능, 가치 영역 등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조별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역사 교육의 평가 방법

역사과 평가는 학생들의 지식, 기능, 가치 ·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학습의 총체

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므로 다양한 평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다'항)

(1) 진단 평가

진단 평가는 수업의 출발점에서 학습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의 초기 학습 상태, 즉 출발점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사전 학습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수업에 도움을 받고 교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진단 평가의 목적이다. 진단 평가에는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파악하는 방식과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적성·기능 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진단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을 탐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진단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과 태도를 판단하여 이에 적절한 교수 변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역사적 기능과 태도의 사전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과 유형별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형성 평가

형성 평가는 학습의 과정에서 시행되는 평가로, 학생들의 수업 내용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후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형성 평가를 통해 단순히 어떤 내용의 학습에서 학생이 실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피드백의 효과는 있지만, 더 나아가 그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교사는 형성 평가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여 교수 방법의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3)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일련의 학습 과제나 독립된 교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총괄 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교육 목표를 학습 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총괄 평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수 목표의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과 함께 에세이나 보고서 등의 글을 통한 평가도 필요하다. 총괄 평가의 용도는 학생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습 과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데에 있다. 평가 결과를 역사

과목 점수라는 총점으로 수치화하기보다는 사실 이해, 개념 이해, 역사적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 능력, 역사적 태도, 역사 논술 능력 등 여러 영역의 점수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각 영역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수행 평가

수행 평가는 정답을 구하는 사고의 과정을 측정하고, 학습 결과가 아닌 학습 활동 과정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수행 평가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실기나 실험·실습 또는 관찰, 면접이나 구두 시험,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 연구 보고서, 논술, 서술 등이 수행 평가의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 도구 이외에 역사 교과와 수행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는 마인드맵이나 개념도 그리기, 역사 지도 그리기, 역사 신문 만들기, 연표 만들기, 역할극 등 다양한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평가의 여러 유형 가운데 무엇이 효과적인가는 수행 평가를 통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행 평가는 수업 과정 자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고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행 평가를 확대해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유의점도 나타난다. 타당도와 신뢰성은 수행 평가 시행에서 크게 유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수행 평가는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수행 평가 타당도의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나 글쓰기 등을 수행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언어 능력에 대한 측정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V. 사회과 신·구 교육과정 비교

과 목	현 행	개 정	비 고
구 성 (문서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 주제명 ○ 주제 안내 ○ 소주제명 ○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 주제명 ○ 주제 안내 ○ 소주제명(삭제) ○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교과서 개발자에게 주제 구성의 재량권 부여 목적 ○ 초등 과정에서는 사회와 역사가 통합되어 있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여 편성함.
사 회 (국 민 공 통)	성격	○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현행 유지
	목표	○ 총괄 목표-내용 영역별 목표-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로 나누어 제시	현행 유지
	내용	<내용 체제> ○ 공통 기본 교육과정(3-10학년)의 내용 요소 제시 <내용> ○ 형식 : 성취 기준 형식,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제시 ○ 공통 기본 교육 영역별로 제시 · 인간과 공간 · 인간과 시간 · 인간과 사회 ○ 국사 : 10학년 편제에 표기	○ 성취 기준 중 심화과정은 기본 과정에 통합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 · 역사 · 지리 · 일반사회 ○ 역사 : 별도 편제 표기
	방법	○ 21개 항목의 열거식 제시 ○ 학생 중심의 수준별 지도 ○ 주제, 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 조화 ○ 탐구를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 ○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 기본 방향은 유지함 ○ 범주별 유목화하여 14개 항목으로 제시 - 교수·학습의 원칙 - 교수·학습의 방법
	평가	○ 14개별 항목의 열거식 제시 ○ 목표·내용·방법의 일관성 유지 ○ 지식, 기능, 가치·태도 종합 평가 ○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 기본 방향은 유지함 ○ 범주별 유목화하여 14개 항목으로 제시 - 평가 방향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결과의 활용

참고 문헌

- 강대현(2004). **사회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1-4.
- 구난희(2005). 세계사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역사교육**, 93. 역사교육연구회.
- 권혁재(2003). **지형학 4판**. 법문사.
- 권혁재(2003). **한국지리 총론편 3판**. 법문사.
- 권혁재(2005).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 김정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5-9.
- 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 류재택(2004).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5.
- 모경환(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개정 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8(2).
- 박선미(2004). **한국의 지리교육과정론**. 문음사.
- 박선미, 류재택(2003) **중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I 2003-4
- 박순경(2005).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
- 박진동 외(2006).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CRC 2006-8.
- 서태열(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
- 이명희 외(2000).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장의선(2007). 사회과 제7차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주요 특징과 개정 의의. **교원교육**, 23-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진재관(2006). 2005년 중등 역사과 공통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체계.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 차경수(2000).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 : 학문사
- 최상훈(2001). 역사과 교육과정의 재고.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슬.
- 최상훈 외(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 최석진 외(2001).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5.
- 최용규, 정호범, 김영석, 박남수, 박용조(200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서울 :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6). **교육과정 개정 시안과 ICT통합안 연구(사회과)**. 연구보고 RM 2006-33-3.
- 허경철 외(2005). **세계 각국의 최근 교육동향 및 교육과정 국제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4.
- 홍후조(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 : <http://cutis.moe.go.kr/>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2008년 4월 1일 발행

저작권자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발 행

인 쇄 : 한 술 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3
